



라니의 여행앨범2 (오, 체, 포, 모로코, 베

©anee(라니)

소개글

목차

1	빈(비엔나) 도착	7
2	(빈) 오이겐 공의 여름 별궁인 벨베데레궁	12
3	(빈) 100년이 넘은 칼스플라츠 지하철역과 주변	19
4	빈 국립 오페라 하우스	22
5	빈에서 가장 화려한 거리 케른트너	23
6	(빈) 모차르트의 결혼식과 장례식이 거행된 슈테판 대성당	33
7	(빈) 슈테판 대성당의 뒷골목	39
8	(빈) 호프부르크(왕궁)	48
9	(빈) 미술사 박물관, 자연사 박물관	60
10	(빈) 1번 트램 타고 링 둘러보기	64
11	Wien의 夜景을 보기 위해 도나우 타워에 오르다.	80
12	오스트리아의 베르사유, 쾨브룬 궁전	92
13	체스키크룸로프의 밤은 깊어 가고...	104
14	체스키 크룸로프의 스보르노스티광장 주변 둘러 보기	112
15	(체스키 크룸로프) 라제브니키교에서 보는 체스키크룸로프 성과 탑	120
16	(체스키 크룸로프) 부데요비치 문, 붉은 문, 수도원	125
17	(체스키 크룸로프) 선물 가게 앞에서 시선을 빼앗기다.	129
18	한 장의 그림엽서가 여기도 있었네	136
19	체스키 크룸로프의 포토 포인트	144
20	프라하의 얼굴 구시가 광장	146
21	마리오네트 인형극 '돈 조반니' 관람	157
22	프라하의 밤은 아름답다	166
23	(프라하) 오늘의 시작은 바츨라프 광장에서부터	172
24	(프라하) 무하 미술관과 검은 마돈나의 집 그리고.....	177
25	구시가 광장의 성 미쿨라세 성당	184

26	(프라하) 유대인 지구(요제프프 지구)	189
27	구시가의 화약탑	193
28	(프라하) 왕궁 정원과 벨베데르	195
29	프라하성	201
30	프라하 성의 황금소로와 달리보르 탑	216
31	(프라하) 네루도바 거리	226
32	(프라하) 레기교를 건너다	229
33	(프라하) 댄싱하우스를 찾아 걷고 또 걷기	237
34	(프라하) 카를교에서	248
35	카를교의 성인 조각상	255
36	카를교의 예술가들	262
37	카를교에서 노점 구경하기	265
38	프라하의 마지막 밤은 깊어 가고	268
39	인천→ 프랑크푸르트 → 리스본	271
40	포르투갈에서 맞는 아침	283
41	에덴의 정원이라 불리는 신트라로...	286
42	(신트라) 페나성으로	292
43	(포르투갈) 신트라의 가장 아름다운 꽃 '페나성'	297
44	(신트라) 왕궁 주변의 마을 모습	306
45	(신트라) 거리 모습	316
46	(신트라) 포르투갈 현지식 먹기 (타르트를 아시나요?)	319
47	파티마 - 어린 세 목동이 살던 마을에 도착하다.	324
48	파티마의 어린 세 목동의 생가	327
49	파티마 대성당	333
50	(포르투갈) 중국식으로 저녁을 먹고 잠깐의 산책	337

51	(리스본) 파두(Pado)를 들으러 리스본 시내로 - 리스본 시내의 야경을	342
52	(리스본) 파두 클럽에서 파두를 듣다.	346
53	유라시아 대륙의 끝 로카곶(Cabo da Roca)	350
54	로카곶에서 리스본으로 이동중인 차 안에서...	360
55	(리스본) 테주강의 귀부인 '벨렘 탑'	364
56	(리스본) 대항해에 나선 사람들이 맞이해주는 '발견 기념비'	370
57	(리스본) '제로니모스 수도원' 과 4월 25일 다리	375
58	(리스본) 버스로 시내 돌기	379
59	(리스본) 리스본의 중심 로시우 광장	384
60	(리스본) 아우구스타 거리를 걷다.	388
61	리스본 최대의 광장 '코메르시우 광장'	399
62	(리스본) 리스본에 다시 와 볼 수 있길 꿈꾸며 작별을 고하다.	405
63	(리스본) 풍발후작 광장으로	413
64	지브롤터 해협을 건너다.	418
65	탕헤르의 밤	426
66	탕헤르를 출발하여...	430
67	페스로 이동중 본 모로코의 농촌 풍경	435
68	페스로 이동 중에 본 모로코의 풍경들	448
69	페스로 이동 중 두번째 휴게소 풍경	451
70	모로코 페스에 도착하다.(신시가지 빌 누벨)	457
71	페스 신시가지의 핫산2세 거리	462
72	페스 구시가로 가는 중에...	464
73	모로코의 전통요리 '꾸스꾸스'를 먹다.	469
74	페스의 전통 수공예	473
75	(모로코 페스) 메디나	477

76	모로코의 전통적인 가죽 공장과 메디나 전경	487
77	페스 구시가 내려다 보기	493
78	페스	503
79	페스를 떠나 카사블랑카를 향하여...	507
80	카사블랑카에 도착	510
81	카사블랑카에서의 아침 산책(대서양 해변을 거닐며)	516
82	카사블랑카의 아침(거리 산책)	522
83	카사블랑카의 심장부 '모하메드5세 광장'	532
84	카사블랑카의 핫산2세 사원	539
85	모로코의 수도 라바트로 이동 중 담은 거리 풍경	549
86	'왕궁'이 있는 모로코의 수도 '라바트'	555
87	[모로코 라바트] 모하메드 5세 묘	561
88	다시 탕헤르로...	572
89	탕헤르에서 지브롤터 해협을 건너 타리파로	576
90	[베트남] 다낭 리버사이드 호텔 (사진만....)	578
91	[베트남] 다낭 리버사이드 호텔 주변 아침 산책 (사진만...)	589
92	[베트남 다낭] 바나 국립공원에서 세계 최장의 케이블카를 타다. (사진만..	605
93	[베트남 다낭] 시장 한바퀴 (사진만...)	633
94	[베트남 다낭] 오행산 (사진 먼저..)	652
95	[베트남] 호이안 1- 씨클로 타고... (사진만...)	677
96	[베트남 호이안] 일본교	693
97	[호이안] 복건회관	705
98	.	718

이른 아침 **할슈타트**를 떠나 **빈 서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점심 때가 훨씬 지난 뒤였다.

여행을 하는 동안 점심을 건너 뛰거나 늦은 오후 점심을 겸한 저녁을 먹는 것이 어느새 일상적인 일이 되었기 때문에 배고픔이란 것도 잘 느껴지지 않게 되었지만 역내에 있는 이 가게를 발견하는 순간 언제 그랬냐는 듯 급작스럽게 입에 침이 고이고 배가 고프다는 본능이 되살아났다. **Mr. Lee**라는 상호 때문에 혹시나 주인이 한국인이 아닐까 하는 기대를 했으나 한국말을 못알아 듣는 것을 보니 아무래도 한국인은 아닌 것 같고 중국인쯤 되는 것 같다.

에이~죄금은 실망이다.

그래도 메뉴를 보니 김밥, 초밥, 야채덮밥 등등 오랜만에 먹고 싶은 것 투성이다. 심사숙고한 끝에 **4.5유로짜리 야채덮밥**을 주문했다.

약간은 심심한 듯도 했지만 깔끔한 맛이 꽤 먹을만 했다. 만족스럽게 식사를 끝내고 배를 두드리며 숙소로 이동하기 위해 역을 빠져나오니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간판이 있다.

'SAMSUNG'

런던, 파리, 루페른에서도 본 적이 있지만 볼 때마다 참 반갑다.

58번 트램을 타도 숙소까지 갈 수 있었지만 아직은 처음이라 그 사실을 몰랐기에 우리는 이지 유럽책에 안내되어 있는대로 걸어서 숙소에도 착했다.



빈 서역에 도착하면 이 곳에서 식사하세요. 맛있어요.



한국과 관련된 것을 만나면 늘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다.



58번 트램



Ruthensteiner Hostel - 서역에서 얼마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 시내 관광을 하기에 편하다.
숙박요금은 15.5유로 들었다.



빈에서 사용한 24시간 프리 패스, 5유로주고 구입했다.

숙소에 짐을 맡기고 제일 먼저 찾은 곳은 벨베데레 궁이다.

우리가 Wien을 둘러 볼 수 있는 시간은 오늘의 반나절도 안되는 시간과 내일 오전 시간까지 합해

하루도 안되는 짧은 시간이었기에 사실 벨베데레 궁은 우리의 일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었다.

그러나 대장샘의 딸아이가 클림트의 그림을 보고 싶다고 하고

빈의 남역에서 내일 체스키 크롬로프로 가는 열차편도 알아봐야겠기에 남역 근처에 있는 벨베데레 궁에 잠시 들러 보기로 한 것.

벨베데레 궁은 당시 빈의 유력자였던 오이겐 폰 사보이 공의 여름 별궁으로 오스트리아 바로크 건축의 거장 힐데브란트가 세운 아름다운 건축물이다.

1716년에 별궁으로 하궁을 먼저 세우고 1723년에는 연회장으로 이용할 상궁을 세웠는데 이 두 건물 사이에는 완만한 언덕을 이용한 프랑스식 정원이 펼쳐져 있다.

오이겐 공이 죽은 뒤 합스부르크가에서 궁을 매입하여 미술 수집품을 보관하였으며 현재는 상궁이 19,20세기 회화관, 하궁이 바로크미술관인 오스트리아 미술관이 되었다.

유겐트슈틸을 대표하는 화가인 구스타프 클림트의 눈길을 끄는 작품들은 상궁에 전시되어 있는데

왼부분 궁전을 포기할 수 없었던 나와 다른 일행은 아쉽지만 클림트의 작품을 포기하고 대장샘과 헤어져 벨베데레 궁을 서둘러 나와야 했다.

지금까지 궁전이나 궁전 비슷한 건물들을 여러 차례 보아와서 그런가

솔직히 벨베데레 궁 자체에는 별다른 감흥이 없었고

벨베데레 궁 뒤로 배경이 되어주는 하늘이 너무 예뻐서 감탄이 절로 나왔다.

인간들의 위대한 솜씨에 몇번씩이나 놀라고 감동받고 했지만 인간이 아무리 위대하다해도

자연이라는 작품을 만들어내는 神의 솜씨는 따라잡을 수가 없겠구나 싶은 생각에 순간 숙연해지는 느낌까지 들었던 것 같다.



벨베데레 궁의 입구



벨베데레 상궁





벨베데레 하궁과 정원









▲
벨베데레궁을 나와 트램을 기다리며...

수박 걸 핏기 식으로 벨베데레 궁을 보고 급히 나온 우리는

빈 시내를 둘러보기 위해 D번 트램을 타고 슈바르첸베르크 광장에서 내려 제일 먼저 카를 교회를 찾았다.



▲

카를 교회는 18세기 전반에 바로크 최대의 건축가 피셔 폰 에를라흐가 세운 빈에서 가장 아름다운 바로크 교회이다.

한 쌍의 거대한 둥근 기둥에는 나선 모양의 부조가 새겨져 있고 정면 입구 위에는 페스트에 걸린 시민의 참상이 묘사되어 있다.



칼스플라츠 역사는 1899년에 완성된 세기말 양식의 건물로 19세기말 빈의 도시 교통 계획의 고문이 된 **오토 바그너**의 대표작이다.

이 건축물은 현재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지하철** 역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그 외관은 기하학적인 면분할을 통해 선과 면의 조화를 제대로 이루고 있다고.

똑 같은 건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데 동쪽의 것은 카페이고 서쪽의 것은 세미 갤러리이다.



오토 바그너의 작품으로 **칼스플라츠 역사** 외에 **우편 저금국**도 보았는데 건축에 대해 문외한인 나는 그다지 웅장하지도, 그다지 화려하지도 않은 이 건축물들의 가치에 대해서는 정확히 이해할 수도 또한 느낄 수도 없었지만 **오토 바그너**라는 이름을 자주 접하면서 건축에 대한 관심 같은 것이 생긴 것은 사실인 거 같다. 빈을 다시 가 볼 기회가 생긴다면 **오토 바그너**의 메다옹 하우스와 마울리카 하우스, 암 슈타인 호프

교회를 보고 싶고 훈데르트바서의 시영주택도 꼭 보고 싶다.

파리 오페라 하우스, **밀라노 오페라 하우스**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세계 3대 오페라 하우스 중의 하나.

1869년 완성되어 '**돈 조반니**'로 막을 올렸다고 한다.



2006.08.06

Ranee in Vienna

-케른트너 거리-



빈에서 가장 화려하고 변화한 거리라는 케른트너 거리.



보행자 전용 도로라는데 마차는 괜찮은 모양이다.



정말 사람이 넘쳐 난다



거리의 예술가들도...



거리의 광대들도 넘쳐난다.
동상처럼 꼼짝 않고 있기만 해도 되는 이 사람은 특별한 재주는 필요 없겠지만
저렇게 꼼짝 않고 버티기는 또 얼마나 힘들 것인가.



이 곳에도 어김없이 스타벅스가 있다.
비도 오락가락하고 갈증도 나고...



입을 움직이지 않고 새소리 같은 것을 내는 재주를 가진 광대.



잘츠부르크게트라이데가세에서도 본 적이 있는 간판.
해산물을 취급하는 꽤 유명한 음식점인 것 같다.



고급 선물용품점이나 부티크, 액세서리점 등이 있는 거리 답게 상점들이 크고 호화스럽다.



케른트너 거리와 주변 거리의 모습

내가 Wien에서 가장 보고 싶은 곳.....,아니다 생각해 보니 그 표현은 적절하지가 않다.

Wien에서 가장 보고 싶은 곳이 슈테판 성당이 아니라

나는 슈테판 성당을 보기 위해Wien이란 곳엘 간 것이기 때문이다.

그만큼 슈테판 성당은 나의 Wien 여행을 가능케한 중요한 의미를 가진 곳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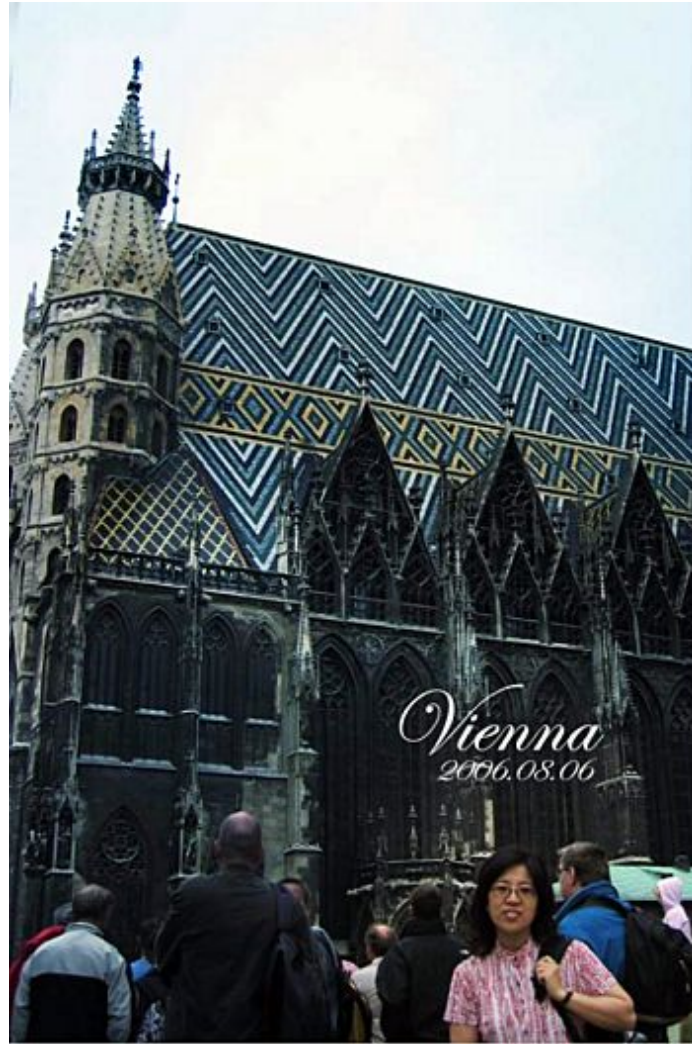
드라마 '봄의 왈츠'를 통해 슈테판 성당을 처음 알게 되었고

영화'비포 선 라이즈'를 통해 두 번째로 본 것이 전부인데

난 그 두번의 만남만으로도 슈테판 성당에 대한 그리움이 커질만큼 커져 있었다.

이 정도면 십중팔구는 실제모습을 보았을 때 실망할 것이 자명할 노릇이거늘

슈테판 대성당 만은 의외로 내게 내가 상상하던 것 이상의 더 큰 감동과 놀라움을 선사해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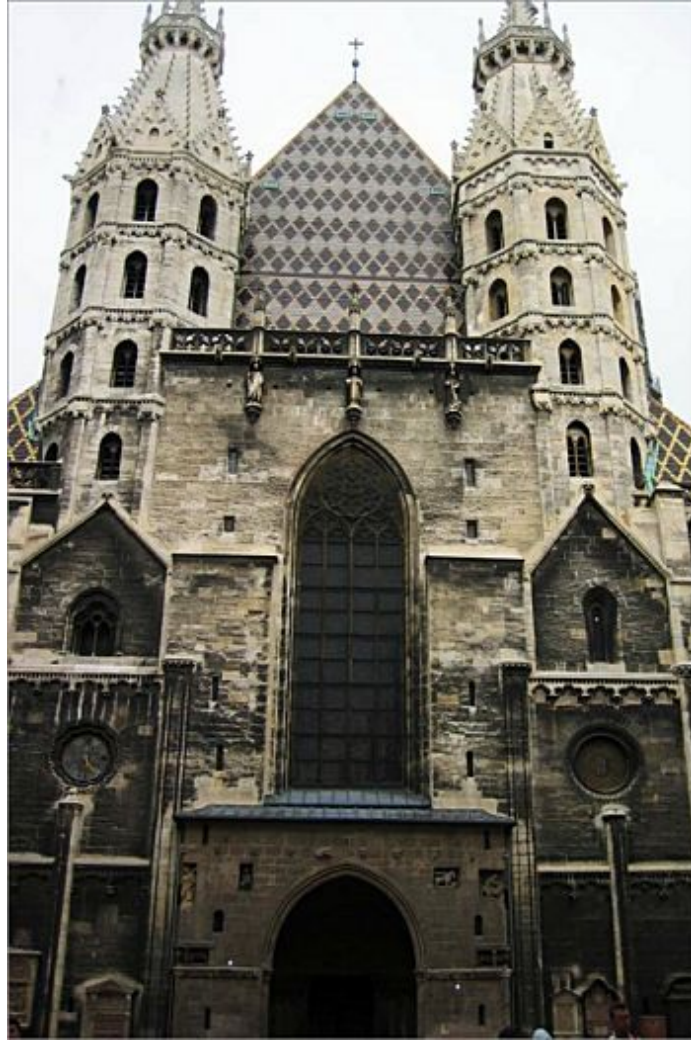


슈테판 대성당은 Wien의 명소 가운데 늘 첫번째로 꼽히는 곳.

13세기 후반에 착공해 거의 300년 동안 지어진 오스트리아 최대의 고딕 건축물이다.

건물의 외벽은 공해로 인해 검게 그을린 듯 변색되었지만, 화려한 조각과 장식물에 대한 감탄으로 입을 다물 수가 없다.

또한 합스부르크 왕가의 상징인 쌍두독수리가 새겨져 있는 모자이크 지붕의 화려함과 섬세함이란.....



슈테판 대성당 뾰족탑 주변의 장식들



성당의 내부를 보고 더욱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다.

너무 멋지다.

역대 황제들의 내장을 보관한 지하묘지 카타콤베는 보지 못했다.

슈테판 대성당에 대해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있으니 바로 **모차르트**이다.

26살의 청년 **모차르트**가 아름다운 부인 **콘스탄체**와 결혼식을 올린 장소이기도 하고 9년 후엔 행복의 출발점이었던 이 곳에서 장례식이 거행되어 세상과 이별을 고하는 장소가 되기도 했다. 장례식이 거행되는 동안 아내 **콘스탄체**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콘스탄체**가 너무나 슬픈 나머지 정신착란 상태에 빠져버렸기 때문이라고. 그의 유해는 슈테판 대성당 안쪽에 있는 십자가 예배당에 안치되었고 장례식이 끝날 무렵 갑자기 비바람이 사납게 몰아쳐 조문객들이 영구 마차를 따라 장지까지 가지 못해 성 마르크스 묘지까지 그의 시신을 옮긴 사람은 무덤을 파는 인부들 뿐이었다고 하니 황제 앞에서 연주를 하던 대음악가 **모차르트**의 마지막 가는 길은 비참하고 초라했던 것 같다. 그의 시신은 다른 유해와 섞여 공동묘지에 매장되었는데 지금까지 정확한 위치가 알려지지 않고 있다고.

현재 모차르트 기념비는 빈 중앙 묘지와 성 마르크스 묘지 두 군데에 세워져 있으나 어느 것이 진짜 그의 흔적인지는 알 길이 없는 것 같다.



▲
손님을 기다리는 마차들
—

슈테판 성당에서의 감동을 가슴에 꼭 안은채 성당에서 나온 나는 빈의 옛 모습이 남아 있다는 슈테판 광장 북쪽의 뒷골목을 향해 걷기 시작했다. 한정된 시간에 쫓기는 여행자로서는 슈테판 성당의 다음 코스로 **그라벤 거리**를 택하는 것이 상식적일 수도 있겠지만 나는 아무리 시간에 쫓겨도 꼭 이 거리가 보고 싶었기에 걸음을 더 빨리 재촉한다.

지도의 거리 이름과 건물들에 붙어있는 거리이름을 꼼꼼히 맞춰가며 찾아 간 곳, 하지만 여기가 정말 내가 보고 싶었던 곳이 맞나 싶게 이곳은 관광객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거리다. 책에서 건물 하나 하나의 의미에 대해 읽은 적이 없었다면 정말로 그냥 지나쳐 버리고 말 그런 거리....

내가 이걸 보려고 그렇게 종종거렸나 싶으면서 처음엔 약간의 실망감도 몰려왔으나 책에 나온 설명과 대조해 가며 건물들을 살펴보니 나름대로 재미가 있다. 내가 이끄는대로 날 따라온 일행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몰라 신경이 좀 쓰이긴 했지만....



플라이슈마르크트

이 곳은 13세기에 개설된 육류 시장으로 18세기에는 그리스 상인의 거주지였다고 한다.



그리헨바이슬

플라이슈마르크트 11번지에 있는 빈에서 가장 오래된 레스토랑으로 베토벤과 모차르트 등 대 작곡가들도 찾아왔던 곳.
간판에 붙어 있는 백파이프를 불고 있는 목제 조각상은 17세기의 방랑 시인 아우구스틴이며 이 레스토랑에서 자주 노래를 불렀다고 한다.



그리스 정교회

그리헨바이슬 옆에 있는 이 건물은 신비잔틴 양식의 그리스 정교회인데 내부의 황금이 칠해진 기둥과 천장이 매우 아름답다고 한다.



'아름다운 등불의 길' 이란 뜻의 거리 이름 팻말



'아름다운 등불의 길'

바질리스크엔하우스와 슈만이 살았던 집이 보인다.





'아름다운 등불의 길'이란 길 이름의 유래가 된 오래된 등(램프)이 이 거리의 6번지 집의 2층에 아직도 매달려 있다.



'아름다운 등불의 길' 7번지는 바질리스켄하우스라고 하며 위쪽 부분에 못생긴 괴수의 석상과 벽화가 있다.

옛날 이 집의 우물에 살던 **바질리스크**라는 괴수가 우물에 독을 넣는 등의 나쁜 짓을 했다고.

3번지의 레스토랑에도 **바질리스켄**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다.



바질리스크하우스 왼쪽에 이웃한 집은 1838년 슈만이 살았던 곳이다.

페터 교회를 보고 콜마르크트 거리를 걷다보니 거리의 끝에 왕궁이 보이기 시작한다.

지도상으로 볼 땐 왕궁이 꽤나 클 것 같은데 이 곳에서는 왕궁의 일부분만 보여서 도대체 왕궁의 크기를 가늠할 수 없다.



왕궁을 향해 콜마르크트 거리를 빠르게 건다가 문득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려보니 여행책자를 통해 눈에 익은 동상 같은 것이 눈에 들어온다. 페스트 기념주다. 페스트 기념주는 10만명의 목숨을 앗아간 페스트의 유행이 끝난 것을 감사하며 1693년 레오폴드1세가 세운 삼위일체상이라고 한다.

'그리고 보니 여기가 그라벤거리 로구나.'

지나가는 길에 거의 무의식적으로 셔터를 눌러대서 그런지 사진이 형편 없다.

다음엔 이렇게 시간에 쫓기지 않으며 여행이란 걸 해보고 싶지만, 아마 다음에도 별다르진 않을 것이란 생각이 든다.

시간은 정해져 있고 보고 싶은 건 많고.....



페스트 기념주

콜마르크트 거리의 끝에 다다르니 카메라로는 제대로 담아낼 수 없는 옆으로 길쭉하고 반원처럼 둥글게 생긴 건물이 눈에 확들어 온다.
왕궁이다.



왕궁

왕궁의 정문인 미하엘 문이 보인다 문의 양 옆에는 **헤라클레스 상**이 있다.
미하엘 문의 오른쪽에는 황제의 **아파트먼트**가 왼쪽에는 **승마학교**가 있다.



처음엔 언뜻 이 곳을 지키는 상징적인 인물인가 착각했었는데 아닌가보다. 신기한 모습에 사진을 찍고 감사의 표현으로 살짝 목례를 했는데 눈이 마주치자 내게 손을 내민다. 돈을 달라는 것이다. 어리석게도 처음엔 눈치를 채지 못하고 의아한 눈빛으로 쳐다 보았으나 손을 내밀고 쫓아올 듯한 기세에 놀라 도망치듯 그 곳을 뒀다. 그러한 문화에 익숙했다면 동전 하나 건네주는 게 뭐 대수랴. 하지만 나는 아직도 거리의 광대들에게 동전을 건네 주는 것에 적응하지 못한 상태였고 나는 노골적인 그의 태도에 순간적으로 너무도 놀라 당황스러움에 도망치는 것 밖엔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미하엘 문 앞의 광대



미하엘 문



미하엘문 안의 돔

미하엘 문을 들어서면 오스트리아 황제 프란츠1세의 조각상이 있는 왕궁 정원이 보인다.
정원은 구왕궁, 레오폴드관, 아말리에 궁, 제국재상 집무관으로 에워싸여 있다.



왕궁 정원



프란츠1세의 조각상



왕궁의 경비를 맡은 스위스 근위병이 있었던 스위스 문

신궁정 안은 근대적인 박물관이 즐비하다고 한다.



헬덴 문(부르크 문)을 나서면 길 건너편에 **미술사 박물관**과 **자연사 박물관**이 거울에 비춘 모습처럼 똑같은모습으로 마주보고 있고
그 사이에는 **마리아 테레지아 동상**이 서 있다.



유럽 최대의 미술관 중 하나인 미술사 박물관.

마리아 테레지아 광장을 사이에 두고 자연사 박물관과 마주 보고 있다.

박물관 내에는 **함스부르크**가의 방대한 수집품이 소장되어 있는데 가장 유명한 것은 **브뤼겔**의 작품이며 **벨라스케스**가 그린 <마르가리타 테레사 공녀이 연작 회화>와 **베르메르**의 <화가와 모델>이 명성이 높다고 한다.

그 밖에 디러, 루벤스, 라파엘로, 티티아노, 렘브란트, 크라나흐, 홀바인 등 거장의 명화가 2층에 전시되어 있다고 하는데 미술책에서 본 작품들 이외에는 아는 게 많지 않은 나로서는 고작해야 벨라스케스의 <마르가리타 테레사 왕녀>나 루벤스, 렘브란트 정도 밖에는 모르겠다.

좀 부끄러운 일인가???? 에이~그것도 잘 모르겠다.





▲ 벨라스케스의 〈흰 드레스를 입은 마르가리타 테레사 왕녀〉

▼ 벨라스케스의 〈8세의 마르가리타 테레사 왕녀〉



자연사 박물관

마리아 테레지아 광장을 사이에 두고 미술사 박물관과 마주 보고 있는 건물로
마리아 테레지아의 부군 프란츠 1세의 수집품을 바탕으로 세운 박물관이다.
자연과학 전반에 걸친 다양한 유물을 볼 수 있다고 한다.



마리아 테레지아 좌상

1888년 만들어진 것으로 대좌에는 4인의 장군 기마상과 하이든, 모차르트 등 음악가들의 부조가 있다.



2006.08.06

링 안쪽의 주요 볼거리를 얼추 다 둘러 보았으니 이제 **1번 트램**을 타고 링 주변을 둘러 보아야겠다.

1번 트램 대신 건너편 쪽에서 2번 트램을 타도 된다. 방향만 반대일뿐 코스는 같으니까....



왕궁 쪽에서 1번 트램을 기다리고 있다.

2번 트램이 다니는 길 건너 쪽은 미술사 박물관과 자연사 박물관이 있는 쪽이다.

시간이 부족하면 트램에서 내리지 않고 트램 안에서 구경할 생각이었으나 링 안쪽을 부지런히 다닌 덕분에

시간의 여유가 있어 링 주변의 볼거리들도 전부 볼 수 있었다.

게다가 링은 생각보다 훨씬 작은 것 같다.

트램 타고 링을 한 바퀴 일주하는데 27분이 걸린다니까.

(☞ 빈에 내리자마자 5유로를 주고 **24시간 교통카드**를 구입했기 때문에 트램에서 몇번이고 내렸다 타도 되고, 내일 오전에 천부른 궁전을 갈 때도 사용할 수 있다.)





국회의사당

왕궁 앞에서 트램을 타고 앉으려고 하는데 바로 국회의사당이 보인다.

마치 그리스의 신전과도 흡사하다.

앞을 새도 없이 트램에서 내려 사진을 찍어대기 시작했다.



98m의 탑이 솟아 있는 네오 고딕 양식의 시청사
여름에는 안뜰에서 음악회가 열리고 겨울에는 크리스마스 4주 전부터 시장이 선다고.



시청사 앞 광장

사시사철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훌륭한 휴식처가 되 주는 곳.

여름철에는 세계 각지의 음식과 음료를 판매하는 노천 레스토랑이 들어서며

시청사 앞에서 상영되는 '필름 페스티벌'을 보러온 사람들로 항상 붐비는데
음식이 어찌나 맛있어 보이던지 사 먹을까 말까 몇번을 망설이다 안 사먹은 것이 여태 후회가 될 지경이다.

겨울철에는 이 광장이 스케이트장으로 개장된다고 한다.



부르크 극장

1888년 세워진 극장으로 고전극과 현대극이 나란히 상영된다고 한다.



유럽의 명문 대학인 **빈 대학**
루돌프 4세가 프라하 대학보다 약간 뒤늦은 1365년 창설한 대학.



파스칼라티 하우스

베토벤의 명곡이 탄생한 집.

베토벤이 1804년부터 1808년까지, 그리고 1810년부터 1814년까지 살았던 집으로 현재는 기념관이다.
교향곡 제4번, 제5번, 제7번, 제8번, 피아노 소나타〈고별〉, 현악4중주곡, 피아노3중주곡 등이 이 집에서 탄생되었다



보티프 교회

레이스처럼 가느다란 모자이크 모양의 지붕이 아름답다.

다시 트램을 타려고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트램 정류장 옆에 지하철(U - Bahn)역이 있다.

1번 트램을 타야 하는데 D번 트램이 먼저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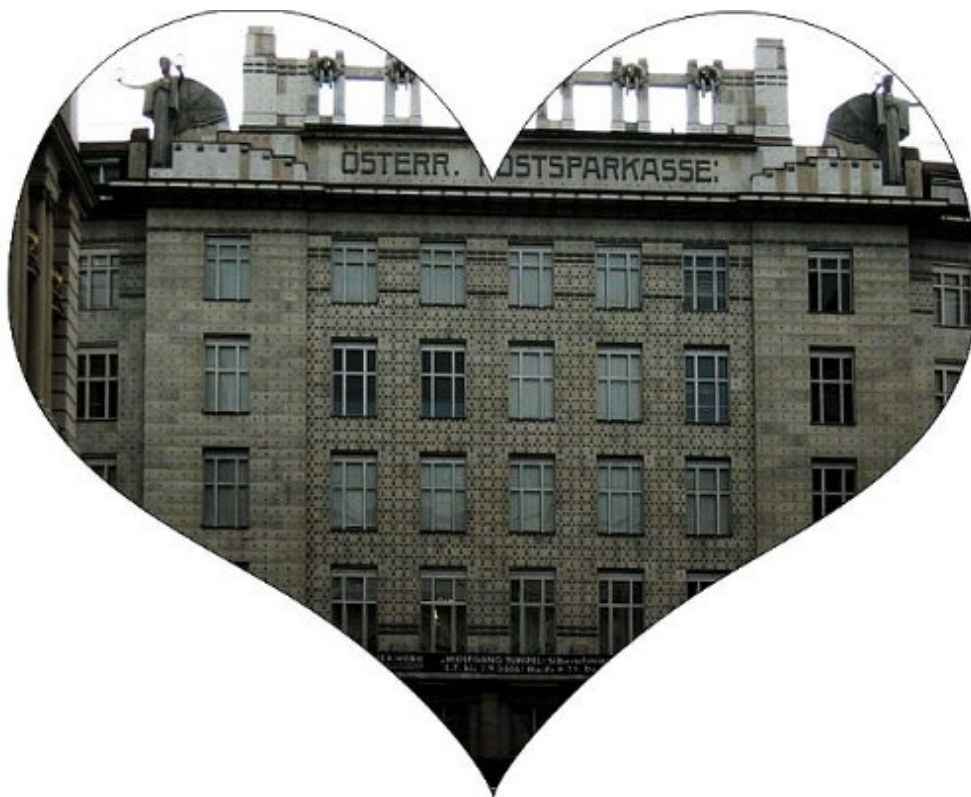


쇼텐토어 U- Bhan(지하철)역



응용 미술관

1870년대에 건설된 르네상스 양식의 건물로
 합스부르크가의 소장품과 가구, 유리 공예, 동양 미술품 등 예술적 가치가 있는 물건들이 전시되어 있다.
 디자인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꼭 들러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나도 꼭 들러 보고 싶었는데 시간이 너무 없어서...영영



우편 저금국

100년 전 근대 건축 운동의 시작이 된 건물로 오토 바그너 건축 양식을 집대성한 작품이다.
현재도 우편 저금국으로 업무를 보고 있다.



도나우 운하



눈에 띄는 현대적 건물



시립 공원의 요한슈트라우스상

시립공원은 1862년 링을 따라 좁고 길게 조성된 영국식 정원인데
곳에 요한 슈트라우스상 말고도 슈베르트와 브루크너 등 오스트리아가 낳은 대작곡가의 기념상이 있다.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요한 슈트라우스상 앞은 언제나
기념 사진을 찍는 사람들로 붐벼 사람들이 뚝 한 순간을 포착해서 사진을 찍느라고 조금 힘들었다



시립 공원에서



콘서트 하우스

시립 공원의 남쪽으로 걸어 나오면 콘체르트 하우스를 만나게 된다.

내게는 매우 매우 의미있는 장소.

20세기 초에 건설된 비교적 새로운 음악당이며 3개의 홀로 이루어져 있고 외벽에는 레너드 번스타인의 기념판이 있다.

모차르트 탄생250주년이라 그런가 음악회가 있는 곳이면 어느 곳이나 모차르트의 음악을 연주하는 것 같다

이 곳도 예외가 아니다.



1번 트램 안에서 찍은 사진들

콘체르트 하우스까지 보고 나니 해가 뉘엿뉘엿 기울기 시작한다.

링 주변도 다 둘러 보았으니 다음 코스를 정해야 하는데 잠시 망설여진다.

빈 숲까지 가는 길이 이국의 색다른 정취를 느낄 수 있어 좋았는데,

빈 대학이 있는 **쇼텐토어역**까지 가서 **38번 트램**을 타고 빈 숲으로 향할 것인가,

아니면 **U1**을 타고 **도나우 타워**로 가서 夜景을 볼 것인가.....

내가 더 하고 싶은 것은 38번 트램 타고 일종의 드라이브를 하는 거였지만

이미 날이 어두진 뒤라 밤에 보는 길이 멋질지 어떨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미련을 버리고 그냥 夜景을 보는 쪽으로 마음을 정하기로 했다.

도나우 타워로 가려면 U1을 타야 하는데 가까이 있는 칼스플라츠역은 트램에서 내려 걸어야 한다.

때문에 트램으로 **슈베덴플라츠역**까지 가서 지하철을 타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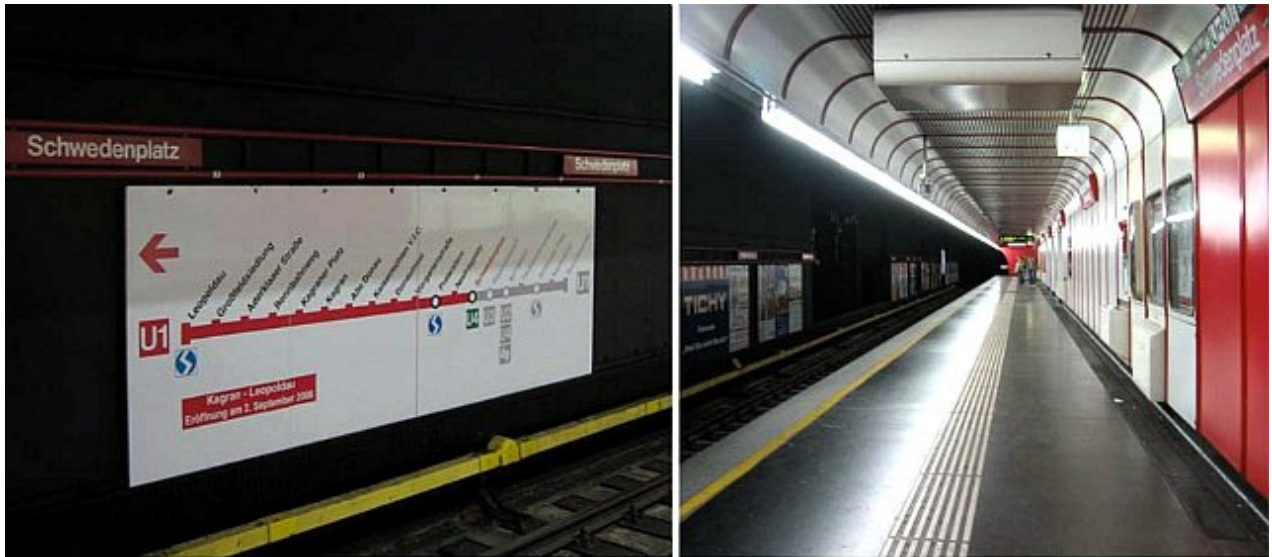


트램 정류장

우리엔겐 익숙치 않은 광고판 때문에 부끄부끄...



슈베덴플라츠역에 도착했다.



슈베덴플라츠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알트 도나우역에 내렸다.

도나우 타워는 알트 도나우 역에서 15분 정도걸어야 한다.
(15분보다 더 걸린 것 같기도 하고...)



도나우 타워로 가는 길에 중국 음식점이 있다.
꽤 큰 음식점 같은데...음식점 뒤로 도나우 타워가 보인다.



이 공원을 가로 질러 가면 훨씬 가까울 거 같은데 밤이라 너무 위험해서 포기.
발바닥이 너무 아픈데...ㅜㅜ



드디어 도나우 타워에 도착



, 5.3유로 하는 티켓을 구입해 전망대에 오르는 엘리베이터를 탔다.
전망대에는 한 시간에 한 바퀴씩 천천히 회전하며 빈 시내를 둘러볼 수 있는 회전식 레스토랑이 있다.



도나우 타워에서 내려다 본 빈 시내의 夜景.
 밤인데다 바람이 어찌나 거세게 부는지 도무지 제대로 찍힌 사진이 없다.
 빈의 야경도 아름답기로 소문난 야경이라던데 생각보다 그리 멋진 것 같진 않다.
 빌딩 숲이야 맘만 먹으면 한국에서도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거거든.



전망대 밖은 숨이 막힐 정도로 바람이 세서 전망대 안쪽에서 사진을 찍어 보려고 했으나 역시 실패.
으이구~



레스토랑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내려 가려고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다.
지금 있는 위치가 지상 150m쯤 되나 보다.
아파트로 치면 몇 층 높이쯤 되는 걸까???



도나우 타워에서 내려와 지하철역까지 버스를 타고 싶었으나
 한 시간에 한 대 밖에 없는 버스를 자그만치 40분이나 기다려야 해서 또 걸어야만 했다.
 발은 아파 죽겠고 길에는 인적도 없고, 전망대는 기대에 못미쳤고....힘들게 여기까지 온 게 좀 후회되기도 했다.
 그래도 다행히 가는 길은 올 때보다 좀 덜 멀게 느껴진다.
 눈에 좀 익어서 그런가 보다.
 숙소까진 또 언제 가나.



숙소로 돌아가기 위해 일단 U- Bhan (지하철)을 탔다.
 나라마다 특징이 있는 우리 나라와는 다른 지하철을 타보는 재미도 꽤 괜찮은 것 같다.



알트 도나우에서 U1을 타고 슈테판스플라츠에서 U3로 갈아 탄 후
빈 서역에서 내려 58번 트램을 갈아타고 숙소로 향한다.

그런데 이게 웬일.....으악! 잘못 내렸잖아.

결국 한 정거장을 걸어 어렵게 어렵게 숙소에 도착했다.

아~정말 힘들었다.

오늘 계획은 일행 모두가 오전 중에 쾰른 궁전을 둘러보고 12시 좀 넘어서 Wien을 떠나는 거였다.

그런데 대장썸의 딸 아이가 몹시 피곤한지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한다.

왜 안그럴까...이제 겨우 열한살인걸.

그래서 우리는 결국 대장썸과 헤어져 둘이서만 쾰른 궁전으로 향한다. 12시에 빈 남역에서 만나기로 약속하고...

숙소를 이동하는 날은 늘 짐이 골칫거리다.

큰 짐을 땀을 빼질 빼질 흘려가며 서역 락커에 넣어 놓고는 U6를 타고 두 정거장 가서 U4로 갈아탄 후 쾰른 역에서 내려 5분내지 10분쯤 걸었더니 쾰른 궁전에 도착했다.



원부룬 궁전 입구에 다다랐다.



쾨브룬 궁전은 오스트리아 최대 궁전으로 한 때 합스부르크 왕가의 별궁으로 사용되었던 궁전이다.



쾨른 궁전에는 1,441개의 방이 있지만 그 중에서 일반인에게 공개되고 있는 방은 45개뿐이다.
이 궁전은 특별한 사연을 가진 방들이 많은 것으로도 유명하다.

궁전 내부를 보려면 22개의 방을 관람하는 임페리얼 투어와 40개의 방을 관람하는 그랜드 투어 두 가지 코스가 있는데 우리는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금전적으로 그렇고 임페리얼 투어가 적당하겠다 싶어 8.9유로를 주고 **임페리얼 투어** 티켓을 구입했다.

쾨른 궁전에서 티켓을 구입하는데 돈을 쓰고 나면 더 이상 유로를 쓸 일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지폐를 찢지 않고 동전으로 해결하려고 하니 어찌나 힘들던지....

남은 유로는 체코 돈으로 환전해야 하는데 동전은 환전이 안되니까 동전을 최대한 다 써야 한다. 나라가 바뀔 때마다 돈을 딱 맞게 쓰는 것이 참 힘들다.(우리가 여행한 5개국 중 유로를 쓰는 나라가 두나라 밖에 없었기 때문에 네 가지 종류의 돈을 썼음)

어쨌든 어렵사리 구입한 티켓으로 궁전 내부 투어를 마치고 쾨른 궁전의 정원을 둘러 보기로 했다. (궁전 내부는 촬영 불가)



궁전에서 바라본 궁전 정원



멀리 언덕 위에 글로리에테가 보인다.



언덕 위의 글로리에테, 그리고 분수.
원래는 저 곳에 꼭 올라가볼 계획이었는데 발도 아프고 시간도 촉박해 이렇게 올려다 보는 것으로 끝냈다.



정원에서 바라본 쇤브룬 궁전



쾨브룬 궁전의 외벽에는 '마리아 테레지아 옐로'라 불리는 황색이 칠해져 있다.



마차를 타고 구경하기도 한다.
비도 오는데 말도 고생이다.



궁전 앞에서 바라본 정문

Schloß Schönbrunn Kultur- und Betriebsges.m.b.H., 2006

Fotograf: Schloß Schönbrunn Kultur- und Betriebsges.m.b.H.,
Agentur: Anzenberger/T. Anzenberger, Bundesgärten, G. Fally, M. Heller, A. Koller,
Kunsthistorisches Museum, L. Lammhuber, Tiergarten Schönbrunn, G. Trummer, J. Wagner

Informationsdesign: Martina Mölzer, Viktor Seib-Eitner

Deutsch
English

Schloß Schönbrunn
Schönbrunn Palace

Schloß Schönbrunn ist Partner von Imperial Residences Austria
Schönbrunn Palace is a partner of Imperial Residences Austria

1 Person
Datum: 07.08.06
Imperial Tour

Preis: 8,9 EUR
Incl. 10% MwSt. | 0,91 EUR |

Gate A
Time 09:29

1 EW 8,90

100% NO SMOKING
NO DRINKING
NO PHOTOGRAPHY

Kassa N. 07.08.06 08:24 422000082466



▲
신부른 임페리얼 투어 티켓 - 8.9유로

2006.08.07

빈을 떠나 우여곡절 끝에 도착한 체스키 크룸로프.

힘들었지만 우리는 기대 이상으로 멋진 古城 같은 숙소에 들어서자 피곤함도 싹 잊고 마구 들뜨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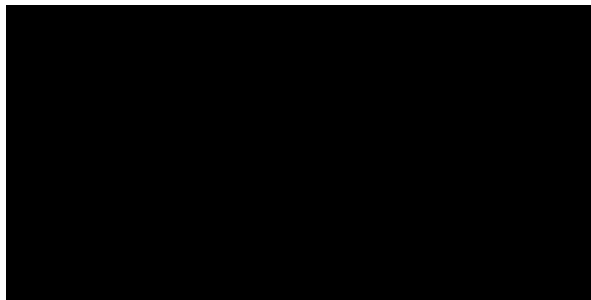
창밖으로는 보이는 성의 탑은 또 얼마나 멋지던지....

'이 곳을 포기했으면 어쩔 뻔 했어. 포기하지 않길 정말 잘했어.'

도저히 이대로는 잠을 이룰 수가 없을 것 같다.

우리는 결국 아주 잠깐만이라도 夜景을 감상하기로 하고 숙소를 나섰다.

밤이라 잘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마을이 얼마나 예뻐지 충분히 짐작이 갔다.



우리가 묵었던 숙소 - 너무 좋아서 찍은 건데...에구머니~ 이건 공포 영화의 한장면 같잖아.



계단 타일의 달팽이 문양 - 무슨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나선형 계단 - 삐걱거리는 소리가 밤의 적막을 깨고 사방에 울려 퍼진다.



침대가 6개나!.....굴러 다녀도 되겠네.
비좁은 유스호스텔에서 주로 잠을 자다보니
널널하게 큰 고성 같은 숙소가 너무 맘에 들어 우리는 모두 흥분된 상태가 되었다.



기념품 가게의 진열장 - 예쁘고 아기자기한 물건들이 시선을 붙잡아 끈다.



체스키 크룸로프성과 탑



<http://blog.daum.net/mr9864>

이발사의 다리에서 보는 블타바 강



<http://blog.daum.net/mr9864>

거리를 거닐며...



<http://blog.daum.net/mr9884>



<http://blog.daum.net/mr9884>



206.08.08

오늘 오전 중으로 마을을 다 돌아보려면 시간이 너무 부족하지 않을까 싶어 마음이 조금해진다.

아침 식사 전에 조금이라도 돌아봐야겠다.

그렇다면 숙소와 가까운 **스보르노스티 광장** 주변을 돌아보자.

Let's go!



유스호스텔 주변



스보르노스티 광장



성 비투스 교회



건물들 사이로 보이는 성의 탑



골목길도 기웃거려 보고...



다시 유스호스텔로 돌아와 아침 식사를 했다.



이게 얼마짜리 식사일까? 빵 공짜, 음료 공짜, 요리는 54코루나(2000원이 조금 넘음)

'이하~ 너무 싸다.'

그래서 팁을 20코루나 줬다. 4명이서 20코루나 준거니까 내가 준 돈은 5코루나(200원)인 셈.

정말 싸지 않은가.

체코 물가 진짜 맘에 들어. 굿~이예요.

체스키 크룸로프의 역사는 13세기, 남 보헤미아의 귀족이었던 **비테크**(Vitek) 가문이 이곳에 성을 건설하면서 시작되었다.

이 성은 보헤미아 지방의 성 중에서 프라하 성 다음으로 규모가 큰 성이다.

성의 탑은 14세기에 건설된 것으로 흐라데크라 불리며 마을 어느 곳에서 보아도 눈에 띄는 르네상스 양식의 멋진 건축물이다.



라제브니키교에서 올라다 본 탑의 아름다운 모습



라제브니키교 옆에 서 있는그리스도의 상과 성의 탑



라제브니키교 (이발사의 다리)



▲
라제브니키교에서 바라 본 블타바 강과 마을 모습



▲
라제브니키교에서 바라 본 블타바 강과 마을 모습



2006.08.08

Ranee in Ceski krumlov



<http://blog.daum.net/mr5864>

체스키 부데요비체 문에서 바라본 마을의 모습

- 체스키크룸로프 역에서 마을로 들어 갈 때 제일 먼저 만나게 되는 문이다.



<http://blog.daum.net/mr5864>

마을에서 바라 본 체스키 부데요비체 문



<http://blog.daum.net/mr5864>

마을 쪽에서 바라 본 붉은 문의 모습



<http://blog.daum.net/mr5864>

수도원



<http://blog.daum.net/mr5864>















2006.08.08

번갯불에 콩 귀먹 듯 마을 구경을 마치고 아침에 헤어졌던 일행들과 [스보르노스티 광장](#)에서 다시 만났다.

마을 구경은 따로 하고 성과 탑은 함께 모여서 같이 보기로 약속한 바 있기에 이제 일행과 함께 성으로 향하면 되는데...

아차! 그전에 먼저 할 일이 있다. 프라하로 가는 버스 시간을 알아봐야 한다.

광장에 있는 인포에 들러 알아보니 프라하로 가는 버스가 12시에 있고 4시에 있단다.

아~ 고민거리 또 발생.

12시 버스를 타자니 성과 탑을 볼 시간이 거의 없고, 4시 버스를 타자니 프라하에서 인형극을 볼 시간을 낼 수 없을 것 같다.

고민 끝에 성과 탑을 대강만 보고 12시 버스를 타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고 우리는 또 뛰다시피 성으로 향했다.

이 놈의 뽀박질 언제쯤 끝날건가.



체스키 크롬로프 성 입구

제 1정원으로 들어가는 문이 유일한 문이다.
체스키 크롬로프 성 안에는 영주의 정원을 비롯해 모두 4개의 정원이 있다고.



입구를 지나 탑을 향해 뛰고 또 뛰고...



외부의 침입을 막기 위해 만들었다는 곰 우리 같은데 곰을 못봐서 확실히는 모르겠다.

성을 관람한다는 건 어차피 불가능 했기에 35코루나(1400원정도)를 주고 성의 탑 티켓을 구입한 후 탑을 오르기 시작했다.

(성에 정원이 있다는 건 그 당시엔 몰랐던 일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체스키 크롬로프에 가서 체스키 크롬로프 성을 못보고 왔다는 건 파리에서 에펠탑을 제대로 못보고 온 것 다음으로 속상한 일이고 후회되는 일이다. 성부터 봐야 하는 거였는데....)

탑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한 사람이 간신히 지나다닐 수 있을 정도 무척 좁아서 위에서 내려 오는 사람과 마주치면 한 사람이 양보해 주어야만 올라가거나 내려올 수 있다. 시간만 넉넉하다면 그것도 참 재미있는 일로 여겨졌을 텐데 시간이 촉박한 우리에게겐 그것조차 애가 타는 일이었다.

탑에 다 오르니 생각보다 바람이 세다.

일행 중 하나는 이번 여행 때문에 새로 구입한 모자를 날려 먹었고, 공간에 비해 사람이 너무 많은 탓에 그 멋지다는 전망을 감상하기는 커녕 그나마 사진도 간신히 찍을 수 있었다.

그 당시엔 전망을 감상할 처지가 못돼 잘 몰랐는데 사진을 찍어놓고 보니 한장의 그림엽서가 따로 없다.

그래서 요즘은 제대로 못 본 풍경들은 사진을 통해 다시 감상하고 있는 중이다.



체스키 크룸로프 성과 탑

성 앞에는 여인의 동상이 있는데....누구의 동상일까??



입체적인 그림을 그려넣은 벽.....무슨 양식이라더라



<http://blog.daum.net/mr5864>

탑에서 내려다 본 성의 입구



<http://blog.daum.net/mr5864>

탑에서 내려다 본 블타바 강과 마을의 모습 1



탐에서 내려다 본 블타바 강과 마을의 모습 2



성의 탑 입장 티켓 (35코루나)

체스키 크룸로프의 포토 포인트라면 체스키 크룸로프 성의 망토다리와 바로 이 곳일 것이다.

망토 다리는 가볼 수 없어 아쉬웠지만.....



앞으로는 성의 탑과 성 비투스 교회의 첨탑이 보이고...



아래를 내려다 보면 마을 옆으로 블타바강이 흐르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전망이 좋다.

오늘 우리가 프라하에서 해야할 일 중 가장 중요한 일은 **인형극**을 관람하는 것이다.

호텔에서 체크인을 마치고 호텔 주변의 KFC에서 늦은 점심을 먹은 후 인형극 관람과 프라하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곳, 구시가 광장으로 가기 위해 우리는 A선 지하철에 몸을 실었다.

얼마후 우리가 내린 곳은 **스타로메스트카 역**.

역을 빠져 나온 우리는 먼저 역 근처에 있는 **국립 마리오네트 극장**에서

오늘 저녁에 보기로 한 인형극 '**돈 조반니**' 티켓(490코루나)을 예매하고 **구시가 광장**으로 향했다.

'와~ 진짜 사람 많네.'

일년내내 관광객들로 붐비는 곳이 구시가 광장이지만 직접 보니 생각했던 것 이상이라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사람에 치여서 뭘 제대로 볼 수 있으려나 슬며시 걱정이 앞선다.

구시가 광장은 체코인들의 삶과 역사를 말할 때 빼놓고 말할 수 없는 중요한 장소이다.

종교 개혁가 얀 후스의 화형이 있었고, 프라하의 시민 운동이 일어났던 곳이며,

합스부르크에 대항한 27명의 프로테스탄트 체코인 귀족들이 처형 당했던 장소이기도 하다니까.

광장 주변에는 **구시청사**와 **천문 시계**, **틴 성당**, **미쿨라세 성당**, **킨스키 궁전** 등 중세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아름다운 건축물들이 있고 광장의 중앙에는 얀 후스 동상이 있다.

얀 후스 동상은 만남의 장소로도 유명한데 역시나 동상 둘레에 있는 벤치에는 누군가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자리를 꽉 메우고 있다.



<http://blog.daum.net/mr5864>



골스 킨스키 궁전과 틴 성모 교회



<http://blog.daum.net/mr5864>



골스 킨스키 궁전

18세기 중반에 로코코 양식으로 지어진 골스 백작의 저택.
 합스부르크가의 지배하에서는 독일어로 교육하는 엘리트 중등학교였는데
 그 학교에 카프카가 다녔기 때문인지 1층에 카프카라는 이름의 서점이 있다.



<http://blog.daum.net/mr5864>



카프카 서점



<http://blog.daum.net/mirolove>



검은 돌종의 집과 틴성모 교회



<http://blog.daum.net/mr5864>

▲
탄성모 교회

성 비투스 대성당과 함께 프라하에서 손꼽히는 중요한 교회.



<http://blog.daum.net/mirolove>



구시가 광장의 레스토랑과 상점들

<http://blog.daum.net/mirolove>
Photo by EunSeo (Voyager)



구시청사

천문 시계 옆에 있는 분홍색 건물이 구시청사다.

고딕 양식과 르네상스 양식을 적절하게 배합해 화려한 외관이 인상적.



▲ 천문시계

구시가 광장에서 가장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그만큼 구시가 광장을 관광 명소로 만든 일등 공신이다.

1410년에 만들어진 이 시계는 매시 정각이 되면 종소리와 함께 작은 창문이 열리면서 인형으로 된 암탉과 그리스도의 열두제자가 하나씩 천천히 나타났다가 사라지는데 그 모습을 보기 위해 언제나 관광객들이 몰려 들고 있다. 안타깝게도 나는 2분 늦게 도착해 그 모습은 보지 못했고 어마어마하게 몰려든 사람들 때문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천문 시계 옆에는 죽음의 사도를 상징하는 해골 인형과 인간의 정복욕을 상징하는 기타 치는 터키인 인형, **부의 축척을 의미하는 배물뜯이 인형, 향락 추구를 상징하는 거울 든 인형 등이 달려 있다.**

종이 울릴 시간이 되면 먼저 해골이 줄을 당겨 창문을 열고 고개를 끄덕이는데 이것은 인간들에게 죽음의 시간이 닥칠거라는 암시를 하는 것이고, 나머지 인형들은 고개를 가우뚱 거리는데 그것은 설마 내게 그런 시간이 올까라는 의구심을 나타내는 거라고 한다.

즉 매시 정각이 되면 이 인형들이 함께 움직이며 '인간의 부나 허영도 죽음 앞에서는 부질 없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거라고.

그 뜻을 알고 나니 그 모습을 보지 못한 것이 더욱 아쉽게 느껴진다. 600년이나 된 이 시계는 오늘도 쉬지 않고 돌아 가고 있다.



얀 후스 동상

종교 개혁을 주장하다 1415년 화형에 처해진 얀 후스를 기리고자 서거 500주년 기념일에 제막되었다.

기념 동상은 승리를 거둔 후스파 전사들과 추방당하는 프로테스탄트 등 두 그룹의 사람들,

그리고 체코의 재탄생을 상징하는 젊은 어머니의 모습을 담고 있다.

드라마 <프라하의 연인>에서 이 동상 밑에 '소원의 벽'이라고 만들어 소원을 담은 종이가 다닥다닥 붙어 있는 것을 본 기억이 난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연출된 장면이었다고.

동상 밑에 쓰여 있는 글은 "진실을 사랑하고 말하고 지키라"는 얀 후스의 유명한 말이라고 한다.



▲
꼬마 열차



<http://blog.daum.net/mr5864>

▲
거리의 악사

관광 안내 팸플릿에 실릴만큼 유명한 할아버지인 것 같다.
이 곳에서 오랫동안 이 일을 해오셨나 보다.

런던에선 뮤지컬을 빈에선 음악회를 프라하에선 인형극을...

전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인형극을 공연한다는 나라 체코.

이 곳까지 와서 어찌 인형극 관람을 빼놓을 수 있으리.....

구시가 광장을 대강 둘러보고난 시각은 6시 30분경. 우리가 예매해 놓은 인형극 '돈조반니' 의 공연 시각은 8시.

공연 시각까지 꽤 많은 시간이 남아 있었지만 이왕이면 좋은 자리에서 인형극을 관람하고 싶은 욕심에 우리는 구사광장을 빠져나와 국립마리오네트 극장으로 걸음을 옮겼다. 지정 좌석이었으면 그런 욕심이 생길리도 없었으련만, 왜 그런지 몰라도 이곳은 좌석이 지정되어 있지 않고 선착순으로 입장하기 때문에 원하는 자리에서 인형극을 관람하고 싶은 사람은 한 시간 이상 전부터 기다려야 한다. 극장에 도착해 보니 우리 보다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둘 있다. 한국인이다. 계단에 걸터 앉아 기다리고 있자니 우리 뒤로 줄을 서는 이 또한 한국인. 한국인 이란 한국인은 여기서 다 만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오죽하면 한국어로 되어 있는 팸플렛도 있고 극장밖 게시판에는 한국어로 써 붙여 놓은 안내 글도 있을까.

他地에서 만나게 되는 한글은 언제이건 어느 곳이건 뭐라 형용할 수 없는 반가움으로 맘을 설레게 만드는 힘이 있다.

국립극장 인형극단

연중무휴 공연합니다.

3월 ~ 10월: 연말연시 (12월25일 - 1월4일): 며칠
11월 ~ 2월: 매주 월요일 및 목요일

입장권 구매 및 안내:

국립극장 인형극 대표소

매일 10:00 - 20:00 (오전10시-오후 8시)

Žatecká 1, Praha 1 구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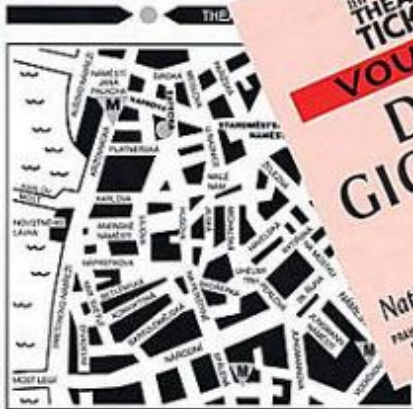
(지하철역 Staroměstská)

전화 • 팩스 (+420) 224 819 322, 224 819 323, 224 819 324

e-mail: festival@mozart.cz

www.mozart.cz

W.A. 모짜르트는 오페라 중의 오페라, '돈조반니'를 프라하를 위해 특별히 작곡하였습니다. 1787년 스타보프스키 극장에서 초연되었고 초연 시 직접 지휘하였습니다. 1991년부터 구시가지 지역 Žatecká 17리의 국립극장 소속 인형극 극장의 무대에서 상연되는 최고 인기 작품입니다. 3500회 공연에 이미 600,000의 관객이 관람하였습니다. 모짜르트 스타일로 공연되며 대형 전통인형과 손으로 그린 배경, 그리고 18세기 중의 독특한 분위기를 갖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오리지널 버전 (libretto: Lorenzo da Ponte) 으로 공연됩니다. 감독은 체코 전통 인형극 감독의 대표인 카렐 브로흐입니다. 공연을 매일 20:00에 시작되며 공연시간은 2시간이며 프라하에서 돈조반니를 만보시고 어떻게 프라하를 방문하실 수 있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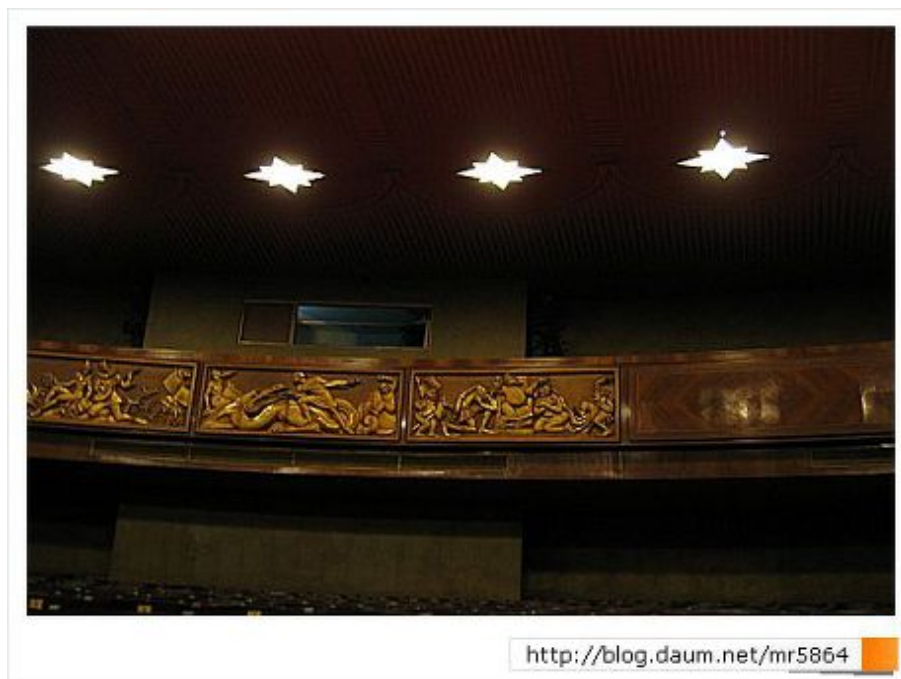
<http://blog.daum.net/mr5864>

▲ 지하철 A선 스타로메스트스카 역에서 내려 패스트푸드점 KFC가 보이는 곳 사거리에서 오는쪽으로 고개를 돌리면 문 앞에 인형이 매달려

있는 곳이 나오는데 이 곳이 바로 그 유명한 **국립 마리오네트 극장**이다. 입장료는 490코루나. 다른 소극장의 입장료는 350코루나로 이 곳보다 싸게 볼 수 있지만 값이 좀 비싸더라도 인형이 가장 크고 음향 시설도 상대적으로 좋은 이 곳에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 공연이 8시부터 시작인데 미리 들어갈 수가 없다. 계단에 앉아 기다리고 있는 중. 티켓은 이 곳에서 구입하면 된다.



▲ 8시 가까이 되니 공연장 문을 열어 준다. 우리 일행은 맨 앞 가운데 그야말로 로얄석에 앉았다. 그 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아 빈자리가 많이 남을 줄 알았는데 공연 시간이 되니 그 짧은 시간에 어디서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는지 빈자리 하나가 없다.



▲ 아무리 인형극이라 해도 알아 듣지도 못하는 오페라 음악을 2시간 가까이 듣고 있다면 좀 지루하지 않을까..체면 때문에 내놓고 말하진 못해도 솔직히 그런 걱정이 없지 않았다. 하지만 이런 걱정은 공연이 시작되는 순간 거짓말처럼 순식간에 날아가 버리고 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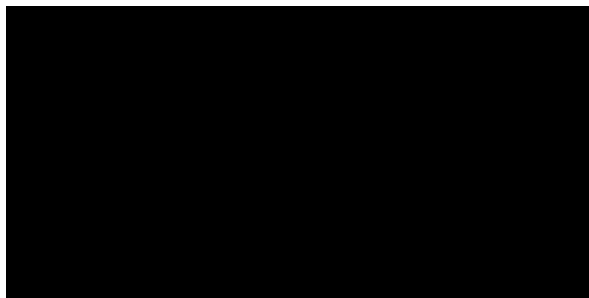
이 모차르트 인형이 중간마다 나와 배꼽을 잡고 웃어야만 할만큼 코믹한 장면을 연출하기 때문.

자신의 음악을 품나게 진지하게 지휘하는가 하면 어느새 우스꽝스런 표정으로 갑자기 관객을 쳐다보기도 하고, 얘기치 못한 장면들을 시도 때도 없이 연출하는데 그 능청스러움이 살아있는 사람도 흉내내지 못할 정도이다.

게다가 순간 순간 나를 쳐다보는 것 같은 착각에 빠뜨리는 그의 살아 있는 듯한 눈 때문에 어찌된 일인지 가슴이 철렁 내려 앉기까지 하니 이 무슨 조화인지 모르겠다.

분명 인형의 표정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가지 표정이었을텐데 나는 마치 마법에 걸리기라도 한 것처럼 그의 얼굴에서 다양한 표정을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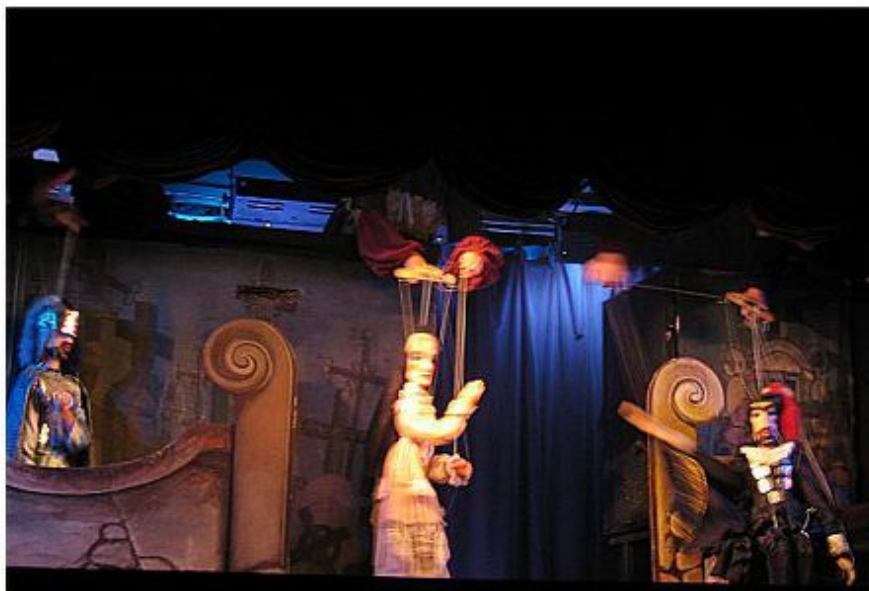
정말 인형을 조종하는 사람들의 魂이 인형 속에 녹아든 것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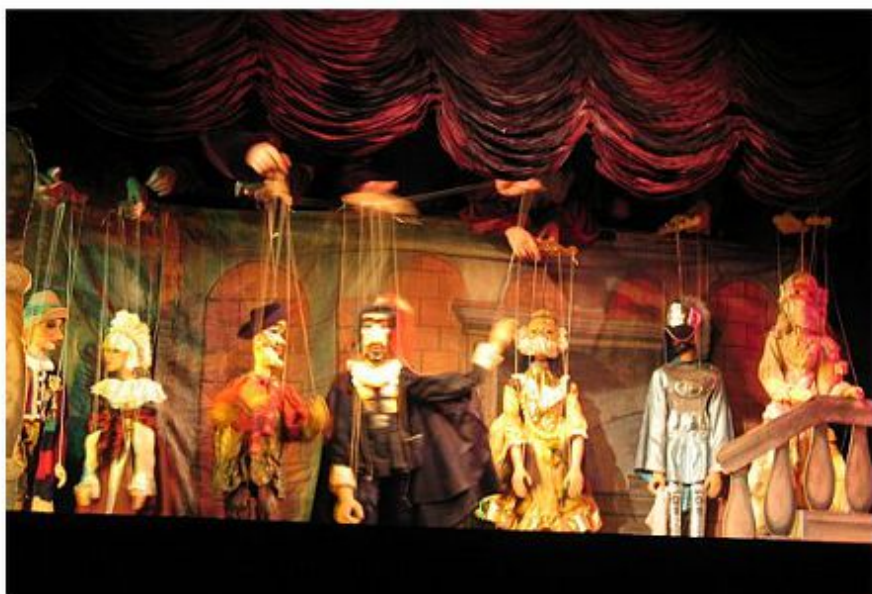


<http://blog.daum.net/mr58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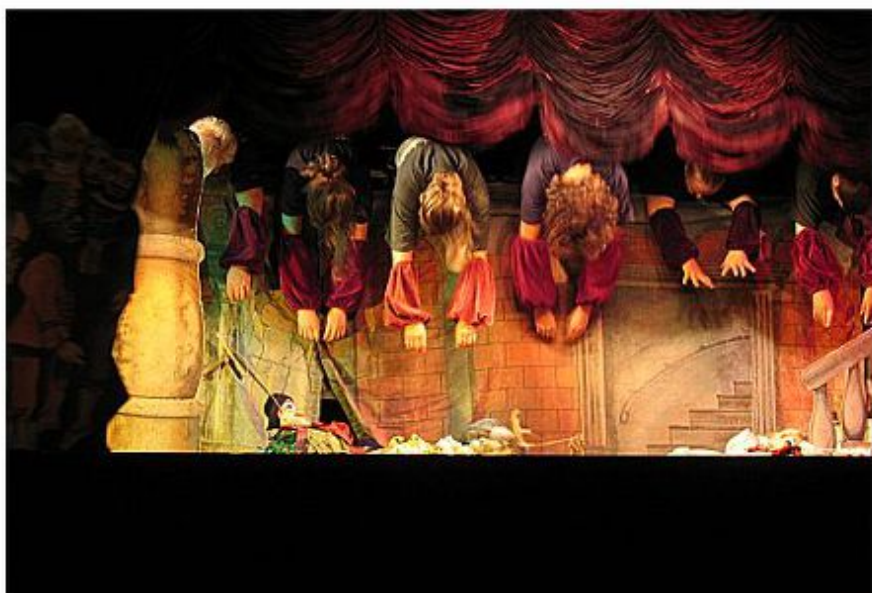
▲ 오페라 <돈 조반니>는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출신의 모차르트가 이 곳 프라하에서 작곡하고, 프라하 스타보브스케 극장에서 최초로 공연한 것으로 유명한 모차르트의 대표적 오페라 중에 하나이다. 내용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만나는 여자마다 유혹하고 배신하는 바람둥이 돈 조반니가 결국 벌을 받는다는 내용. 인형극 <돈 조반니>는 바로 이 오페라를 아이টে으로 만든 인형극으로 인형들이 마치 사람처럼 살아있는 듯한 느낌을 주어 원작과는 또 다른 감동과 즐거움을 준다.



<http://blog.daum.net/mr5864>



<http://blog.daum.net/mr5864>



<http://blog.daum.net/mr5864>



<http://blog.daum.net/mr5864>



<http://blog.daum.net/mr5864>



<http://blog.daum.net/mr5864>



<http://blog.daum.net/mr5864>

▲ 인형극이 끝나고 인형을 조종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불러야 하는지 모르겠다.)이 인사를 한다. 우리는 당연히 마음에서 우러나는 우뢰와 같은 갈채를 보냈다. 너무나 대단했으므로...



▲ 무대 앞쪽 모차르트 인형을 조종했던 공간.

인형극을 보고 호텔로 되돌아 가는 길.

시간은 이미 꽤 늦어있었지만 유럽의 다른 도시들과는 달리 밤늦게까지 깨어있는 프라하의 휘황찬란함이 알콜 성분처럼 우리 체내에 퍼져 피곤함조차 마비시켜 버리고 우리의 기분을 들뜨게 한다. 쇼윈도에 진열된 가지 가지의 공예품들은 조명으로 치장되어 그 아름다움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는 어김없이 그 진한 유혹에 시선이 붙들려 도저히 발걸음을 앞으로 내딛지 못하고 있다.





간신히 그 유혹으로부터 벗어나 [카를교](#)에 이르렀으나 이번엔 그 보다 더한 유혹의 기다리고 있었으니, 말로만 듣고 사진으로만 보아 왔던 [프라하성의 夜京](#)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던 것이다.



그동안 야경사진 찍기에 몇 번의 실패를 거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름다움을 간직하고픈 욕심에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거듭해서 사진을 찍어본다. 그러나 '혹시나'라는 말에 짝을 이루는 말이 '역시나'라는 말이라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 카메라는 여전히 나를 배신하고야 마는 데....



프라하 성 사진 찍기의 집착에 지쳐갈 즈음 180도로 몸을 돌리니 참 희한한 건물 하나가 보인다. 마치 까만 바다 위를 헤엄치는 고래 한마리 같은, 게다가 머리엔 금빛 왕관까지 하나 쓰고 있다. 도대체 저 건물은 뭘까 궁금했지만 이 밤엔 도저히 확인할 길이 없다. 다음 날 댄싱하우스를 찾다 저 곳을 거쳐가게 되었는데 저 건물은 **국민 극장**이었다. 낮에 보니 밤에 보았던 고래 같은 모습은 발견할 수가 없고 그냥 예쁜 건물이었다.



夜景과 조화롭게 어울려 보일 내 모습을 상상하며 사진을 찍어달라 부탁했다. 그러나 사진 속의 건물들은 모두 아지랑이로 변신중.그나마 내가 아지랑이가 되지 않은 것에 감사해야할 판이다.



夜景을 구경하다보니 한참만에야 카펠교를 건널 수 있었다. 정말 밤이 깊어 버렸다.

지하철을 타니 승객이 거의 없다.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밤12시가 가까워 지하철을 탔을 때의 충격이 새삼 떠오른다. 너무나 조마조마한 맘으로 지하철을 탔는데 밤인지 낮인지 구분이 안갈 정도로 지하철을 가득 메운 승객들을 보고 입이 딱 벌어졌던 기억.

내가 모르는 다른 세계를 본 것 같아 나는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다.

이 곳 프라하는 우리의 서울과는 다른 것 같다.

그래도 다른 유럽의 도시에 비하면 우리네와 가장 닮아 보이는 프라하. 다른 곳에서는 느끼지지 못했던 각별한 애정이 마음 깊숙한 곳에서 꿈틀거리고 있음이 느껴진다.



<http://blog.daum.net/mr9884>

대장은 속이 탈이 났는지 밤내내 아파서 잠을 한숨도 못 잤다고 더 자야겠다고 하고 우리끼리만 먼저 나가라 한다. 그렇다면 어차피 이리 된 거 각자 맘 편히 다니는 게 좋겠다 싶다. 결국 우리는 저녁 7시에 카를교에서 만나기로 하고 제 각각의 계획대로 길을 나섰고 나는 프라하 여행의 시작이라는 바츨라프 광장으로 향했다.

지하철 A선의 Muzeum(무제움)역에서 내리니 역 바로 옆에 국립 박물관이 있고 박물관 앞에는 바츨라프 기마상과 함께 광장이 펼쳐져 있다. 광장이라고 하면 보통 둥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을 떠올렸는데 이 곳은 그런 둥그런 형태의 광장과는 달리 국립 박물관을 앞에 두고 길게 뻗어 있는 형태이다. 광장의 양 편에는 각종 기념품 가게와 레스토랑, 호텔들이 인상적으로 늘어서 있으며 광장 중앙에는 곳곳에 꽃밭과 벤치가 놓여 있어 많은 사람들이 이 곳에서 여유를 즐기는 게 보인다.





체코의 자부심, 국립 박물관

체코의 최대 박물관이자 세계 10대 박물관 중의 하나로 체코인들이 가장 자부심을 갖는 곳이라고.



박물관 앞의 바츨라프 기마상



바츨라프 광장

체코의 근대사를 지켜보아 온 역사의 현장.

오늘날에는 바츨라프 상 주변이 프라하 시민의 만남의 장소가 되고 프라하에서 가장 붐비고 있으며 활기찬 곳이다.





바츨라프 광장에 바라본 국립 박물관

국립 박물관에서바츨라프 광장으로 이어지는 거리를 걷다보면 오른쪽 방향으로 건물과 건물들 사이에 난 거리들을 자주 만날 수 있다. 나는 그 중에서 트램이 다니는 길을 시작으로 지그재그로 돌며 다양한 거리를 돌아보기로 했다. 내가 접어든 길의 꼬트머리쯤에 화약탑과 비슷하게 생긴 건물이 보인다.지도상으로 볼 때 화약탑은 이 길에 있는 것이 아닌데 하고 의아해 하며 다가가 보니 이름을 알 수 없는 교회였다. 화약탑이 아님을 확인하고 되돌아서 걷다가 **무하 미술관**을 보기 위해 오른쪽으로 방향을 꺾어 판스타 거리로 접어들었다.



판스타 거리 로 접어들자마자 바로 **무하 미술관**이 보인다.

무하 미술관은 체코의 자랑이자 아르누보의 거장 **알폰소 무하**의 작품을 실물로 감상할 수 있는 곳.

알폰소 무하가 누구냐고?

나처럼 미술책에서 본 화가나 작품이 아는 것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사람에겐 무하란 이름이 생소할 수도 있다.그렇지만 그런 사람이라 해도 **타로 카드** 정도는 알텐데 알폰소 무하가 바로 그 타로 카드를 그린 작가라고 하니 이쯤이면 전혀 생소한 사람은 아니지 싶다.

시간이 충분했다면 무하의 관능미 넘치는 작품 세계를 보고 싶는데....

하지만 프라하의 다른 것들을 포기할 수 없기에 어쩔 수 없이, 늘 그래왔듯이 눈 한번 질끈 감고 그냥 지나치기로 했다.



판스카 거리를 빠져나와 왼쪽의 **나프로지코페** 거리로 방향을 튼 후 다시 오른쪽 길로 거다보면 파스텔톤의 연두빛 건물이 보이는데 이 건물은 "돈 조반니"가 초연된 극장인 **에스타트(스타보브스케)극장**이다. "피가로의 결혼"으로 대성공을 거둔 모차르트가 다음해에 프라하 시의 의뢰를 받아 오페라 "돈 조반니"를 작곡, 10월 29일에 이 극장에서 자신이 지휘로 막을 올려 많은 갈채를 받았던 것이다. 최근에는 "아마데우스"의 무대가 된 곳이기도 하다.



첼레트나 거리의 검은 마돈나의 집

보석점이나 액세서리 및 선물 가게가 즐비하고 세련된 저택이 줄지어 있는 거리 첼레트나, 이 거리의 34번가에 검은 마돈나의 집이 있는데 1912년 프라하에서는 드물게 **큐비즘 양식**으로 지어진 집이라고 한다.



건물이 멋있길래 유명한 건물쯤 되나보다 하고 사진을 찍고 지도에서 찾아 보니 **파르지시 호텔**이다. 20세기 초에 세련된 아루누보와 네오 고딕 양식이 혼재된 외관으로 건설되었으며 레스토랑과 카페도 아름다운 아루누보 인테리어로 유명하다고 하는데 1981년에 소설의 무대가 되면서 더욱 각광을 받게 되었다고 한다. 가난한 배낭 여행자로선 내부를 구경해볼 기회조차 없었으니 눈으로 확인한 바는 없다.



파르지시호텔



무스테크 전철역



프라하의 거리에서 만난 한글 간판 "**한국관**" 어찌나 반갑던지....

어제 인형극을 보기 전에 한 번 둘러본 광장이지만 그래도 그냥 지나칠 수가 없다.

이 곳을 배경으로 사진 한 장 남기지 못한 것도 아쉽고 **성 미쿨라세 성당**의 내부도 보지 못한 상태다.
일단 용기를 내서 지나가는 관광객들에게 사진을 찍어달라 부탁하여 사진 몇장을 남긴다.



사진 찍기를 마치고 **성 미콜라세 성당**을 둘러 보기로 했다.

그런데 무심코 바라본 하늘이 어찌나 그림같이 예쁜지, 그림 같은 하늘에 취해서 잠시 내가 무엇을 하기로 했는지 잊어 버리고 말았다.

프라하의 하늘만 유난히 예쁘게 느껴지는 이유는 뭘까.

스위스나 오스트리아에서는 내내 비가 왔으니 그렇다치고 런던과 파리의 하늘이 기억나지 않는다.

런던과 파리의 하늘은 이만큼 예쁘지 않았던 것일까, 아니면 내게 하늘과 구름을 감상할 여유가 없었던 것일까.

아침! 몽마르뜨에서 본 하늘도 이랬던 것 같긴 하다.

한동안 하늘에 취해 있다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 성당 가까이 가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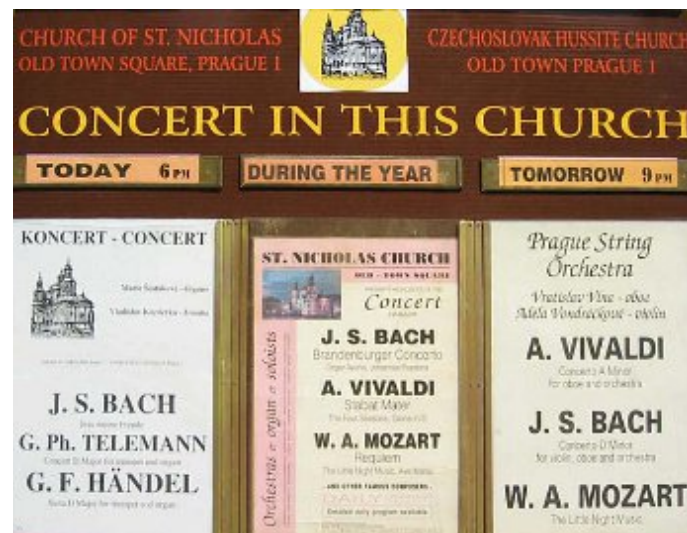


성당 앞에 안내판.

이 성당에서 하는 콘서트에 대해 안내가 되어 있다. 오늘은 6시에 연주회가 있고 바하와 헨델의 곡을 연주하는가 보다. 오스트리아는 모차르

트의 나라니까 어디를 가나 연주회가 열리고 있는게 당연하게 여겨졌지만 이 곳 프라하도 알고 보니 유럽내에 잘 알려진 음악의 도시라고 한다. 프라하는 카푸카의 도시인 줄로만 알았었는데.....

아무튼 체코가 낳은 음악가 스메타나와 드보르작이 이 곳에서 평생을 음악에 바쳤고 모차르트가 4번 방문했으며 2번째 방문 때 "돈 조반니"를 작곡 했던 곳, 그 곳이 바로 프라하인 것이다.



미쿨라세 성당의 내부

1차 세계 대전 당시, 프라하 주둔군의 거점으로 사용되면서 천장을 비롯한 벽면에 프레스코화가 그려졌는데 덕분에 지금의 화려한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고. 러시아 왕관 모양의 대형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눈길을 끈다.



유대인 지구는 옛날의 유대인 거주 지역으로 구시가 광장에서 블타바 강을 향해 북쪽으로 이어진 **파르지주스카 거리**를 포함한다. 파르지주스카 거리는 프라하에 최초로 건설된 폭넓은 가로수 길답게 멋진 가로수와 그에 어울리는 네오바로크나 아르누보의 건물들이 색다른 모습으로 늘어서 있다.



아르누보 건물이 늘어난 파르지주스카 거리





양쪽에 감각적인 가게와 카페들이 들어서 있는 파르지주스카 거리를 걷다보니 짐작했던 것과는 너무 다른 모습에 여기가 과연 유대인 지구일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지만 이 곳에 이르게 되자 비로소 유대인 지구가 맞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됐다.

파르지주스카 거리의 이 건물은 **舊.新 시나고그의 기도의 관**이다.

13세기에 지어졌으나 16세기에 증축되어서 **舊.新 시나고그**라 불리게 되었다고 한다.

유대교에서는 남녀가 따로 예배를 보는데 여성은 본당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구멍으로 엿보며 예배에 참가했는데 이 시나고그에서는 지금도 여성들이 통로에서 예배를 보고 있다고.

▼ 舊.新 시나고그



▼ 구시가 광장의 화려함과 달리 낡은 건물이 인상적인 유대인 지구의 골목길



▼ 의식의 집



"어쩌나 화약탑을 아직 안봤으니...."

일행과 카를교에서 만나기로 한 시각은 7시고 지금 시각은 3시다.

프라하성을 비롯해 보아야 할 것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데 너무 여유로운 마음으로 돌아보니 시간에 또 쫓기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화약탑을 보러 되돌아 갈 것인지 아니면 그냥 계획대로 프라하 성 쪽으로 향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지만 화약탑을 안보고 가면 후회될 것 같은 마음이 더 강해서 남은 시간 더 빨리 움직이기로 하고 화약탑 쪽으로 발 길을 돌렸다.



화약탑은 첼레트나 거리의 막다른 곳에 위치한 탑으로 11세기에 구시가의 출입문으로 지어졌으나 1757년 프라하가 러시아군에게 포위되었을 때 이 탑이 전투용 화약고로 사용되면서 화약탑이라 불리게 된 것었고 1886년에 지금의 모습으로 개축되었다고 한다. 시간을 지체할 수 없었기에 사진 한 장 찍고 서둘러 돌아섰는데 여행에서 돌아와 사진을 보다보니 화약탑을 제대로 못 본 아쉬움보다 화약탑 옆의 시민회관을 보지 않고 온 것이 더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 사진으로 볼 때 화약탑 바로 왼쪽의 부분만 보이는 건물이 시민회관이다.

시민회관은 프라하에서 가장 눈에 띄는 아르누보 양식의 건축물 중 하나로 '프라하의 봄' 음악 축제의 개막과 폐막공연장으로 유명한 스케

타나 홀이 있다고 한다.



화약탑을 보았으니 서둘러 **프라하 성**으로 이동해야만 한다.

화약탑에서 가장 가까운 지하철 역은 무스테크 역. 무스테크 역에서 A선을 타고 말로스트란스카 역에서 내렸다.

시간이 있다면 네루도바 거리를 구경하며 성의 정문 쪽으로 걸어 올라가도 되겠지만 솔직히 다리도 아프도 게다가 시간도 부족해서 트램을 타고 가기로 했다. 말로스트란스카 트램 역에서 22번 트램을 타고 푸라주스키 흐라트 역에 내렸다.

곧바로 프라하 성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왕실 정원**과 **벨베데르 궁**을 먼저 둘러 보기로 했다.



왕궁 정원

왕실 정원은 1535년 페르디난트 1세를 위해 만들어진 곳으로 프라하에서 가장 잘 보존된 정원이라고 한다. 시간적인 여유만 있다면 이곳에서 잠시 피곤한 다리를 쉬어가는 곳도 좋을 것 같다. 정원 한쪽에는 눈길을 끄는 건물이 한채 있는데 르네상스 양식의 독특한 즈그라피토 공법을 이용하여 지었다고.



즈그라피토 공법으로 지은 건물

즈그라피토 공법이란

서로 색깔이 다른 회반죽을 이중으로 바른 후 디자인에 따라 윗부분을 긁어냄으로써 그림을 그리고 장식을 하는 기법이다.

밝은 회벽과 어두운 회벽이 대조를 이루면서 멀리서 보면 착시 현상으로 인해 입체적으로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왕실 정원 끝자락에 자리한 **벨베데르**는 16세기 중반에 페르디난트 1세가 사랑하는 앤을 위해 지은 건물로 합스부르크 왕가의 통치자들이 여름궁전으로 사용하던 곳이다.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보수공사 중이라 제대로 볼 수가 없었다. 아쉽지만 다음 목적지로 향하자.



벨베데르 궁 앞의 '노래하는 분수'

청동 그릇에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가 마치 노랫소리처럼 들린다 하여 붙여진 이름.
하지만 그 소리를 들으려면 분수대에 귀를 바짝 들이대야 한단다. 들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프라하 성을 향하여
멀리 성 비투스 성당이 보인다.



프라하 성의 복문

프라하 성의 북문으로 들어서니 앞쪽으로는 **코르 분수**와 **성 십자가 예배당**이 보이고 왼쪽으로는 **성 비투스 성당**이 보인다.

성 비투스 성당을 빨리 보고픈 마음도 있었지만 아무래도 성의 정문을 보고와야 할 것 같아 정문 쪽으로 향한다.



▲
흐라트차니 광장에서 본 프라하 성 정문

정문 기둥 위에는 '**거인들의 싸움**'을 묘사한 독특한 동상이 서 있다. 위에서 내리치는 사람은 오스트리아인이고 맞는 사람은 체코인이라고 한다. 합스부르크 통치 시절, 체코가 오스트리아의 속국이었음을 암시하는 것이라나.



<http://blog.daum.net/mr5864>

문 양쪽에는 **군위병**이 서 있는데 여행객들이 수시로 그들 옆에 서서 사진을 찍는다.

그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마치 동상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는 것처럼.....

하루에도 수십 컷의 사진을 찍히고 수많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는 그들은 어떤 기분일까.

그 마음을 헤아릴 순 없지만 나는 왠지 그들에게 연민이 느껴진다.



<http://blog.daum.net/mr5864>

프라하 성 정문 안쪽에는 마티아스 문이 있고 이 곳을 지나면 제2정원과 분수를 만날 수 있다.



<http://blog.daum.net/mr5864>

마티아스 문을 지나면 프라하 성의 제2 앞마당이 나오는데 이 앞마당의 가운데에는 바로크 스타일의 아담한 분수가 서 있고 그 뒤로는 성 십자가 예배당이 있다. 분수를 자세히 살펴보면 헤라클레스가 분수 맨 아래를 받치고 있고, 그 위에는 바다의 신(바다가 없는 체코인들이 물을 그리워 하는 마음으로 세웠다고 함)이, 또 그 위에는 꼬리가 두 개 달린 사자 (체코를 상징)가 새겨져 있으며 맨 위에는 동그란 구 (지구를 상징)가 있다. 다시 말해 결국 이것은 체코가 지구를 받들고 있다는 의미의 분수대인 것.



<http://blog.daum.net/mr5864>



<http://blog.daum.net/mr58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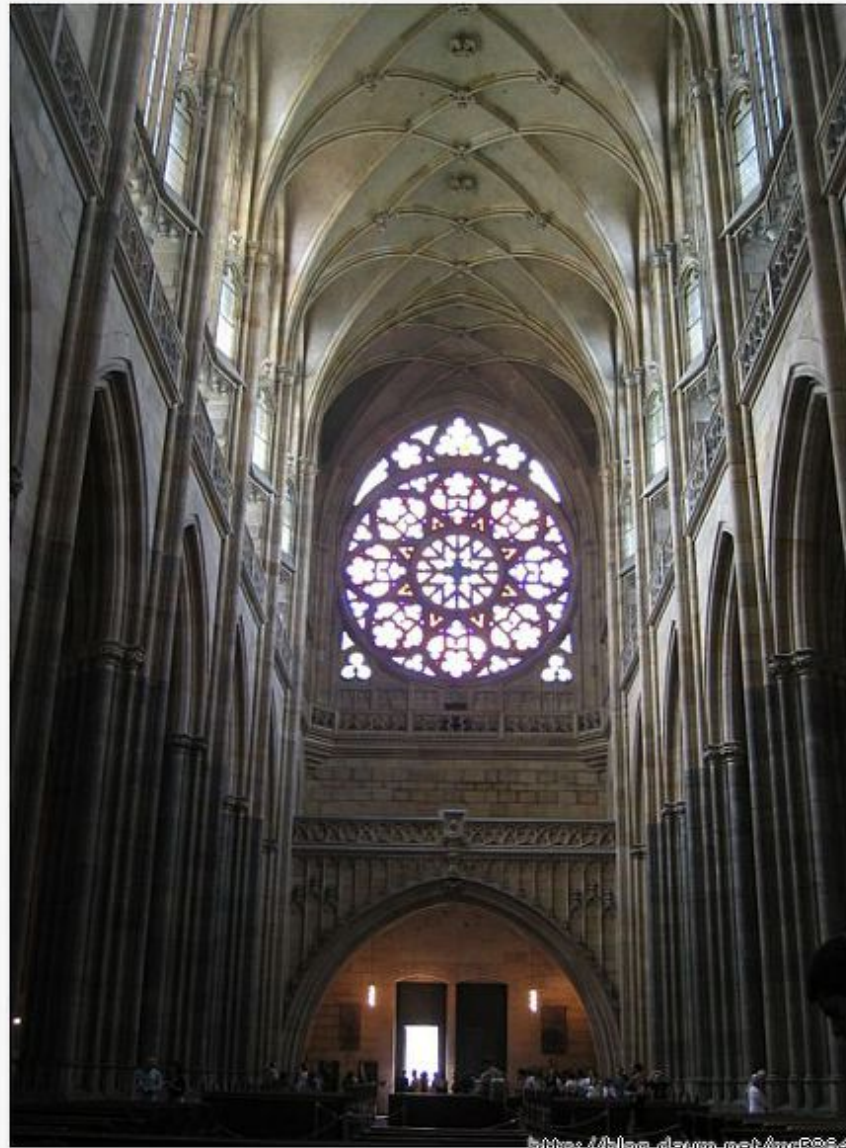
925년부터 1929년까지 천년에 걸쳐 완성된 프라하 고딕 양식의 대표적인 건축물인 **성 비투스 대성당**은 일단 어마어마한 규모 때문에 놀라지 않을 수 없으며 성당 안에 들어서면 높은 천장과 대형 아치형 창문마다 장식된 화려한 스테인드 글라스의 아름다움 때문에 또 한번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성당 안은 압도될만한 넓이로 높은 볼트 천장을 장식한 리브가 아름답다.
파를레르시는 50년의 세월동안 이 견고한 아치를 만들었다고 하며 14세기 프라하의 높은 건축 기술을 짐작케 한다.



정면 입구 문 위에는 1927년에 완성한 장미창이 있는데 사용된 색유리는 무려 2만6740장이나 된다고.



<http://blog.daum.net/mr9884>



20세기 초에 건설된 서쪽 측랑에는 좌우로 6채의 예배당이 있는데
왼쪽 3채 가운데 가장 뒤쪽 바츨라프 예배당 창에 그려진 스테인드글라스 '성 그리스도와 성 메토디우스'는
무해(위사)가 그린 걸작이다.



<http://blog.daum.net/mr9884>



<http://blog.daum.net/mr9884>



<http://blog.daum.net/mr5884>



<http://blog.daum.net/mr5884>

이르지 교회는 920년에 블라디슬라프 1세가 목조로 된 소박한 교회를 지은 것에서 비롯되었는데 오늘날의 교회는 1142년의 대화재 후 재건된, 프라하에서 가장 잘 보존된 로마네스크 건축물이라고 한다. 두 개의 흰 탑은 정면에서 보면 굽기가 다른데 오른쪽의 두꺼운 탑은 아담, 가는 쪽은 이브라고 불린다. 내부는 현재 미술관으로 쓰이고 있다.



<http://blog.daum.net/mr5864>



성 이르지 교회에서 콘서트가 있나보다.

이 곳이 아니라도 거리 곳곳에서 각종 콘서트 전단지를 받은 했었다.

THE PRAGUE CASTLE - ST. GEORGE'S BASILICA
Prague Castle, Prague 1

Castle GALA CONCERT

Music of Prague Castle

PRAGUE ROYAL ORCHESTRA
Soloists: J. Tomáček, R. Patočka, O. Skopový

PROGRAMME

J. PACHELBEL
(1633 - 1706)
CANON IN D

W. A. MOZART
(1756 - 1791)
DIVERTIMENTO D MAJOR KV 136
(Vienna - Salzburg - Prague)

A. VIVALDI
(1678 - 1741)
FOUR SEASONS
(Spring - Summer - Autumn - Winter)

**ST. GEORGE'S BASILICA
PRAGUE CASTLE**

CONCERT DATES August 2006
3rd 10th 17th 24th 31st
Concert begins at 17.30 (5.30 P.M.)

TICKET SALES OFFICE, RESERVATIONS AND INFORMATION
AGENCY ARTISTIC INTERNATIONAL S. R. O.
TEL: PRAHA 224 728 706; 224 723 696 | E-MAIL: AAI-CONCERTS@AAI-CONCERTS.CZ

CASTLE GALA CONCERT

Music of Prague Castle

PRAGUE ROYAL ORCHESTRA (12 MEMBERS)

The Prague Royal Orchestra was founded in cooperation with the National Theatre and the State Opera House and is formed of highly experienced professional musicians from the National Theatre. The base of the orchestra is the Czech Radio, the Prague Symphony Orchestra and the Czech Philharmonic Orchestra. From the dawn of its existence it has been an agent of Czech music and international musical culture under the baton of the conductor, Mr. Jiří Bělohradský. It has performed numerous successful concerts in theatres and concert halls as well as in most of European countries, including Germany, Austria, Switzerland, Denmark, Belgium, France and Spain.

R. PATOČKA, VIOLIN SOLOIST

He was born in 1967 in Olomouc. He has been playing the violin since the age of five, and since 1995 he has been a regular participant in the summer courses in Salzburg. Since 1995, he has studied with prof. Václav Vlach at the Prague Conservatory. During his studies he was awarded a scholarship in connection with the city and university and eventually he appeared as a soloist.

TOMÁŠ VODŇANSKÝ, PRAGUE ROYAL ORCHESTRA LEADER

He was born on the 27th March, 1975, in Prague. He graduated from the Conservatory in 1993 where he studied with Prof. Jindřich. After his studies he became soloist - one of the best Czech violin players. Since 1998, during his career he collaborated with various orchestras and symphonies including, for example, Philharmonic Orchestra, State.

TICKET SALES OFFICES
RESERVATIONS INFORMATION

AGENCY ARTISTIC INTERNATIONAL S. R. O.
TEL: PRAHA 224 728 706; 224 723 696
WWW.AAI-CONCERTS.CZ
AAI-CONCERTS@AAI-CONCERTS.CZ

성 이르지 교회 오른쪽 옆 골목을 따라 들어가면 왼쪽으로 **황금소로**가 나온다.

프라하에서 가장 예쁘고 가장 작다는 거리 **황금소로**. 카프카의 작업실이 있어 더욱 유명한 곳이다.

파스텔톤의 작고 양중맞은 작은 집들, 정말 사람들이 살던 집들이 맞을까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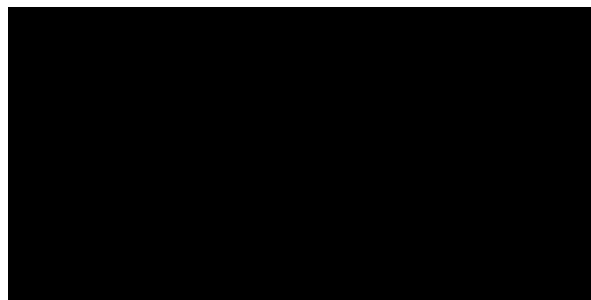
마치 동화 속에 등장하는 난장이들의 집을 세트로 꾸며 놓은 세트장 같기도 하다.

프라하성에서 제일 보고 싶던 곳....

그 작은 골목을 여유있게 걸어보고 싶었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 이리 이리 저리 밀리다 보니 의지대로 서있기조차 힘들다.

황금소로는 16세기 후반, 당시 성을 지키던 수비대원들의 숙소로 사용되다가, 17세기에 연금술사들과 금 세공인들이 이주해오면서 '**황금소로**'라는 애칭이 붙게 되었다고 한다.

현재 **황금소로**에 자리한 집들은 기념품 판매점으로 활용되고 있다.



프라하성 관람 티켓

관람 장소에 따라 요금이 다른데 나는 황금 소로와 달리보르 탑을 관람할 수 있는 C티켓을 구입했다.(어른 50코루나) 여행객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티켓은 성 비트 성당, 구왕궁, 황금소로, 달리보르탑을 관람할 수 있는 B티켓이다.(220코루나)



황금소로에 오면 대개는 나처럼 2층이 있다는 사실을 몰라 1층만 보고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미리 알았더라면 2층도 꼭 챙겨 보는 건데...

2층을 보려면 관람티켓을 보여주는 철문을 들어서자마자 정면에서 살짝 빗겨난 왼쪽에 2층으로 올라가는 작은 입구가 있으니 그리로 올라가면 된다. 좁은 계단을 따라 2층으로 올라가면 다닥다닥 붙어 있는 집을 연결한 통로가 복도처럼 길게 뚫려 있는데 좁은 통로에 희미한 전등불만 켜져 있어 마치 다락방 같은 느낌 이란다. 2층의 오른쪽에는 수십종의 갑옷과 투구들이 전시되어 있고 왼쪽에는 고문실과 무기가 전시되어 있으며 복도 끝에는 활총을 쏘아보는 체험장이 있다고.

2층을 돌아본 후 1층의 집들을 보는 것이 편리하다니 놓치지 말고 꼭들 보시길....



22번지 카프카의 집에서는 카프카의 책들과 엽서를 판매한다.



19번지 집은 하벨 대통령의 전부인이 세운 '올가재단'이 운영하는 곳으로 불우 이웃 돕기 차원에서 만든 선물 가게이다.



황금소로의 기념품 판매점

보헤미안, 크리스털, 목각제품, 시계, 마리오네트 인형, 옷, 액세서리, 악기, 액자, 인테리어 장식품, 향비누 등 집마다 각기 다른 기념품을 판매하고 있다.

황금 소로 출구 왼편에는 원추형으로 생긴 지붕 모양을 한 탑이 있는데 15세기에 만들어져 감옥으로 이용되던 곳으로 첫 수감자가 청년 기사였던 달리보르였기에 그의 이름을 따 **달리보르 탑**이란 이름이 붙여졌다고 한다. 달리보르는 농노제가 시행될 당시 한 귀족층의 모진 학대에 시달리다 못해 탈출해 도망가던 농노를 숨겨준 죄로 종신형을 받고 이 곳에 수감되었다고.

달리보르 탑은 빠져나갈 구멍이 하나도 없어 한번 들어가면 다시는 나오지 못하는 곳으로도 유명하단다.

전설에 의하면 달리보르는 감옥에 있는 동안 밤마다 바이올린 연주를 했는데 그 소리가 너무 아름답고 애달퍼 많은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들으려 탑 주위를 맴돌았고 간수들 몰래 음식을 줄에 매달아 창문을 통해 내려 보내주기도 했다는데 그러다가 결국은 처형되고 말았다고. 나중에 스메타나는 그를 제재로 오페라 <달리보르>를 작곡했고 지금까지 전해져 오고 있다.



<http://blog.daum.net/mr5864>



달리보르 탑 앞에 있는 이 조형물의 의미....



▲
달리보르 탑의 지하로 내려 가는 계단(?)



▲
아주 깊은 우물처럼 파여 있는 지하 토굴에 갇히면 대부분 굶어 죽거나 절망에 빠져 자살하고마는 죽음의 장소나 다른 없는 곳



달리보르 탑을 보고 나면 프라하 성의 동문을 통해 나오게 된다.

프라하 성의 동문을 빠져나오면 길고 가파른 계단길과 시가지가 한 눈에 내려다 보인다.

계단을 따라 내려가면 **말로스트란스카 광장**에 닿게 되는데 내려가는 계단길을 구경하는 재미 또한 놓칠 수 없는 재미거리 중에 하나이다.

예쁜 기념품과 엽서들, 그리고 자신이 만들었을 것 같은 수공예품을 판매하는 젊은 예술가들, 연주를 들려 주는 거리의 악사들.....

예쁜 물건들을 정신없이 구경하다 보니 사진 찍는 걸 잊어버려서 정작 계단길 사진은 한장도 없다.



<http://blog.daum.net/mr5864>



<http://blog.daum.net/mr5864>



<http://blog.daum.net/mr5864>



<http://blog.daum.net/mr5864>

말라스트라나 광장에서 프라하성 앞 **호라드차니** 광장으로 이어지는 언덕길을 **네루도바 거리**라 하는데 이 길을 배경으로 많은 글을 썼던 얀 네루다의 이름에서 따온 거라고 한다. 이 곳은 건물 출입문마다 독특한 문양이 새겨진 장식물이 붙어 있는 것이 특징인데 그것은 주소가 생기기 전 문패 역할을 하던 문장이라고.



말 라스트라나 광장 앞에서 23번 트램을 타고 순간 고민에 빠진다.

트램을 타고 레기교를 건너 다음 내려 국민 극장을 보고 내가 가진 휴대지도에는 없지만 언젠가 누군가의 블로그를 통해 본적이 있는 댄싱하우스를 찾아볼 것인가, 아니면 다음 다음 정거장에 내려 페트르진 공원을 구경하고 레기교를 건널 것인가...

그런데 그 순간 불현듯 떠오른 사실이 있었으니 내가 가지고 있는 1일 승차권 시간이 이미 초과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

어제 1일권 티켓을 구입할 때가 3시쯤이었는데 지금은 이미 5시가 다 된 상태....

트램 기사 아저씨가 갑자기 트램을 멈추고 티켓을 확인할 확률은 지극히 낮아보이지만 그래도 누가 알겠는가...사람의 일인 것을.

걸리면 말도 안통하는 상태에서 도무지 해결할 방도가 없으니 들리기 전에 무조건 다음 역에서 내리는 게 낫겠다 싶은 생각이 든다.

그래서 일단 내리긴 내렸는데



페트르진 공원을 보니 굳이 들어가 봐야겠다 싶을만큼 볼 것이 있어 보이는 것도 아니고 약속 시간까지 두 시간 밖에 안남았는데 댄싱하우스를 빨리 찾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알 수 없어 사진 한 장 찍고 망설임 없이 돌아서 버렸는데 지금 그 일이 이렇게 후회될 줄 누가 알았을까. 페트르진 공원 안에 페트르진 전망탑이 있다는 사실을 그 땐 왜 미처 몰랐던건지....

프라하 시내를 한 눈에 바라보기에 가장 좋은 전망탑이라는데, 게다가 이 전망탑은 '파리의 상징' 에펠탑을 5분의 1로 축소한 모양의 탑이라는데....

에펠탑을 제대로 못봤으면 이거라도 봐야 했을 거 아냐. 난 정말 에펠탑하곤 인연이 아닌가보다..흑흑



페트르진 공원 - 저 계단을 올라갔으면.....



지붕 위로 난 많은 창문들이 독특해 보이는 집

페트르진 공원을 뒤로 하고 걷다보니 레기교가 보인다. 다리를 건너기 직전 다리 위에 레기교 다리 기둥처럼 보이는 작은 가게가 있어 들여다 봤다. 체코의 빼놓을 수 없는 기념품 **마리오네트 인형**이 잔뜩 걸려 있다. 지금까지 마리오네트 인형을 곳곳에서 많이 봐왔지만 이 곳의 인형이 좀더 고급스러운게 많은 듯 하다. 체코의 물가가 서유럽 나라들의 물가보다 훨씬 산게 사실이지만 마리오네트 인형은 그래도 돈 없는 여행객에겐 좀 부담이 되는 가격이라 구경만하고 몇번을 망설이다 끝내 사지 못하고 지나쳐 버리고 말았다.



레기교의 마리오네트 인형 파는 상점



레기교를 건너는 사람들과 레기교의 트램길이 보인다.



레기교에서 본 카를교와 주변 건물들



레기교의 가운데로는 트램이 다니고 양쪽으로는 자동차들이 다닌다.
앞에 보이는 건물은 **국민극장**으로 어제밤에 보았던 고래가 왕관을 쓴 모습을 하고 있던 건물이다.



국민극장

'체코어에 의한 체코인을 위한무대를'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1881년에 완성한 극장. 오페라를 비롯해 연극과 발레 등 체코의 국내 작품을 중심으로 많은 프로그램들이 상연되고 있다고.



레기교에서 바라본 프라하성과 카를교



레기교에서 프라하성을 배경으로 한 컷

레기교를 건너 후 댄싱하우스를 찾아 오른쪽으로 Turn, 걷고 또 걸었다.

조금만 걸으면 될 줄 알았는데 도무지 걸어도 걸어도 댄싱하우스라는 건물은 보이질 않는다.

되돌아 올 때보니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었는데 거리가 휘어진 모양으로 되어 있어 찾고자 하는 건물이 보이질 않으니 굉장히 오래 걸은 듯한 착각에 빠질 수 밖에 없었다. 게다가 오늘이 여행의 마지막날 아닌가.

그동안 걷고 또 걷고 한 피로가 다리에 발에 누적될대로 누적된 상태. 발엔 어느새 물집도 잡혀있는 것 같다.

하지만 다른 일행들은 보지 못할 그 곳을 나는 볼 수 있다고 생각하니 새로운 힘이 생기는 거 같다.

하긴 그들에겐 그 건물이 그다지 의미있는 건물도 아닐텐데 왜 이리 좋아하고 있는건지 원... ㅎㅎ



▲
예쁜 건물들이 늘어서 있는 길을 걷는다.



블타바 강 위에 떠 있는 작은 섬(?)에는 어린이들의 놀이터가 보인다.
공원인가 보다.

건다보니 아무 의미도 부여되지 않은 건물들조차도 제각각 어찌나 예쁘던지 건물 하나하나를 일일이 카메라에 담았다.

집에 와 사진을 보고 있자니 참으로 실망스런 사진들이다.

건물 하나하나는 예쁜데 건물 하나하나를 찍은 사진들은 공통적으로 하나도 예쁘질 않다.

그들은 같이 어우러져 있었기에 더욱 예뻐던 것이다.



거리에 늘어서 있는 건물 하나하나가 참 예뻐는데....

오른쪽 왼쪽 열심히 사진을 찍으며 걷다보니 프라하에서 지금까지 본 건물들의 모습과는 확연히 다른 반가운 건물 하나가 눈 앞에 드디어 나타났다.

"저거였구나."

블로그에서 본 사진만은 못해도(그 사진은 사진 작가가 찍은 사진이었으므로 훨씬 멋져 보였음) 내가 보고자 했던 건물을 찾아 보았다는 감격이 확 밀려오는 순간이다.

그만큼 내게는 의미있는 건축물이었으므로 제 아무리 시간에 쫓겨도 그 건축물만은 시간의 여유를 두고 찬찬히 뜯어보고 또 뜯어 보았다. 그리고 한참을 망설임 끝에 지나가는 행인 한사람을 붙들고 사진을 찍어달라 부탁했다. 모르는 사람 앞에서 카메라 모델이 된다는 건 참으로 어색하여 온갖 근육들이 다 뻘뻘하게 굳는 느낌이다.



댄싱하우스

한 쪽에는 위와 아래로 퍼지는 형태의 유리 타워가 있고, 그 바로 옆에는 독특한 구조물(금속으로 된 꼬이고 뚫린 열린 구 형태로, 밤이 되면 그 안에서 조명이 켜짐)이 지붕 위를 장식하고 있는 이 건물은 댄싱하우스(댄싱빌딩)이다. 표면이 유리로 된 주 건축물은 물결치는 모습을 하고 있으며, 콘크리트 건축물의 표면은 불규칙적으로 생긴 창문으로 덮여 있다.



▲
 댄싱하우스 앞에서 기념 사진 한장 남기긴 했는데
 길거리에서 사진 찍히느라 포즈를 취하고 있기가 참으로 민망했다.
 뒤에 지나가는 여자는 왜 저렇게 멋진거야. 흥!



댄싱하우스를 보고 되돌아 오는 길에 찍어 본 국민극장



레기교의 모습, 다리 위에 기둥처럼 서있는 건물에서 기념품을 판다.
레기교 뒤로 프라하 성이 작게 보인다.



레기교에서 카를교 가는 길에 본 탑. 무슨 탑인지는 모르겠다.
다리가 너무 아파 길을 건너기도 싫었고 가본들 알 수도 없을 것 같았기에 그냥 지나쳐 버렸다.



드디어 카를교 가까이에 다다랐다.
저 카를교를 건너기만 하면 된다. 시간은 늦지 않을 것 같다.



카를교 근처의 건물



스메타나 박물관



블타바강의 13개 다리 중 가장 아름답고 유명한 다리, **카를교**.

프라하의 관광 엽서에도 빼놓지 않고 등장하는 프라하의 상징적인 존재로 <007 시리즈>를 비롯해 각종 영화나 광고의 촬영지로도 유명하다.

우리 나라에선 <프라하의 연인> 촬영지로 이미 알려진 바 있고 며칠 전에도 **한가인**이 이 곳에서 광고를 촬영하는 장면을 TV 연예 프로그램에서 방영하는 것을 보았다.

프라하의 인기스타답게 이 곳은 항상 사람들로 붐빈다.

내가 이 곳을 찾았을 때 역시 북적이는 사람들 때문에 레기교를 건널 때와는 전혀 다른 느낌, 도무지 강위에 있는 다리를 건너고 있다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았었다.

길이 520m의 보행자 전용 다리, 카를교.

520m면 5분내지 길어도 10분이면 충분히 건널 수 있는 길이지만 볼거리가 무궁무진하게 넘쳐나는 이 곳을 10분만에 건너는 사람은 아마 단 한사람도 없을 것이라 나는 단언한다.

낮에는 노점상이 펼쳐놓은 아기자기하고 예쁜 물건들과 거리의 화가들이 그리는 캐리커처나 초상화에서 눈을 뗄 수가 없고, 해가 지면 거리의 악사와 거리의 가수들의 공연 때문에 자리를 뜰 수가 없다. 그러므로 이 다리를 10분 안에 건넌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할 수 있고 그 무궁무진한 볼거리를 다 보려면 이 다리를 단 한번만 건너서도 안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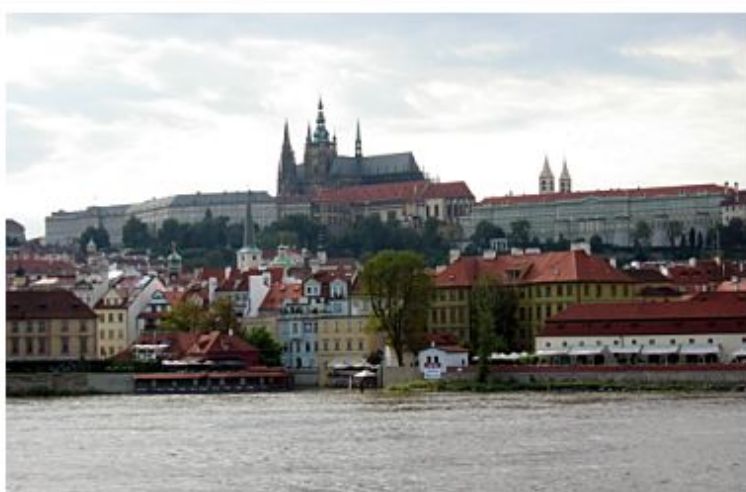
<http://blog.daum.net/mr5864>

▲
성 프란시스 교회



<http://blog.daum.net/mr5864>

▲
카를교 교탑



<http://blog.daum.net/mr5864>

▲
카를교에서 바라본 프라하 성



<http://blog.daum.net/mr5864>



<http://blog.daum.net/mr5864>



<http://blog.daum.net/mr5864>



카를교의 활기찬 모습



<http://blog.daum.net/mr5864>



카를교에서 소지구(말라스트라나) 쪽을 바라본 모습



<http://blog.daum.net/mr5864>



캄파를 가르는 수로



<http://blog.daum.net/mr5864>



프라하의 베니스, 캄파섬

구시가 관장에서 카를교를 건너 다리 끝부분에 있는 왼쪽 돌계단을 통해 밑으로 내려오면

'악마의 시내'라 불리는 블트바 강의 지류로 형성된 캄파섬이 자리하고 있다.

카를교의 교각 밑에 예쁜 건물들이 늘어서 있어서 '프라하의 베니스'라 부르기도 한다고.

중세 시절에는 세탁장으로 사용된 곳이나 현재는 강변을 따라 분위기 있는 레스토랑이 모여 있고

사람들이 보트를 탈 수 있는 곳으로 바뀌었다.



카를교의 난간에는 제각기 성서적 의미를 담고 있는 30개의 조각상이 늘어서 있다.

모두 체코 출신 조각들의 작품으로 17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중반까지 약 250년에 걸쳐 제작된 것이라고 한다.





'체코의 수호 성자'로 알려진 얀 네모무츠키 신부의 동상

카를교의 석상 중 여행객에게 가장 인기를 모으는 석상으로

조각상 밑에 있는 동판에 손을 대고 빌면 이루어진다는 얘기가 있어 여행객들의 줄이 끊이질 않는다.

오른쪽 동판에 손을 대고 빌면 자신의 소원이 왼쪽 동판은 자신이 기르는 개(犬)의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어찌나 여행객들의 손길을 탓는지 손이 닿은 부분이 반짝 반짝 빛나고 있다.



성모 마리아와 성 베르나르두스 상



▲
17세기 예수 수난 십자가



▲
성 이브 상



▲
성 바르바라, 성 마르가리타, 성 엘리자베트



▲
성 노베르트, 바츨라프, 지기스문트 상

파리의 몽마르트에서 이미 초상화를 그린 상태라 이 곳에서는 그냥 구경만 했는데 보면 볼수록 이 곳에서 그릴 걸 그렸다는 후회가 밀려왔다. 하나 같이 실물들과 흡사하게 그린 것도 맘에 들고 가격도 파리에서보다 저렴하고.....





카를교에서는 곳곳에서 펼쳐지는 **거리의 악사**들의 공연들도 만날 수 있다. 클래식한 음악이나 재즈 선율이 들리는가 하면 한쪽에서는 경쾌

한 음악 소리도 들린다. 연주나 노래가 끝나면 사람들은 박수를 쳐주고 그 중 몇몇은 감사의 표시로 동전을 넣어주기도 한다. 유럽을 여행하는 동안 늘 궁금했었다.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거리에서 연주를 하는 것인지.....

알고보니 거리악사라고 해서 아무나 판을 펼쳐놓고 연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란다.

거리에서 음악을 연주하려면 음악성을 인정받아 당국의 허가증을 받아야 한다고.



<http://blog.daum.net/mr5864>



<http://blog.daum.net/mr5864>

카를교에서 거리의 악사들의 연주를 감상하는 것 못지않게 재미있는 것이 있으니 젊은 작가들의 각종 그림과 공예품을 보는 것.

예쁘고 아기자기한 물건들은 대부분 자신이 만든 수공예품들이나 것 같다.

특히 악세사리들은 디자인이 독특해서 하나쯤 사고 싶은 충동이 일기도 했으나 14K 아니라 눈요기로 만족해야 했다.

하긴 밥도 못사먹을만큼의 궁상을 달고 다닌 날들이었는데 14K가 있었던들 무슨 소용이었으리.

사진을 못 찍게 하는 경우가 많아 사진이 많지 않다.



▲
도자기 인형들. 모두 천사인가 보다.



<http://blog.daum.net/mr5864>



카를교의 아름다운 풍경을 담은 그림과 사진은 3백~5백 코루나 정도에 살 수 있다.



아크릴판 같은 것에 그린 그림 액자.
액자를 파는 남자가 멋져 보여서 한 번 더 보았다는 사실. ㅎㅎ



▲
독특한 디자인의 액세서리들



▲
벽걸이 장식인가...?? 그리고 저 아래 있는 것은... 허가증? 아니면.....

이번 여행에서의 마지막 밤.

밤이 꽤 늦었지만 누구 하나 선뜻 호텔로 돌아갈 맘이 생기지 않는다.

차비를 제외한 나머지 돈을 동전까지 톡톡 털어 맥주 한 잔을 하기로 했다.

겨우 한 잔일 뿐인데 꽤 취기가 오르는 것 같다.

알콜에 취하고 분위기에 취하고....밤은 그렇게 깊어만 갔고,

세월이 지난 뒤 가끔씩 꺼내 볼 수 있는 추억거리 하나를 만들 수 있었다.







i PDF로 발행할 수 없는 형식입니다.

2006.12.29

긴 기다림 끝에 드디어 출발이다.

아침부터 서두른 탓에 인솔자와 만나기로 한 시각에는 늦지 않게 도착했으나 어디서 만나기로 했는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

서글프게도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충기가 자꾸 흐려지나 보다.

친절한 다른 여행사 직원의 도움을 받아 인솔자를 찾고보니 3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다.

'이런 이런...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이 이런 때 쓰는 말 맞는 거지??'

아무튼 무사히 인솔자도 만나고 이번 여행의 룸메이트도 소개 받았다.

까다롭거나 차가운 사람일까봐 꽤나 걱정을 했었는데 그렇지 않아 정말 다행이다.

출국 수속을 밟고 룸메이트와 이런 저런 얘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덧 비행기에 탑승할 시각이다.



우리가 탈 비행기, 이번엔 독일 항공을 이용한다.



비행기를 타고 있는 중,
프랑크푸르트까지는 이 비행기에 몸을 맡겨야 한다.



행복을 담고 있는 나의 눈 - 많은 것을 볼 수 있도록 잘 부탁해 나의 눈아~



이륙할 준비를 마친 비행기 - 안전하게 데려다 다오.



드디어 이륙했다.

땅이 시야에서 점점 멀어져 간다.

잠시 후면 한국 땅을 벗어날 것이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아무 일 없어야 한다.

나도 잘 다녀 올게.



구름 위를 날고 있다.
눈이 시리도록 강한 햇살만이...





이제 시작이건만 벌써부터 한국 것이 반갑다.
음료는 식혜로,
점심 기내식은 비빔밥으로.



기내식을 먹고 얼마를 날다보니 주위는 어느새 두꺼운 커튼을 드리우 듯 어둠에 휩싸인다.
여름에는 도착지인 런던에 내릴 때까지도 해가 완전히 지지 않았었는데,
여름과 겨울의 차이가 생각보다도 훨씬 심하다.
해가 이리도 빨리지면 시간의 제약을 더 많이 받을텐데...
걱정이다.



▲
저녁 기내식은 콩나물을 곁들인 아구요리와 밥.
비빔밥보다는 덜 맛있게 느껴지네.





인천공항을 출발한지 12시간만에 경유지인 프랑크푸르트에 도착했다.
여름엔 암스텔담까지 10시간 걸렸었는데 기류 때문인가...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렸다.



독일 땅을 밟은 기념으로 기념 사진도 찍고 ...



공항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일하는 모습도 관찰하고...



화장을 고치는 여인,
나처럼 기념 사진을 남기는 연인 내지는 부부,
스넥코너에서 요기를 하는 또는 무료함을 달래는 사람들...
사람들을 관찰하고 있자니 그것 또한 꽤나 재미있다.



어느새 시간이 되어 다시 프랑크푸르트에서 포르투갈의 리스본으로 향하는 비행기를 탔다.



이번에도 기내식이 나왔으나 거의 먹을 수가 없어 그대로 남겼다.
치즈의 짜고 느끼한 맛을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



리스본 공항에 착륙 중



프랑크푸르트공항에서 3시간 정도를 날아 목적지인 리스본공항에 도착했다.



리스본 공항의 모습

크리스마스가 지났음에도 크리스마스 장식이 그대로 남아 있다.
 알고 보니 포르투갈이나 스페인은 연초까지 거리마다 집집마다 크리스마스 장식이 넘쳐나는 것 같다.
 포르투갈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스페인은 1월 6일까지 크리스마스 장식을 한다고...



12시에 인천 공항에서 일행들을 만난 이후로 거의 21시간만에 우리가 묵을 호텔에 도착했다.
 (비행기 탄 시간만해도 15시간이다.)

와~ 힘든 하루였다.

이 호텔은 리스본 시내에서 떨어져 있어 한적한 편이며 호텔 앞으로는 대서양이 보인다.



지난 여행 때도 첫밤을 한숨도 못자고 꼬박 세웠는데 이번 여행에서도 마찬가지다.
누워서 텅쿨대다가 너무 지루해서 발코니에 나와 밤경치도 감상하고 사진도 찍으며 그렇게 밤을 보냈다.

Hotel Praia Mar 클릭  http://www.almeidahotels.com/nm_quemsomos.php?id=13&menu1=4

2006.12.30

이리 뒤척이고 저리 뒤척이기를 몇번쯤 반복했을까 서서히 날이 밝아오기 시작한다.

불면의 밤을 보내고 맞는 한줄기 햇살은 구세주와도 같이 나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미는 것 같다.

부지런히 아침 단장을 마치고 8층에 있는 식당으로 올라 갔다.

지난 배낭 여행 때는 런던과 프라하 두군데서 호텔에 머물렀었는데 우리가 머문 숙박시설 중 제일 비싼 돈을 주고 머물렀던 런던의 호텔은 최악이었고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머물렀던 프라하의 호텔은 굿~이었던 기억이 있다.

'제발 프라하만 갈아라'

주문을 외다시피 하고 올라가 보니 음식은 프라하의 호텔에서 먹었던 음식처럼 먹을만한 것들이 많았고 식당의 전망은 프라하의 호텔과는 비교도 안되게 좋았다.

왜냐구?

글쎄 **대서양**을 내다보며 식사를 하는 기분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

솔직히 먼저 온 사람들 때문에 식사를 하는 동안은 창가 자리를 차지하지 못했지만 식사를 마치고 창가에서 대서양을 한동안 바라보고 있는데 그 기분, 내 글재주로는 표현이 잘 안된다.

오래 오래 그렇게 그 자리에 그대로 그냥 앉아 마냥 대서양만을 바라본다 해도 지루하지 않을 것 같았는데 오늘의 일정상 그렇게 할 순 없다.



방으로 돌아와 이를 닦고 차를 타기 위해 밖으로 나가기전 한 번 더 발코니로 밖을 내다본다.
식당에서 내려다 본 풍경만은 못해도 바다가 보이니 그래도 좋다.



호텔에서 서둘러 나와 차를 탔다.

차를 타고 밖을 내다 보니 버스기사 조제(선글라스를 쓰고 있음)와 톨망 톨망 똑소리 나게 말하는 현지 가이드와 페나성에서 함께 할 포르투갈인 가이드가 둥글게 모여 무언가 열심히 대화를 나누고 있다. 글썄 오늘의 일정에 대해 상의를 하고 있는건가???

아~ 이제 곧 출발이다.

여행 상품을 고를 때 페나성이 보고 싶어 신트라를 둘러보는 코스가 있는 상품을 고르고 골라서 선택했는데 제발 나의 이런 기대가 실망으로 끝나지 않길 바란다.



2006.12.30

Rani in Sintra

-신트라 왕궁-

우리 일행의 포르투갈 첫번째 여행지는 **신트라**.

영국의 낭만파 시인 바이런이 '**위대한 에덴**(the glorious Eden)'이라 표현했다는 것만으로도 짐작할 수 있을만큼 아름다움을 간직한 포르투갈의 옛도시이다.

우리는 버스로 이동했기에 마을을 천천히 거닐며 그 하나 하나의 아름다움을 마음 속에 깊이 새길 수는 없었지만 창밖으로 훑히 지나치며 잠깐 잠깐 보여진 마을의 모습 속에서도 그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었다.

차를 타고 이동하는 동안에는 간간히 비가 내리는 듯 하였는데 **신트라 궁**에 도착하여 버스에서 내리고 보니 다행스럽게도 비가 멈춰 있다.

잠시 걸으니 하얀색의 **신트라 왕궁**이 눈에 들어 온다.

신트라 왕궁은 **14C부터 1910년까지 국왕의 여름별궁으로** 쓰였던 왕궁으로 **특이한 굴뚝으로** 유명하다더니 듣던대로 2개의 굴뚝이 참으로 인상적이다.

독특하게 설계된 이 굴뚝은 음식냄새와 연기는 싹 빨아들여 내뿜는 대신 폭우가 쏟아져도 비가 세들지 않게 설계되어 있다고 하는데 어찌 설계하면 그렇게 될까 나의 상식으론 이해 불가다. 하긴 이 세상엔 내가 아는 것 10%에 내가 모르는 것 90%가 존재하는지도 모르겠다. 아니 어쩌면 10%는커녕 채1%가 안될지도 모르지.

자~이제 사진을 열심히 찍어보자.



신트라 왕궁의 전체적인 모습

14세기 엔리케 항해왕자의 아버지 주앙1세가 세웠으며 그 뒤 몇 번인가 개축이 거듭되었다.
오른쪽은 마누엘 왕에 의해 증축된 것으로 **마누엘 양식의 창**이 특징적이다.



아직은 이른 아침이라 관광객이 많지 않다.
왕궁 앞 광장(?)은 비둘기 차지



서서히 파란 하늘이 드러나고...



여행할 때마다 자주 보지만 한번도 타보지 못한 꼬마 관광 열차.
음~타보고 싶다.



처음 도착 했을 때는 우리 일행 밖에 없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이 모여들고 노점상도 눈에 띄고...
이제야 관광 도시답게 느껴진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찍은 셀카 사진이다.

그나마 앞에 것은 카메라를 설치하다 실수로 찍힌 사진.

여행에 혼자 참가한 탓에 사진 찍어줄 이가 없을 것 같아 셀카를 찍겠다고 삼각대를 준비해 갔으나 삼각대를 설치하고 사진을 찍을 시간적 여유도 전혀 없고 너무 튀는 행동 같아 이 이후론 삼각대를 전혀 사용하지 못했다.



신트라 왕궁의 두 개의 굴뚝



신트라 왕궁의 내부 중 백조의 방.
안타깝게도 내부는 보지 못했기에 빌려온 사진으로 보는 중.

2006.12.30

신트라 왕궁을 보았으니 이제 페나성을 볼 차례.

개인적으로 배낭 여행을 왔다면 마을 구경을 하며 천천히 걸어 올라 가도 좋으련만 우리는 단체 여행객이므로 버스를 이용하려 한다. 하지만 이 곳에서 페나성으로 오르는 길은 지금까지의 길과는 달리 폭이 좁기 때문에 우리가 타고 온 버스로는 갈 수 없고 이 곳을 운행하는 433번 버스나 434번 버스를 이용할 것이다.



▲
신트라 왕궁 앞의 버스 정류장과 434번 버스



페나성 정문 앞 입장권 판매소의 요금표



페나성 정문



페나성의 정문으로 들어가 10여m 정도 걸어가면 또 다시 페나성까지 오르는 초록색 미니버스 정류장이 있다.

걸어갈 사람은 걸어 가고 차를 타고 갈 사람은 차를 타고...우리는 물론 차를 타고 올랐다.

걷고 싶어 몸이 근질근질한 나지만 오르막 길은 언제나 자신이 없기에 아무런 불만 없이 차에 오른다.





▲
차를 기다리는 동안 주변의 풀과 나무도 구경하고 막간을 이용해 증명 사진도 찍어 본다.

해발 500여m 위에 우뚝 서있는 페나성...

16세기에는 **제로니무스 수도원**이었으나 1839년 **페르난도(Fernando) 2세**가 개축한 후에는 왕들의 여름철 주거지로 사용되었던 성이란 다.

(페르난도는 가파른 산봉우리에 있던 부서진 수도원의 자리를 보고는 그 장소에 반해 수도원과 그 주변을 사들여 그 곳에 궁전을 지었다고 함.)

이슬람 · 르네상스 · 마누엘 · 고딕, 바로크 양식까지 다양한 건축양식을 보여주는 범상치 않은 모습의 페나성은 성의 외부가 **노랑, 주황, 파랑**의 파스텔조의 색채로 칠해져 있고 전체적으로 장식타일인 **아줄레주**가 장식되어 있어 마치 동화나라의 성 같은 느낌이 들게 하는 이 국적이고 아름다우며 낭만적인 곳이다.

궁전의 실내 모습은 왕정이 폐지되고 아멜리아 여왕이 떠났던 1910년의 모습 그대로라고 하는데 72개의 촛불을 밝혔던 상들리에가 달린 무도회장이 있어 왕실의 위풍당당함을 엿볼 수 있는가 하면 나머지 대부분의 방들은 작고 아기자기 하게 꾸며져 있어 좀 부유한 일반의 가정집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내부 장식이 아름다운 아멜리아 여왕의 방과 터키인의 살롱 등이 특히 볼만하며 방마다 진열된 값진 가구나 그릇들도 눈여겨 볼만한 것들이다.

16세기에 만들어진 석고로 된 제단과 마누엘 양식으로 된 회랑, 그리고 왕족들의 음식이 차려지던 곳이 그 전에는 수도사들의 식당이었던 곳으로 아직도 수도원의 분위기가 남아 있는 곳이라고.

날씨가 좋으면 리스본과 테주강(타호강)이 내려다보일 정도로 전망이 좋다고 하나 안타깝게도 우리가 페나성을 찾았던 날은 주위가 온통 안개로 휩싸여 있어 아무 것도 볼 수가 없었다.

오밀조밀한 **페나성**과 그의 정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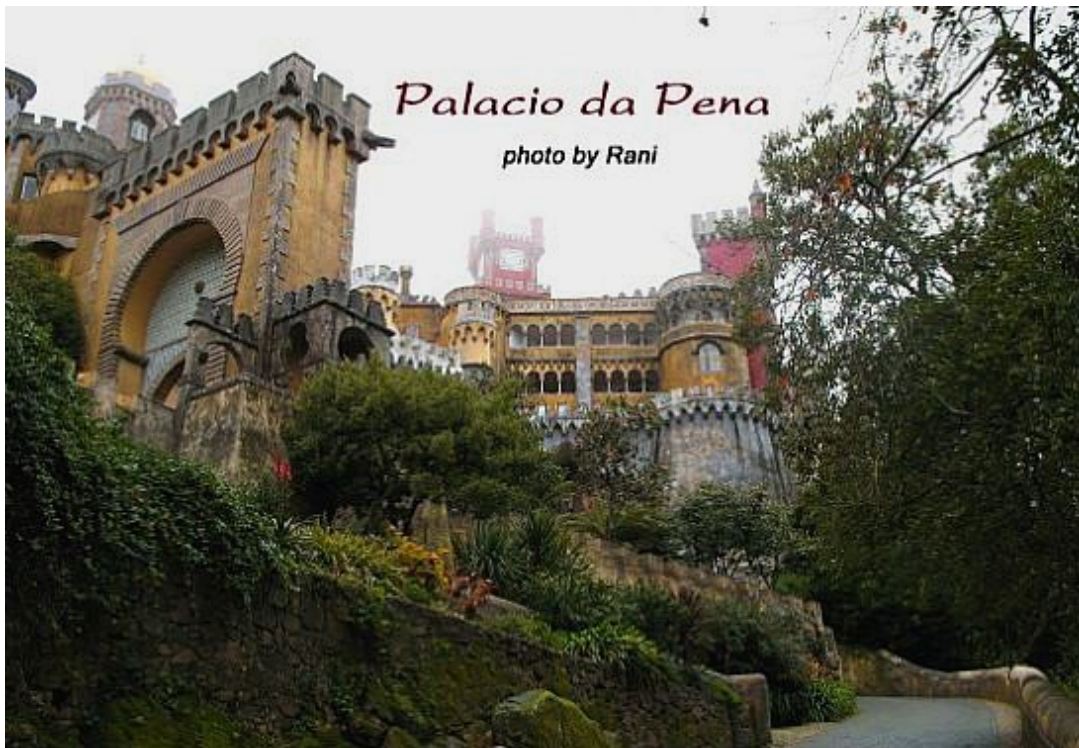
햇살이 화창한 날이었다면,

그리고 겨울이 아닌 봄이나 여름이었다면 그 아름다움을 제대로 만끽할 수 있었을텐데.....

참으로 아쉽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노이슈반슈타인성의 모델이 되었던 성이 바로 페나성이다.



미니버스에서 내려 조금 걷다 올라다 보니 페나성의 전체적인 모습이 보인다.

다른 사람들의 사진 속에서 보던 페나성은 알록달록 예뻐보이기만 했는데 실제로 보는 페나성은 생각보다 훨씬 더 넓어 보이는 것이 세

월의 무게를 느끼기에 충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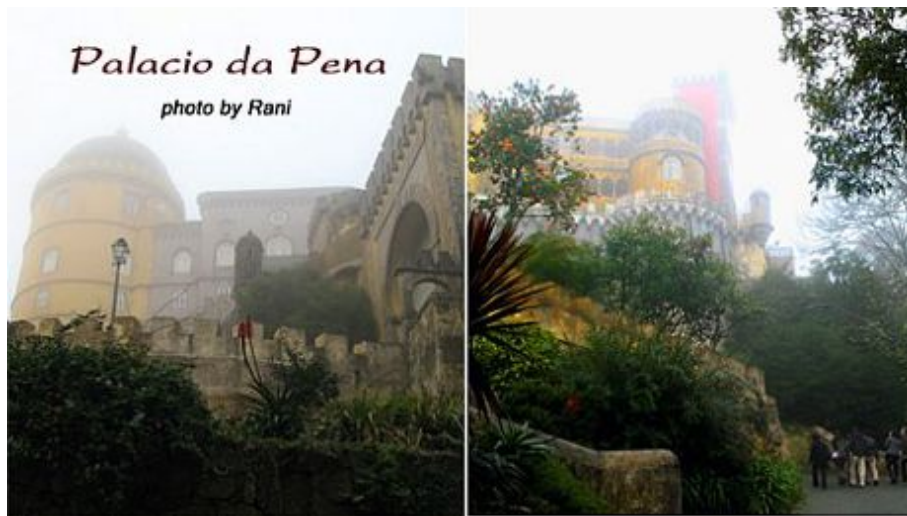
그러나 다시 생각해 보니 페나성이 저토록 넓아보이는 것은 오로지 세월의 탓만은 아닌 듯 싶다.

오늘은 아침부터 비가 왔고 지금은 주위가 온통 안개로 가득 차 있지 않은가. 그러니 물기를 머금은 건물 벽의 더러움이 훨씬 더 도드라져 보일 수 밖에....

이 곳에서 예쁜 사진을 많이 남기고 싶었는데 날씨 탓에 아무리 애를 써도 소용이 없다.

그래서 내심 나를 향한 위로의 말을 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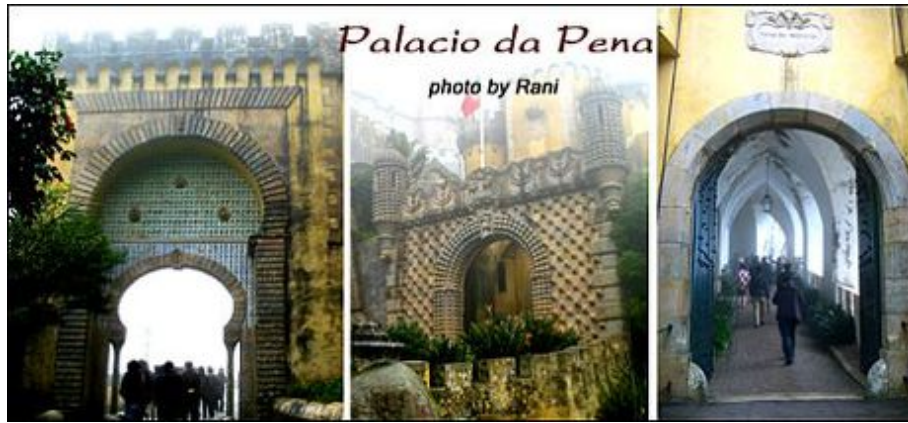
'넌 다른이들이 갖고 있는 사진과는 차별화된 사진을 가질 수 있잖아.안그래?'



페나성으로 올라가며 부분 부분 찍은 사진들



▲
 포르투갈에 와서 자주 보게 되는 저 꽃(알로에), 볼 때마다 참 예쁘다고 생각했었는데
 페나성의 외벽 색과도 잘 어우러져서 더욱 예뻐 보인다.



성을 향해 걷다 보면 위의 문들을 차례로 지나게 되는데 첫번째 문은 이슬람의 색채가 특히 강하게 느껴지는 문이고 두번째 문은 성의 입구로 뻗어뻗어 문양이 마치 **도깨비 방망이**를 연상케 하는 재미난 문이란 생각이 든다.



성으로 올라가다가 걸어올라온 길을 내려다 보았다.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또한 안개로 앞이 잘 안보임에도 불구하고 숲의 울창함을 짐작할 수 있다.
'여름에 보면 굉장하겠는걸...'



▲ 타일로 장식된 벽

건물의 벽이랑 문이 새끼줄을 꼬아놓은 듯한 혹은 등나무 가지가 꼬여있는 듯한 문양들로 장식되어 있음을 볼 수 있는데 마누엘양식이라고 16세기 건축양식이라한다.

(뱀줄모양의 장식이 있고 배를 장식하던 것이 건축양식으로 옮겨진 것이라네요.)

저 문을 통과하면 바로 아래 사진 말고 두번째 아래 사진과 같은 곳이 나오는데 저 곳에서 보는 경치가 이곳 볼거리 중의 백미라고...

(물론 나는 날씨 탓에 5m 앞 정도까지 밖에는 보지 못했다.)



▲
이 사진은 위의 사진 속의 문을 통과할 때 양쪽 벽의 타일 문양을 찍은 것이다. 가운데 사진은 문 위의 조각만을 찍은 것이고, 사람인지 뿔인지 모를 인물 뒤에는 포도나무가 있는 것 같고 아래 깔고 앉은 것은 조개 종류인 거 같은데 무슨 의미일까... 궁금하다. (아는 분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

Palacio da Pena

photo by Rani



날씨가 좋을 때는 대서양도 보인다는 저 곳 .

하지만 내가 본 모습은

에휴~



페나성의 내부 관람을 마치고 내려오다 저 곳에서 사진도 찍고 페나성 입구쪽을 내려다 보기도 하고...
 페나성의 내부는 사진 촬영 금지라 열심히 설명만 듣고 다녔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것이 생각나지는 않는다. 아무래도 내 머리의 용량에 문제가 생긴 듯 하다.



차를 타기 위해 내려오다가 내가 이 곳에 언제 또 올까 싶은 아쉬움으로 다시 한 번 올라다 본다. 사진 속의 올라다 본 곳은 첫번째 문이 있던 곳. 겨울임에도 여기 저기서 꽃들을 볼 수 있어 좋다. 여름에 오면 꽃 천지려나???

2006.12.30

페나성에 오르기 전후 잠시동안 **신트라 왕궁 주변의 마을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다.

미로 같은 골목길을 탐험하듯이 돌아 다니는 것을 몹시도 좋아하는 나는
이 곳에서 그러한 나의 욕구를 충분히 채우지 못해 정말로 병이 날 지경이었다.



성처럼 생긴 저 건물은 ???



산 위에 보이는 것은 무어인의 성터 같다.



음식점



▲
 각종 상점들



나무에 메달아 놓은 크리스마스 장식. 밤에 불이 들어오면 정말 환상적일 것 같다.



▲
20분간의 골목길 탐험 시작~



무얼 그리 열심히 보고 있는게야. 시간이 없는데....





▲
골목 안 옛보기



▲
갈림길. 어디로 가는게 더 재미있을까??? 예쁜 간판이 달려 있는 골목이 더 재미있을 것 같아.



기념품점.

이 곳에선 엽서를 살 생각도 못했네.



하지만 이 곳에서 Porto 와인을 샀지.

아~달콤해.

2006.12.30

신트라의 주요 볼거리인 신트라 왕궁과 페나성의 관광을 마치고 점심을 먹기 위해 이동 중이다.

차창 밖으로 내다 보이는 거리의 집들이며 사람들의 모습들 또한 주요 관광지 못지 않게 보는 즐거움을 내게 제공해 준다.







2006.12.30

차로 이동하는 동안에도 혹시나 볼거리를 놓칠까 싶어 눈도 자주 깜빡이지 않으며 거리를 구경하다 보니 어느새 점심을 먹기로 예약된 장소에 도착해 있다.

음식점에 들어 서니 여기가 빵집인지 음식점인지 도무지 분간이 되지 않는다. 어렸을 적 우리가 한국말인 줄 알고 쓰고 있는 '빵'이라는 말이 포르투갈에서 들어 왔다고 배웠던 기억이 어슴프레 떠오르며 오늘의 점심은 각종 빵을 먹어야 하는가 보더라는 생각에 밀려오는 실망감을 어쩔 수 없다.

'아침에도 빵을 먹었는데 또 빵이란 말이야.'

거의 빵과 과자만 먹고 지내야 했던 지난 배낭여행의 악몽까지 떠오르며 실망감이 짜증으로 바뀔조음 음식이 나오는데....

'아싸! 이게 웬일..샐러드잖아.'

양상추에 양파맛까지 더해져 입에 짹짹 달라 붙는다. 한국에서 먹던 것보다 더 한국적이고 진짜 맛있다.

이것으로 끝인 줄 알고 빵까지 샐러드와 함께 열심히 먹고 배를 채웠는데(볶음밥 같은 것도 먹었던 것 같고...)

'아니 이게 뭐야!'

메인요리라는 수탉요리가 또 나오는 거다.(포르투갈에서는 수탉이 행운의 상징)

'아~ 배불러 죽겠는데 먹어야 해 말아야 해.'

하지만 고민은 잠시, 내가 한달동안 번 월급을 여기에 다 쏟아부었는데 하며 기필코 먹기로 했다.

아~그러나 잘 안된다. 결국 수탉요리는 깨작거리기만...

'아이구 아까워라.'

그런데 아직도 먹어야 할 것이 남아 있단다. 후식인 타르트와 아이스크림.

'후식쯤은 들어갈 자리를 만들 수 있겠지.'

타르트는 진저리가 쳐지도록 단 맛이 났지만 포르투갈에 가면 꼭 해봐야 할 일 세 가지 중에 하나가 타르트 먹어보기라며 룸메이트 쌤이 일러주기에 참고 먹었더니 첫 맛과는 달리 맛있게 먹을 수 있었다. 걱정과는 달리 이번 여행의 첫 현지식을 성공적으로 먹고 보니 이제부터 슬슬 살이 얼마나 찌려나 하는 걱정이 밀려오기 시작한다.

'에구~이래도 탈, 저래도 탈.'



▲
점심 먹을 레스토랑 (우리나라에서 흔히 떠올리는 레스토랑과는 차이가 있다.)



▲
홀의 반 이상을 빵이 차지하고 돌레에 테이블이 놓여 있다. 아래층은 이렇지 않겠지만...



샐러드와 빵 - 샐러드가 무지 맛있었던 걸로 기억된다.



메인요리인 수탉요리 - 거의 먹지 못해서 지금 생각해도 아까움



1인당 1개씩 나온 타르트. 모두 집어 가고 달랑 1개만 남은 것을 찍었다.

타르트는 단 맛과 바삭바삭 씹히는 맛이 매력이다.



▲
음식점 앞에서

2006.12.30

점심을 먹고 우리는 오후 일정지인 파티마로 향했다.

파티마는 포르투갈 산타렘주(州) 빌라노바데오렘에 있는 마을로 1917년 5월부터 10월까지 매달 13일이 되면 3명의 어린 목동 앞에 [성모 마리아](#)가 나타나 죄의 회개와 로자리오의 기도를 권하였다는 유래 때문에 순례지로서 알려지게 된 곳이다.

버스로 한 두시간쯤 달렸을까, 언뜻 보기에도 시골 마을임을 알 수 있는 한적한 마을에 도착했다.

몇 몇 기념품점과 그리 넉넉해 보이지 않는 작은 집들을 지나 어린 목동들이 살던 집으로 발걸음을 옮긴다.







▲
한적한 마을 풍경

2006.12.30

어린 세목동들 중

남매지간이었던 프란시스코(당시 9세)와 히아친타(7세)의 집으로 들어섰다.

지금 보고 있는 집의 내부는 어린 목동들이 살던 당시의 모습 그대로라고 한다.

집 안에는 할아버지 한 분이 앉아 계셨는데 그 남매와 사촌지간쯤 되는 분이시라는 것 같다.

집의 내부를 둘러 보고 할아버지와 기념 사진도 찍을 수 있었다.

사람들이 별로 아는 척을 안해서 그런가 관심을 보이는 것에 내심 좋아하시는 것 같다.

(순전히 나의 착각일지도 모르지만...)



프란치스코와 히아친타의 생가



프란치스코와 히아친타가 쓰던 침대
1919년 4월 4일 어린 프란치스코는 이곳에서 죽음을 맞았다.



부엌인 것 같다.



다음으로 간 곳은 남매와 사촌지간이었던 루치아(당시 10세)수녀의 집.
 그 곳에도 수녀님의 복장과 유사한 옷을 입은 할머니가 한 분 앉아계셨는데
 그 분 역시 사촌뻘쯤 되는 친척으로 수녀님은 아니라고 한다.



▲
 루시아 수녀의 생가임을 알리는 대문 앞의 표지판



▲
 루시아 수녀의 생가라는 표지판

▲
 루시아 수녀의 사촌뻘 되는 할머니



루시아 수녀는 갈멜 봉쇄 수도원에 계시면서 교황의 저격 사건을 예언한 인연으로
유일하게 바오로2세 교황님만 만나셨다고 한다.



▲
기도방



▲
살림 살이가 참으로 소박하고 단출하다.



히아친타, 프란시스코, 루시아의 사진

2006.12.30

어린 목동들의 집을 둘러 보고 서둘러 차를 타고 파티마 대성당으로 향한다.

'이 성당은 몇번째로 큰 성당일까.'

유럽 여행을 하다 보면 가는 곳마다 있는 것이 성당이요

세계에서 몇번째 유럽에서 몇번째란 소리를 여러 차례 들었던지라 이제는 자동으로 그런 궁금증이 생긴다.

그러나 어쩌랴 알던 것까지 뒤죽박죽인 상태가 돼버린 것을.....



▲
파티마 대성당

파티마 대성당 광장 가운데의 예수 성심상- 이 곳에서 우물이 솟아났다
현재도 우물이 남아있어 받아가는 이들이 있는데 나도 작은 병으로 한 병을 받아 왔다.



파티마 대성당 광장



광장의 히아친타와 프란치스코 동상



광장의 가운데에 있는 속죄의 길엔 무릎으로 걷는사람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



초 하나하나에 마음과 바램을 담아 봉헌하고 기도하는 사람들



마리아가 처음 발현하셨던 곳 옆에 지어진 예배소



바실리카 안에 들어가 보니 미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2006.12.30

파티마 일정까지 오늘 하루의 여행 일정을 끝내고 리스본 근교의 호텔로 돌아와 호텔 주변의 중국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다.
개인 행동을 하면 안되지만 너무나 개인 시간을 갖고 싶은 마음에 잠깐동안의 산책을 시도했다.



▲
위의 요리 말고도 고기요리를 두 개 정도 더 먹었던 것 같다.(요리는 4인분씩 한접시에 나눔.)

지난번 배낭 여행 때 마땅히 먹을 것을 잘 찾지 못해 굶주렸던 걸 생각하면 입맛에 맞는 음식들이 얼마나 날 행복하게 하는지...

하지만 거의 매일 매일 한끼나 두끼를 중국 요리로 먹다 보니 나중엔 그렇게 맛있는지도 잘 모르게 됐다.

포르투갈에는 한국인 교포가 손에 꼽을만큼 밖에 살지 않기 때문에 한국 음식점을 차릴 수가 없다.

스페인에는 포르투갈보다 많은 교민이 살고 있지만 대도시엔 집중되어 있는지 마드리드나 바르셀로나에 가서야 한국 음식을 먹을 수 있었다.

그에 반해 중국음식점은 숫자적으로도 많은데다 밤 늦게까지 영업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중국음식점을 이용하게 된다고.

중국 음식이라지만 나오는 음식들은 늘 한국의 중국집에서 먹는 중국요리처럼 한국인의 입맛에 맞게 조리되어져 나온다.

패키지로 여행을 오니 먹는 것은 늘 풍족한데 그러면서도 뭔가 아쉬운 것은 고생하면서 쌓여가는 추억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 같다.



배도 채웠겠다 나의 그림자를 친구 삼아 산책을 하고 싶다. 오늘 하루 종일 자유 시간을 갖지 못해 몸이 근질 거려 죽겠다.



슬며시 호텔을 빠져 나와 호텔 근처를 걷기 시작 했으나 인적이 전혀 없는 것이 어쩐지 불안하다
괜히 나왔나 보다.

저 주유소만 지나면 잘 보이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대서양의 파도 소리를 들을 수 있을텐데
이 지점에서 그만 용기가 꺾여 U턴 해 버리고 말았다.



던하자마자 친근하게 웃어주는 남자가 하나 있다.

'안녕하세요'

하지만 그는 웃어주기만 할 뿐 대답이 없다.



또 호텔이다.

첫밤을 보내고 이제 겨우 두번째 밤인데 호텔로 들어가는 것이 마치 감옥으로 끌려 들어가는 것 같아 숨이 막힌다.

2006.12.30

이번 여행 상품의 선택 옵션으로는 홀라맹고를 보는 것만이 포함되어 있지만 나의 룸메이트 샘을 비롯하여 몇명의 일행이 포르투갈까지 와서 파두를 듣지 않고 가면 되겠느냐고 파두를 들으러 가자고 한다.

호텔이 리스본 시내에 있다면야 가고 싶은 사람은 가고 쉬고 싶은 사람은 쉬다해도 문제될 게 하나도 없겠지만은 문제는 호텔이 리스본 시내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교통편이 걸린다는 거다. 리스본 시내로 들어가려면 차를 대절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최소한 1인당 60유로씩 해서 열명이상이 참석해야한다는 것. 그러니 희망자는 손을 들어 보란다.

그 순간 맘 속의 '나'와 머리 속의 '나'가 싸우기 시작 한다.

맘 속의 '나'는 가자하고 머리 속의 '나'는 참으라고 하고, 머리 속의 '나'는 이유까지 또박 또박 댄다. 런던에서 무대 장치 끝내주는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도 그 정도의 돈으로 보았는데 그냥 노래를 듣는데 그만큼의 돈을 쓰면 되겠냐는 거다. 맞는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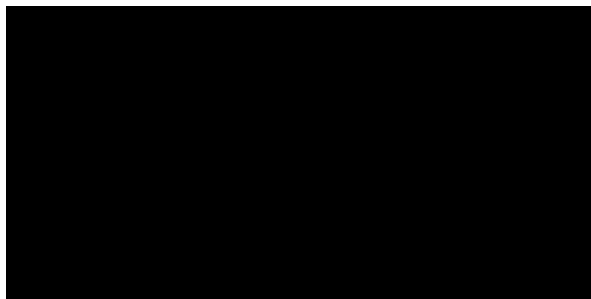
그러나 승리는 맘 속의 '나'에게로 돌아 갔다. 지나고 나서 후회하면 소용 없으니 차라리 하고 후회하자는 쪽을 선택 한 것.

그리하여 나를 포함한 일행 열명은 파두를 들으러 가기 위해 호텔을 나서 대절한 차에 올라 탔다.

그러나 그날의 진짜 하이라이트는 파두보다도 리스본 시내의 야경을 보는 것에 있었다는 걸 그 때는 어찌 상상이나 할 수 있었으랴. 생각지도 못했던 황재를 한 기분이 이런 걸까. '야경이 야경이지 그게 뭐 별거겠어'라고 했던 마음은 어디론가 깜쪽 같이 사라지고 우리 일행은 누구랄 것도 없이 환호성을 지르기 시작 했다. 골목 골목 설치된 크리스마스 장식과 코메르시우 광장의 거대한 트리, 특히 리스본의 상젤리제 거리라 불린다는 거리엔 나무마다 흰색과 푸른색의 큰 방울이 달려 있었는데 환상 속으로 빠져드는 기분이었다.

우리 열명은 그 밤,

찬란하고 환상적인 무수한 빛들과 그와는 대조적인 어둡고 애절한 노래 가락을 가슴 속에 깊이 깊이 새겨 넣어, 나의 옛시절을 떠올릴때 가끔씩 꺼내볼 수 있는, 추억거리 하나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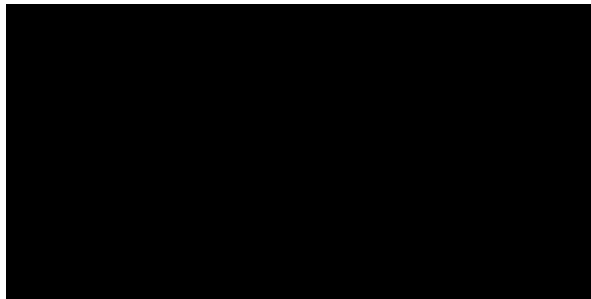


2006.12.30

기대치 않았던 리스본 야경의 황홀함으로 인해 한껏 업된 기분으로 파두 클럽에 도착했다.

나는 지금 포르투갈이란 나라의 수도인 리스본에서, 파두의 본고장이라 할 수 있는 리스본에서, 파두를 들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꿈은 아니겠지??'



파두는 주로 식당에서 공연되는 포르투갈을 대표하는 음악이다.





▲
우리가 갔던 파두클럽



▲
파두를 부르는 여가수들은 모두 까만 드레스를 입는데 그 까만 드레스에는 슬픈 사연이 담겨 있다.
거리의 여자였던 마리아(파두의 여신이라 칭송받던 마리아 세베라)가 파두를 부르던 어느날,
그녀는 한 귀족과 사랑에 빠지게 되지만 결국 그 귀족에게서 버림을 받게 된다.
그 때부터 그녀는 늘 까만 드레스만을 입고 파두를 불렀다고 전해지는데
아마도 그 까만 드레스에는 신분의 벽을 넘지 못한 그녀의 아픔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일게다.





↓ 다음은 브리태니커 백과 사전에서 찾은 파두에 대한 설명이다.

포르투갈을 대표하는 서정적인 분위기의 민속 음악 파두.

파두는 운명, 혹은 숙명을 뜻하는 라틴어 'Fatum'에서 유래한 말이다. 스페인의 지배 등 암울했던 포르투갈의 역사를 반영하듯, 파두에는 향수와 동경, 슬픔과 외로움 등 민족 특유의 정서가 담겨 있다. 파두의 기원에 대해서는 포르투갈의 옛날 서정시에서 비롯되었다, 뱃사람들이나 죄수들이 부르던 노래에서 유래했다, 다른 민요에서 파생되었다, 브라질이나 아프리카에서 건너왔다는 등 여러 가지 설이 있다.

파두의 특징은 크게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끓어오르는 듯한 멜리스마 창법, 전통 기타인 기타라 반주, 숙명론적인 사고 등이 그것이다. 파두에는 리스본 뒷골목에서 서민들이 부르는 '리스본 파두'와 남성 보컬들이 부르는 달콤한 사랑의 세레나데 '코임 브라 파두'의 2가지가 있다. 서민생활의 애환이 묻어 있는 리스본 파두가 백미라는 평을 받고 있는데, 파두를 세계적인 음악으로 끌어올린 포르투갈 출신의 여가수 아말리아 로드리게스가 리스본 파두의 대표적인 가수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포르투갈 여가수 베빈다의 노래가 광고와 드라마 등에 삽입되면서 관심을 끌었다.

2006.12.31

포르투갈에서 두번째 아침을 맞았다.

첫날밤처럼 완전히 밤을 지새진 않았지만 지난밤 또한 토막잠 밖에 못잔 탓에 머리가 조금 무겁다.

하지만 호텔을 나서 상쾌한 아침 공기를 폐 속 깊숙히 들이 마시고 나니 지난밤의 피로가 말끔히 가시는 듯, 오늘의 일정도 잘 소화해 낼 수 있을 것 같다.

왼쪽으로 대서양을 보며 한시간 정도를 달려 도착한 곳은 대륙의 서쪽 끝이라는 **로카곶(Cabo da Roca)**.

리스본으로부터 서쪽으로 약 40km 떨어진 해안으로 북위 38도 47분, 서경 9도 30분에 위치한 곳이다.

안개 때문에 낭패를 맛 보았던 페나성에서의 기억이 떠오르며 이 곳으로 오는동안 내내 주위를 둘러싼 자욱한 안개에 신경이 쓰였었는데 막상 로카곶에 도착해 보니 신기한 마술처럼 안개가 걷히고 주변의 모든 것이 선명한 본연의 모습으로 나의 시야에 잡힌다.

탁트인 **바다**,

머리카락을 사정없이 흐트러 놓는 **바람**,

오염되지 않은 청량한 **공기**,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푸릇푸릇한 **들판**....

우리나라 CF중 이 곳을 배경으로 찍은 CF가 있다더니,

흠~ 나도 이 곳에서 CF 한편 찍고 싶다는 말도 안되는 바램이 생긴다.ㅋㅋ

-





기념비

포르투갈의 민족시인 루이스 드 카몽이스는 이 곳을 표현함에 있어 땅이 끝나고 바다가 시작되는 곳이라 했다 한다.

참 단순한 말 같으면서도 가슴에 남는 말이다.

(끝은 단순히 끝만을 의미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을 의미하는 것...

살다보면 절망 앞에서 끝이란 말을 떠올리게 될 때가 있는 데
이런 순간이 왔을 때 이 곳을 떠올려 보면 조금이나마 힘을 얻게 되지 않을까.)

"여기 땅이 끝나는 곳에 바다가 시작된다"



대륙의 끝에서 대서양을 향해하는 배들에게 길을 안내해주는 등대



드넓은 대서양과 조화를 이뤄 시시각각으로 다양하게 멋진 그림을 그려내고 있는 풍성한 구름



등대 옆에 있는 사무실에서는 이 곳을 방문한 기념으로 증명서를 발급해 준다. 5유로짜리와 10유로짜리가 있다.



등대를 배경삼아...



▲
조제와 함께...





CF도 찍었다. TV에도 나오지 않을 나만의 CF를.... (글쎄...무슨 광고라고 하면 어울릴려나.)



그리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룸메이트쌤과도 사진을 찍었지. 그러고 보니 누구랑 같이 찍은 사진이 거의 없다.



대서양을 배경으로 또 한 컷.
 다른 곳은 주로 풍경 사진 위주인데 이 곳에선 유난히 나의 사진이 많다.
 왜일까...
 이 곳에 다녀왔다는 증명을 너무나 하고 싶었던 것일까.
 아름다운 자연의 일부분으로 나를 꼭 끼워 넣고 싶었던 것일까.



푸른 들판의 풀과 꽃.
 이 곳은 여름이 건기라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과는 다르게
 여름에 오면 오히려 푸른 들판이 아니라 누런 들판을 보게 되는 것 같다.
 겨울에 오길 잘 했다.



2006.12.31

기대하지 않았기에 더 좋았던 로카곶(카보 다 로카)과 아쉬운 작별을 하고 우리는 리스본으로 향한다.

밤에만 오가는 길에 보았던 리스본은 태양 아래서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지...









2006.12.31

리스본으로 들어와 우리가 제일 먼저 간 곳은 리스본 중심심부에서 서쪽, 대서양으로 흘러드는 테주강을 따라 자리잡고 있는 벨렘 지구이다. 벨렘은 15~16세기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해양 제국으로 군림했던 포르투갈의 역사를 보여 주는 곳으로 바스코 다 가마가 인도로 가는 항해에 나선 곳도 바로 이 곳이라고 한다. 이 벨렘 지구의 볼거리로는 벨렘탑과 제로니모스 수도원, 그리고 발견의 기념비가 있다. 벨렘탑이나 제로니모스 수도원은 마누엘 1세가 세운 건물로 1755년 리스본 대지진에도 견뎌냈으며 대항해 시대의 영화를 후세에 전하는 귀중한 문화 유산이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주위를 둘러 보니 강인지 바다인지 구분이 안될만큼 시원스레 넓은 테주강과 사진을 통해, 그리고 포르투갈을 소개하는 TV프로그램을 통해 일찍감치 눈에 익혀 놓았던 벨렘탑의 형상이 제일 먼저 눈에 들어 온다.

언제나 그랬듯이 사진 속의 모습을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순간은 그 기분이 묘하다.

빨리 보고 싶은 마음에 나도 모르게 어느새 발걸음이 빨라진다.



벨렘탑

마누엘 1세의 명으로 1512~1521년에 걸쳐 프란시스코 데 아후다가 지은 마누엘 양식의 우아한 탑으로

테주강의 귀부인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으며

당시 인도나 브라질 등으로 떠나는 배들의 통관 수속을 하던 곳으로

대항해 시대에는 해외에서 돌아온 배를 왕이 이 곳 테라스에서 알현 했다고도 한다.



벨렘탑으로 들어 가는 입구



바닷물이 들락거리던 1층에서는 19c초까지 정치범을 가둬두었던 물감옥을 볼 수 있으며,



벨렘탑의 2층에서는 리스본의 방어를 위해 설치했던 포를 볼 수 있다.



이 곳을 오르내리는 계단은 반질반질하게 닳아 있어 오르내릴 때 자칫 미끄러지기 쉬워 조심해야 하는데 그것은 아마도 뱃사람을 전송하고 맞이하기 위해 오가던 수많은 사람들의 발걸음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제는 이 곳을 찾는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한뼘을 더하고 있으니 세월이 더 많이 흐른 후엔 어떤 모습을 하게 될지 자못 궁금해진다.



3층에서는 시원하게 흐르고 있는 테주강을 바라볼 수 있는 아름다운 테라스와 테라스 중앙의 무사향해를 기원하던

벨렘의 마리아상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데

안타깝게도 나에게 주어진 자유시간이 다하여 나는 3층까지 오르지 못하고 말았다.

엉엉엉..흠쩍~



벨렘탑의 주변 모습.

지난번 여행에서 나는 세느강이나 테임즈강보다 우리의 한강이 훨씬 멋진 강이란 생각에 우쭐했던 기억이 있다.

하지만 보면 볼수록 **테주강** 역시 만만치 않게 아름답고 멋진 강이란 생각이 절로 든다.



발견의 기념비를 향하여 앞으로 ~ 가.

2006.12.31

벨렘 탑 다음으로 간 곳은 **발견 기념비**.

우리는 차를 타고 이동했지만 걸어서 간다해도 벨렘탑에서 10분이며 족히 갈 거리에 있다.

범선의 모양을 본 뜬 높이 52m의 기념비는 테주강으로 돌출되듯이 세워진 형상을 하고 있으며

엔리케 항해왕자의 500주기를 기념하여 1960년 **바스코 다 가마**가 항해를 떠났던 자리에 세워졌다고 한다.

기념비에는 테주강 쪽을 향해 많은 인물들이 앞 뒤로 조각되어져 있는데 제일 선두에 있는 인물이 엔리케 항해왕자이고 그 뒤로는 샤비에르, 콜럼버스, 마젤란, 바스코 다 가마 등, 대항해 시대의 모험가와 천문학자, 선교사들이 따르고 있다.











기념비 위에서 내려다 본 이 모습은
5~16C 포르투갈이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던 당시,
포르투갈의 지배하에 있던 나라를 표시한 세계지도의 모습이다.

우리는 기념비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걸모습만을 보았기 때문에 나는 내가 서있던 저 자리의 전체적인 모습은 볼 수 없었다.

한 때 그렇게 큰 영화를 누렸던 나라 포르투갈,
하지만 지금은 유럽의 국가 중에서(동유럽 제외) 잘 살지 못하는 나라 쪽에 속한다고 하니
영원한 것은 없다는 생각에 새삼 덧없음이 느껴진다.

2006.12.31

발견 기념비에 대한 설명을 듣고 분주히 사진을 찍다 고개를 돌려 보니 정박해 있는 요트들 뒤로 멀리 있어 뚜렷하진 않지만 옆으로 기다

란 건물이 눈에 들어 온다. 그것이 제로니모스 수도원이란 얘기를 듣지 않았다면 흘깃보고 말았을 뻔...

이 곳에 오기 전, 여러 책자를 통해 자주 접했던 유명한 곳이지만 가까이서 보지 않으니 전혀 알아보지를 못하겠다.

유명세가 있는 곳이라 이 곳도 가까이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시간 때문인지 이 곳에서 보는 걸로 끝이다.

'다음엔 꼭 자유여행을 하고 말테다.'

12일간의 여행 기간 중 이런 생각이 들게 한 곳이 꽤 있었는데 이 곳도 그런 곳 중의 한 곳.

(리스본 알파마 지구로 28번 트램을 타고 돌아보지 못했을 때, 산타주스타의 엘리베이터를 타지 못했을 때, 포르타스 두 솔 광장에 가 리스본 시가지를 내려다 보고 싶다는 바람이 전혀 실현 불가능함을 알았을 때, 그리고 바르셀로나에서 가우디 건축이나 그 밖의 유명한 건축물들을 충분히 보지 못했을 때 등이 그런 곳이었다.)

아직 안 가본 나라는 물론이요, 앞으로 가고 싶은 나라만해도 수 없이 많은데 내 살아 생전에 리스본에, 그리고 바르셀로나에

다시 와 이번에 이루지 못한 꿈을 다시 실현할 수 있을까???

그 가능성은 너무도 희박해 보이는데....



▲
멀리 보이는 제로니모스 수도원



위의 것은 사진을 확대해서 본 모습이고 아래 것은 빌려온 사진으로 제로니모스 수도원의 전체모습이다.
발견 기념비 위에서 내려다 본 모습 같다.



수많은 요트가 정박해 있는 정박장이 보이고 그 뒤로 멀리 제로니모스 수원이 보인다.



발견의 기념비 있는 곳에서 볼 수 있는 뒤의 다리는 4월25일 다리.

빨간색의 다리라는데 안개 때문에 빨간색은 커녕 형체도 간신히 보인다.

다리의 건너편에는 거대한 예수상이 있는데 이 다리를 건너 세비야로 이동할 때 가까이서 볼 수 있었다.



원래는 이런 모습임

그 길이가 1178m나 되는 이 다리는 1966년 완성되었고

그 때의 공식 명칭은 '자유의 다리'였으나 독재자였던 살라자르의 이름을 따서 '살라자르교'로 불렸었고

1974년 4월 25일 무혈 쿠데타로 살라자르 독재 정권이 무너진 후 이를 기념하여 '**4월 25일교**'(425다리)라 불려지게 되었다고 한다.

다리 건너편에는 28m 높이의 거대한 그리스도상이 있는데 이것은 **브라질 리우 데 자네이루**에 있는 그리스도상과 같은 모양을 하고 있다.

2006.12.31

버스를 타고 벨렘지구를 출발하여 로시우 광장에 내릴 때까지의 **리스본 시가지**를 돌았다.

그렇게 걸어보고 싶던 **알파마 지구**를 걸어보지 못하고 그냥 버스로만 지나쳐야 했던 것이 두고두고 아쉽다.



▲
대통령궁





언덕길의 허름한 집과 전차길로 보아서는 이 곳이 **알파마 지구**인 것 같은데
노란 노면전차가 다니는 것을 한 번도 못봐서 참 서운하다.
28번 전차를 타고 꼭 알파마 지구를 돌고 싶었는데...



▲
타일로 외벽을 장식한 집을 종종 볼 수 있다.





해변가로 돌 때는 집들이 거의 다 흰색을 띄고 있어
이 곳의 집들은 거의 다 흰색 벽에 붉은 계통의 지붕을 한 것이 특징인 줄 알았는데
리스본 시내로 들어 오니 파스텔톤의 집들이 유난히 눈에 많이 띈다.





오래된 듯한 건물들도 많고 저렇게 매우 현대적인 건물도 가끔 눈에 띄고.



2006.12.31

리스본 알파마지구와 코메르시우광장 등을 버스로 한바퀴 돈 후 우리 일행을 내려준 곳 **로시우 광장**이다.

로시우 광장은 리스본의 중심 광장이며 아름다운 분수와 국립 극장이 있다.

우리는 이 곳에서 30분 정도의 자유시간을 얻었다.

아우구스타 거리를 걸어 **코메르시우 광장**까지 갔다와야겠다.

아주 잠깐씩 주어지는 자유시간이라 늘 그에 대한 목마름을 느끼지만 어쩌면 그래서 더 그 시간이 소중하고 설레임으로 가슴이 두 방망이질 치는지도 모르겠다. 부지런히 걸어보자.



로시우 광장의 중앙에는 돈 페드로 4세의 청동상과...



▲
분수대가 있으며...



광장 주변에는 카페와 상점 등이 즐비하다.

2006.12.31

아우구스타 거리는

리스본 최고의 쇼핑 지구인 **바이샤 지구**에 있는 거리이다.
저지대라는 뜻의 바이샤는 고지대인 시아두와 알파마 사이에 낀 지역으로
지진 뒤에 재건되어 거리가 바둑판처럼 정돈되어 있으며
로시우 광장과 아우구스타 거리를 중심으로 카페나 상점들이 모여 있다.



산타 주스타의 엘리베이터 - 저지대인 바이샤 지구의 오우루 거리에서 고지대 시아두 거리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로,
 꼭대기에는 카페가 있어 전망을 즐길 수 있다고.
 프랑스의 건축가 에펠의 제자인 **콘사드**가 건축했다.
 리스본에 가면 저 위에서 리스본을 발 아래로 내려다 보는 일을 꼭 해보고 싶었는데...
 아래 사진들은 저 위에서 볼 수 있는 풍경들이라고 한다.



〈로시우 광장〉



〈리스본 시가지의 집들〉



〈카테드랄과 테주강〉



▲
하몽이 걸려 있는 상점



▲
제과점
물론 타르트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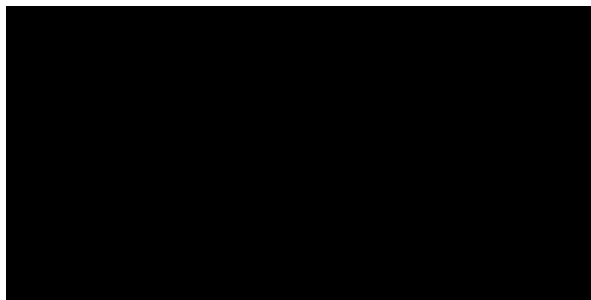
▲
기념품점.
이 곳에서 1유로 주고 엽서 2장을 샀다.



일요일이라 비교적 한산한 거리. 문을 닫은 상점들이 많다.
한산해서 개를 데리고 걷기에는 좋은 듯..



어떤 개는 산책하고 어떤 개는 돈벌이 하고... 니 팔자도 참 그렇구나.





▲
아우구스타 거리의 노점상



▲ 졸고 있는 건지..구걸하고 있는 건지.., 마음이 짠하다.

▲ 포르투갈 곳곳에서 본 우체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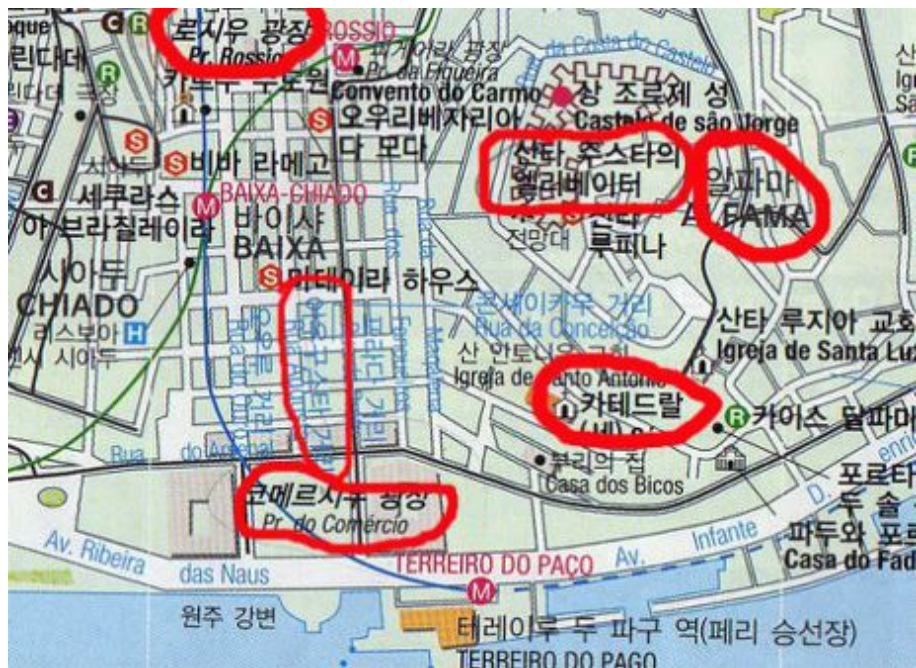
▲
코메르시우 광장을 향해 아우구스타 거리를 걷다 고개를 왼쪽으로 돌리면 보이는 카테드랄.



카테드랄과 노면전차,
이것이 바로 리스본을 대표하는 풍경이라고 하던데....



저 개선문처럼 생긴 것을 통과하면 코메르시우 광장이다.



2006.12.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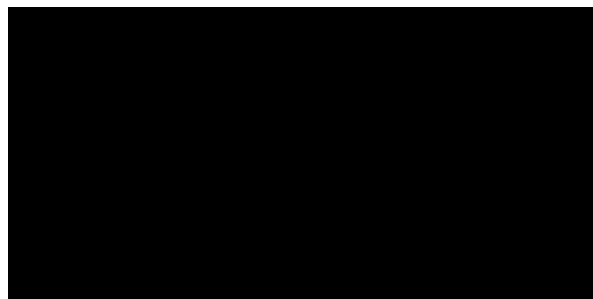
코메르시우 광장은 아우구스타 거리가 테주강으로 돌출한 곳에 자리잡은 광장으로 리스본 최대의 광장이다.

광장을 둘러싸고 있는 노란 건물은 주요 관청들이며 리스본 대지진으로 파괴된 **마누엘 1세의 궁전 터**에 있어서 궁전 광장이라 불린다고도 한다.





코메르시우 광장을 통과하는 트램과



그리고.....?? (노란색의 저 교통수단은 뭐라 부르는 거지...???)



어젯밤에 본 모습은 이렇게 더 아름다웠으나 삼각대가 없어 사진을 찍지 못했다.(빌린 사진)



주요 관청이라는 노란 건물들



코메르시우 광장의 거대한 개선문



한변이 200m인 광장 중앙에는 조르제 1세의 기마상이 서있다.



대지진 후 리스본을 재건한 개혁왕 조르제 1세(동 주세 1세)의 기마상

2006.12.31

중국식으로 점심을 먹고 가이드와 아쉬운 작별을 한 후 세비아로 향한다.

포르투갈에 머문 시간은 이틀도 채 되지 않는 매우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짧은 시간동안에도 나는 이 나라에 정이 든 것 같다. 세련되고 화려하다기 보단 친근하게 느껴져서 더 좋은 나라, 포르투갈. 가능성이 희박한 바램일지라도 나는 이 나라에, 특히 리스본에 다시 와 볼 수 있길 꿈꿔 보겠다.

이 곳에서 세비아까지는 버스로 약 6시간이 소요될 예정이다.

매우 지루할 줄 알았는데 인솔자 켈리가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도 해 주고 바깥 풍경도 구경하며 중간 중간 휴게소에 들려 이런 저런 것들을 둘러보하니 다행스럽게도 그리 지루하지 않게 시간이 흐른다.



▲
멀리서 바라 보았던 4월25일 다리를 건너는 중



안개 때문에 잘 보이지 않던 예수상도 가까이 보인다.



▲
리스본 수로교도 지나..



▲
올리브 나무가 심어진 광활한 들판을 지나..



휴게소에서 잠시 쉬어간다.

이 휴게소 말고도 한두번 더 휴게소에 들렀는데 모두 이런 분위기다. 매우 매우 한적한(?) 분위기..



휴게소의 이름모를 꽃들의 사진도 찍어 본다.(SOS 쌤~ 이 꽃 이름은 또 무엇인가요?)



꽤 진진한 표정인걸. ㅎㅎ



타이어에 바람 넣는 기구?



▲
주유하는 차들도 보이고..



▲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 기구도 있으나.....사람은 많이 없다.



세비아를 향해 다시 출발~

Spain편으로 이어집니다.

2006.12.31

로시우 광장으로 다시 돌아와 버스를 타고 풍발후작 광장으로 향한다.

오벨리스크가 있는 레스타우라도레스 광장을 지나, 크리스마스장식이 환상적이었던 리베르다데 대로도 지나 어느새 풍발후작 광장에 도착했으나 이 곳에서는 내리지도 않고 그냥 설명만 해준다. 풍발후작 동상의 뒤로 보이는 것이 에두아르도7세 공원이라는 설명도 덧붙여서...
이래서 난 단체여행이 싫다.



오벨리스크가 있는 레스타우라도레스 광장



크리스마스장식이 환상적이었던 [리베르다데 대로](#)



▲
리스본 시가지 건설의 주역이었던 풍발 후작의 동상이 **풍발후작 광장**에 세워져 있다.



에두아르도 7세 공원 - 1902년 영국의 에두아르도(에드워드) 7세의 리스본 방문을 기념하기 위하여 조성된 공원이라고 한다.
(풍발후작 광장이 로터리처럼 되어 있어서 버스가 계속 도는 바람에 공원의 사진은 찍을 수가 없어 빌려온 사진으로 대신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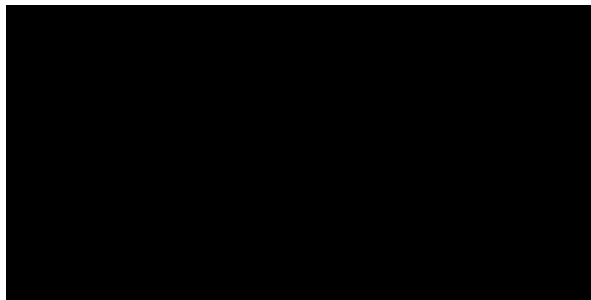


스페인 땅이 멀어져 가다가 싶더니 어느새 주위는 바다뿐이다.

숨을 쉬기 힘들만큼 바닷바람은 점점 더 세차졌지만 나는 그 바람을 피하고 싶지 않다.

바람을 마주하며 바라본 그림같이 아름다운 일몰의 광경.

지브롤터 해협을 건너며 하염없이 바라본 일몰의 그 순간을 어쩌면 난 평생 잊을 수 없을지도 모르겠다.





스페인땅 타리파가 점점 멀어져 간다.





▲ 지브롤터 해협을 건너는 중...



▲ 피곤에 지친 여행객인가 보다.







▲
모로코가 보인다.



▲
모로코땅을 밟다.

탕헤르의 INTERCONTINENTAL HOTEL에 도착했다.

저녁을 먹기에 앞서 짐을 풀고 있는데 창 밖에서 들리는 소리.

'아참! 여기는 이슬람권이지.'

신기한 맘에 황급히 창으로 달려가 카메라에 담아 보았다.

아랍말을 전혀 모르니 경전을 읽는 소리가 보다 짐작하였으나 알고 보니 기도 시간을 알리는 소리란다.



호텔에서 내려다 본 탕헤르의 야경.

오른쪽 뒤로 솟아 있는 것이 호텔에 오는 도중 시내에서 보았던 모스크의 미나렛이다.



아잔(예배 시간을 알리는 소리)

사원(모스크)으로부터 기도 시간임을 알리는 소리가 사방으로 어둠을 가르며 울려 퍼지고 있다.

이슬람 신자들은 하루에 다섯번의 기도를 올리는데

예배 시간임을 알리는 모스크의 성직자 '**무에진**'이 모스크의 첨탑인 **미나렛**에 올라가 기도할 시간임을 외치면
사람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모스크로 향하거나 혹은 그 자리에서 기도를 올리게 된다.

짐을 대강 정리하고 저녁을 먹기 위해 아래층으로 내려왔으나

조금 일찍 내려왔기에 호텔을 한바퀴 돌아보고 다시 식당으로 들어가 일행들 몇과 모여 앉아 담소를 나누며 저녁을 먹었다.
저녁을 먹고 나니 모두들 각기 제 방으로 들어가는 분위기.

하지만 나는 호텔로 오며 버스 창밖을 통해 보았던 모스크가 있는 곳까지 걸어가 보고 싶어 좀이 쑤서 죽겠다.

리스본이나 세비야에서는 호텔이 시내와 떨어져 있어 어쩔 수 없었지만 이 곳은 지척에 변화한 거리가 있지 않은가.

하지만 룸메이트 샘을 꼬셔 호텔 밖으로 나가려는 순간 가이드에게 딱 걸려 혼썰만 났다.

말의 요지는 나가려거든 목숨 내놓고 나가라는 거. 좀 과장된 말이긴 하겠지만 그만큼 치안상태가 좋지 않다는 뜻일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볼까 싶은 맘도 있었지만 용기가 부족한 나는, 결국 나의 바램을 접고 말았다.

'정말 그정도로 위험했을까...??'



호텔의 수영장 앞에서 포즈 취하기



호박죽 비슷한 스프와 생선 요리. 이 곳의 버터가 맛있었던 기억이...

대서양과 지중해를 동시에 품은 항구도시 **탕헤르**.

이 곳도 둘러보면 볼 것이 꽤 있을 것 같은데 스케줄대로만 움직여야 하는 우리들에게 탕헤르는 그저

페스로 가는 여정에서 잠시 잠을 자기 위해 머문, 지나가는 도시에 불과할 뿐이었다.

항구에서 호텔까지, 그리고 호텔을 출발하여 십여분내지 길어야 이십분 정도 보았던 것이 전부인 **탕헤르**라는 도시...

아쉬운 맘에 지난밤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둘러볼 걸 그랬나하는 부질없는 후회가 밀려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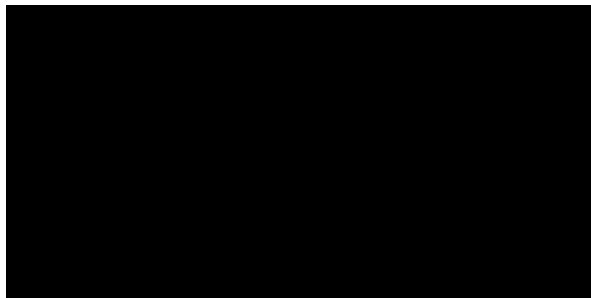


지난 밤 머물렀던 **인터콘티넨탈 호텔**.

모로코 현지 가이드 '사이다'와 물건을 팔기 위해 서성이는 장사꾼 2명이 보인다.



이 곳 **모로코**에서는 구경 삼아 물건에 관심을 두면 물건 파는 사람이 끝까지 따라 붙는다고 해서
우리는 정말 그 곳 물건들에 눈길 한 번 제대로 주지 못한 것 같다.







30분이상 달렸을까 버스에서 이상한 소리가 난다.

처음엔 버스에 이상이 생겨 나는 소리인줄 알았는데 점점 세차게 들리는 것이 누군가 두드리는 소리 같다.

버스 안에 있는 화장실에 누가 숨어들었거나 아니면 누군가 화장실에 들어 갔는데 문이 고장나서 못 나오고 있는 건 아닐까 싶어 화장실 문을 열어 보았지만 그 곳엔 아무도 없다.

모두들 의아해 하며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는데 운전기사가 버스를 갓길에 세우고 밖으로 나간다.

잠시후 웅성대는 소리...

제 자리에 앉아 있으라고 해서 보지는 못했지만 차 밑에서 소년 2명이 나왔다고 한다.

가이드의 말에 의하면 종종 있는 일이라고.

가난에서 탈출하고 싶어 스페인으로 밀입국하려고 목숨을 걸고 이런 일들을 벌이는 거란다.

우리가 페스로 향하는 차가 아니라 스페인으로 가기 위해 항구로 향하는 차였다면

이 소년들은 어쩌면 그들이 원하던대로 밀입국에 성공했을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해서 스페인으로 밀입국한 소년들은 소매치기를 배우게 되고 스페인의 여러 관광지 중 특히 마드리드나 바르셀로나 등에서 관광객을 대상으로 소매치기를 하며 살게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한다.

벗어나기 힘든 이들의 가난이 참으로 안스럽다.



앞이 안보일만큼 안개가 자욱해서 혹시라도 사고가 나지 않을까 한동안 좀 겁이 났다.

모로코의 농촌은 얼핏 보기에도 형편이 어려워 보인다.

문맹률이 높은 나라 모로코, 특히 **모로코**의 농촌에서는 자식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는다.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부모의 농사일을 돕거나 양떼를 몰고 나와 하루 종일 양들을 지키는 것이 하루 일과의 전부인 듯하다.

달리는 차 속에서 내다보니 양 떼를 몰고 나와 있는 어린이나 할 일없이 앉아 하염없이 이 쪽 창길만 바라보고 있는 청년들이 종종 눈에 띈다.

순간적으로 본 모습이지만 그들의 표정이

"너무나 무료해."

라고 말하고 있는 듯하다.

아직은 기회가 너무 적은 이 땅 **모로코**, 젊은 열기를 발산할 길이 없는 그 들의 **젊음**이 참 안타깝단 생각이 든다.



▲
고속도로



▲
모로코의 농가



▲
외톨이처럼 서 있는 올리브 나무



너무나 비옥해 보이는 땅.

땅이 이렇게 비옥한데 왜 이들은 이렇게 가난한 것일까. 그것은 모로코 농가의 대부분이 소작농이기 때문이란다. 주인이 70~80% 차지하고 농사를 지은 장본인들은 20~30% 밖에 가질 수 없는 불평등함 속에서 열심히 농사를 짓고 싶은 마음이 들리 만무다.











농촌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양떼, 소떼들



소를 몰고 들판으로 나가고 있는 소년이 보이고 그 뒤로 허리를 굽혀 일하는 어른이 보인다.



기계화가 거의 되지 않은 듯...마차인지 달구지인지.. 저런 모습도 종종 볼 수 있는 모습이다.



▲
공동 묘지





▲
코르크 나무



▲
시골의 사원답게 작은 미나렛이 솟아 있다.
마을마다에서 저와 똑같이 생긴 미나렛을 볼 수 있었다.



▲
노후화 되어 뚜껑이 열린채로 달리는 버스.
저런 차들이 많다고 한다.



▲
무슨 시설일까?



▲
이런 저런 풍경들을 열심히 관찰하다 보니 두번째 휴게소에 도착했다.







두번째 휴게소에 내려 생리적 현상도 해결하고 꽃사진도 찍고 스트레칭도 해본다.

오늘이 이번 여행 중에서 첫번째나 두번째쯤으로 이동 시간이 긴 날인 것 같다.

한국에선 세 네 시간만 차를 타고 몸살을 앓을 것 같은데,

보이는 모든 것들이 모두 새롭기만한 여행에선 장시간 몸을 차에 맡겨도 그리 피곤한 줄 모르겠다.

집에 돌아가면 한꺼번에 몸살을 앓을지도 모르지만...

음료수병에서..표지판에서..곳곳에서 보이는 아랍 글자는 봐도 봐도 질리지 않고 재미있다.

알파벳을 공부하듯 읽을수 있을 정도만이라도 아랍어를 배워봤으면 좋으련만.....





<http://blog.daum.net/mr5884>



<http://blog.daum.net/mr5884>



<http://blog.daum.net/mr5864>



<http://blog.daum.net/mr5864>



<http://blog.daum.net/mr5864>



<http://blog.daum.net/mr5864>



<http://blog.daum.net/mr5864>



<http://blog.daum.net/mr5864>



<http://blog.daum.net/mr5864>

멀리 건물들이 제법 오밀 조밀 모여있는 것을 보니 **페스**에 도착한 것 같다.

페스란 도시에서 가장 먼저 우리를 맞아 준 것은 모로코 국기.

스위스만큼은 아니어도 신시가지 곳곳에서 어렵지 않게 국기를 꽂아 놓은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데 국기에 대한 자부심이 큰 건지, 아님 다른 이유가 있어서인지는 잘 모르겠다.

도시 안으로 더 들어섰으나 이 곳은 내가 그동안 TV나 사진을 통해 보았던 페스의 모습이 아니다.

이유인 즉, 페스는 이 곳 사람들이 메디나라 부르는 구시가지인 **페스 엘 발리**와 메디나가 생긴 이후 왕궁이 지어지고 군대가 머물렀던 구역인 **페스 엘 제디드**(왕궁지역), 그리고 모로코를 식민 통치하던 프랑스가 세운 **빌 누벨**(신시가지) 이렇게 세 지역으로 나뉘어지는데 내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곳은 사진을 통해 보았던 구시가가 아니라 프랑스인이 세웠다는 **신시가지**이기 때문인 것 같다.

빌 누벨은 모로코의 큰 도시마다 하나씩 있으며 **식민지**라는 아픈 상처를 안고 있는 지역이지만 모로코의 현재를 지탱해 주고 있는 그런 힘을 가진 곳이다.



페스는 세 지역으로 나뉜다.



빨간 바탕에 초록별이 그려진 모로코 국기.

빨간색도 그렇고 별도 그렇고 언뜻 사회주의 국가의 국기 같다는 단순하기 그지없는 생각이 스쳐지나간다.

다음은 네이버 백과사전에서 찾은 모로코 국기에 대한 설명이다.

-빨강 바탕에 초록 선으로 그려진 5각별이 있다. 빨강은 [모로코](#) 국민의 조상인 알라위트가(家)의 깃발색에서 유래하였으며, [순교자](#)의 피와 왕실을 의미하고 초록색은 평화와 자연을 의미한다. 별의 5개 각은 이 나라의 국교(國敎)인 [이슬람교](#)의 5가지 율법을 나타낸다. [붉은 기](#)는 17세기부터 쓰였는데, 1912년 다른 많은 붉은 기와 구별하기 위해 '솔레이만의 별'이라는 표지를 붙였다.







노새가 유일한 운송수단이라는 메디나에서는 정작 노새를 못봤는데 신시가지에서 짐을 싣고 가는 노새를 보았다.
저 가족도 혹시 메디나에 있는 가죽 염색 공장으로 가는 거 아닐까??



▲
모로코 거리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상표

이 곳은 신시가지 빌 누벨에서 가장 중요한 도로인 **핫산 2세 거리**이다.

야자수가 줄지어 있는 대로를 중심으로 **유럽식** 상가 건물들과 카페, 호텔 등이 늘어서 있다.





신시가지지를 지나면 구시가보다는 늦게 형성되었지만 옛날 모습을 하고 있는 건물들을 볼 수 있다.

한 무리씩 그 형성된 시기가 다르다고 하는데... (각각 13세기, 17세기라던가...)

아무튼 형성된 정확한 시기는 기억나지 않지만 이 곳도 몇백년씩 된 꽤 오래된 지역인 것 같다.





▲
문신을 한 손 때문에 눈에 띄는 광고판.

천연피부 염색 재료인 **헨나(Henna)**로 그려서 만든 문신인데 일종의 천연 염색인 셈.

이슬람 금식 기간인 **라마단** 때나 축제 때는 일반적인 문양으로 그리며

결혼식을 앞둔 신부는 보다 더 복잡하고 화려한 문양으로 문신을 한다고.

처음엔 연한 붉은빛을 띄지만 점차 검은색으로 변하였다가 보름 정도 지나면 없어진다고 한다.

모로코 여성들은 헨나가 몸에 유익한 성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며 나쁜 기운을 몰아낸다고 생각하여 부적처럼 문신을 하기도 한다.





여자들은 거의 전통 복장을 입고 다니는데 남자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은 것 같다.



드디어 구시가 도착



점심을 해결하기 위해 들어간 메디나의 한 레스토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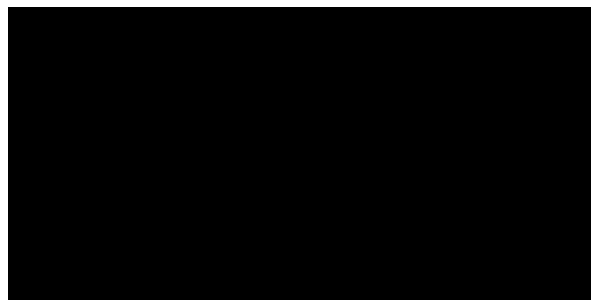
좁은 골목에 있는 모습으로 봐선 그저 그런 식당일 줄 알았는데 겉모습과는 달리 내부가 으리으리하다.

TV에서 메디나 안의 **궁전 식당**을 보여 주며 그런 곳이 여럿 있다고 했던 것이 기억나는데 혹시 이 곳도 그런 곳 중의 하나가 아닐까 싶다.

우리는 점심을 먹기 위해 들렀기 때문에 이 곳의 손님으로 우리 일행들 밖에 없었지만 이 곳이 그 궁전 식당이라면 아마도 밤엔 다양한 관광객들이 모여 모로코의 전통 음식을 먹으며 벨리 댄스나 그 밖의 각종 공연을 즐길지도 모른다.



좁은 골목길로 들어서자 레스토랑이라고 쓰여져 있는 간판이 나온다.
옛날에는 귀족이 살던 집이었다고 하는데 겉모습은 보잘 것 없어 보인다.





하지만 내부로 들어서자 모두들 눈이 휘둥그레 진다.
겉에선 보잘 것 없어 보이던 집이었는데 내부는 생각보다 훨씬 넓고 지붕이 높은 것이
마치 성의 일부분에 와있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이다.



내부에는 이렇게 정원 비슷한 것도 있어 커다란 나무가 자라고 있으며
특이한 것은 정원의 바닥이 흙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타일이 깔려 있다는 거다.



모로코의 전통빵인 '흙스'
맛은 있었지만 메디나의 빵 만드는 곳에서 만든 빵이라니
위생적으로 만들었을까 싶긴 하다.



볶음밥 비슷한 것과 호박 나물과 비슷한 맛의 호박볶음요리와 샐러드 빵 등이 먼저 나오고...



오늘의 메인요리 '푸스푸스'가 주인공답게 나중에 등장 했다.
'푸스푸스'는 좁쌀과 야채, 그리고 고기를 넣어서 찐 모로코 전통음식이다.
심심하니 먹을만 하다.

모로코 페스의 메디나에선 옛도시답게 옛날 방식 그대로 만드는 **수공예품**이 유명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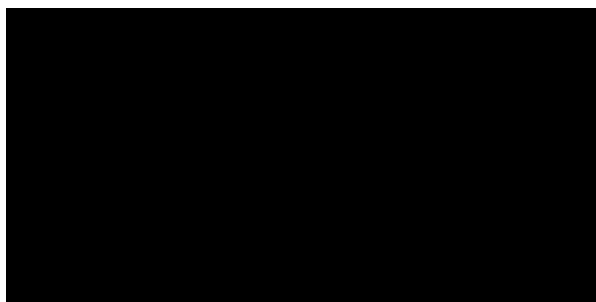
그래서인지 페스의 현지 가이드가 제일 먼저 안내한 곳도 그런 물건을 파는 곳 중의 하나.
가게 한 쪽에선 정과 망치만을 가지고 쟁반 같은 그릇에 일일이 무늬를 새기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저런 솜씨를 보유하려면 얼마동안의 숙련의 과정을 거쳐야 할까.'

'장인의 솜씨는 참 대단하다.'

그 노고에 대비해서 생각할 땐 쟁반이나 접시 같은 그릇의 값이 그리 비싼 것 같진 않지만
그릇 욕심이 없고 물건값을 잘 흥정하지 못하는 나는 굳이 비싼 돈을 주고 사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 구경만 하고 나왔다.
(이 곳에서는 우리네 남대문처럼 물건값을 잘 흥정해서 사야 한다.)





▲
감탄하는 사람들



장인의 솜씨가 실로 대단하지 않은가



수공예로 제작한 도자기.



페스 메디나는 모로코가 프랑스 식민지가 되기 전까지 모로코인의 삶의 중심지가 되었던 곳이다.

1912년 페스 조약 이후,

메디나 외곽에 신시가지가 건설되고 신시가지가 행정과 산업을 담당하게 되면서
전통적인 메디나는 **중세 도시**의 면모를 그대로 유지하며 관광객을 불러들이는 요인이 되었다.

이 곳 사람들은 농업, 직물업, 전통 수공예품 만드는 일등에 종사하고 있으며

이 곳에서 태어나고 자란 그들에겐 아직도 이 곳이 그들의 삶의 터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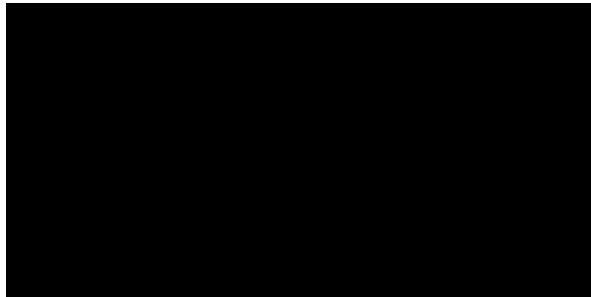
메디나 내부는 거미줄처럼 **얽힌 9000개 이상의 골목**으로 되어 있어 **미로나** 마찬가지.

이 곳에서 태어나고 이 곳에서 살아온 사람이 아니라면 이 곳에서 길을 잃지 않기가 얼마나 어려운 일일지 쉽게 짐작이 된다.

우리나라에도 옛날 모습 그대로를 유지하며 살고 있는 이런 곳이 한 곳쯤은 남아있어도 좋으련만

어딜가든 그 도시의 옛 모습이라곤 좀처럼 찾아볼 수 없는 한국의 현재가 안타깝다.

한국적인 게 남아 있어야 관광객을 좀 더 불러들일 수 있을텐데.....





수공예로 섬세하게 제작한 특산물 중의 하나인 카펫.
주로 여자들이 만든다.



옷감 짜는 모습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에 까지 여러 세대에 거쳐 이 일을 계속해 오고 있다.
이 곳에서 스카프라도 한 장 사왔으면 좋았을 걸 그랬다.



처음엔 접혀져 있는 모습을 보고 소쿠리 같은 종류인 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가죽 의자다.
펼쳐서 공기를 넣어 부풀린 다음 아래에 있는 지퍼를 당으면 의자가 된다.



모로코의 전통 가죽 슬리퍼인 '**지와니**'. 모스크에 갈 때나 명절 날에 신는다.
페스에 가죽 산업이 발달한 것도 가죽 신발의 수요가 많기 때문이라고.



대부분의 이슬람 사회가 그렇듯 모로코도 남성 위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메디나에서 물건을 파는 사람들은 대부분 남자들 뿐이다.



상점들이 즐비한 거리



이 가게에서 파는 건....데이츠, 아찌찌쿠???



위에 보이는 알록달록한 것은 모로코의 옛이고 아래 보이는 것은 참깨 강정이다.



모로코의 전통 복장을 하고 있는 남자.
 이 골목은 가게들이 즐비한 골목과는 달리 매우 쓸쓸한 표정을하고 있다.
 9000개 이상의 골목이 있는만큼 골목들의 표정 또한 다양한 모습일 수 밖에...



쇼핑을 나온 가족인가 보다.

아이들은 자유복장, 남자들은 선택, 여자들은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어 보인다.
한여름에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통 가리고 있는 모습을 보면 어찌나 답답해 보이는지 불쌍하기까지 하지만
그들은 오히려 보는 이만큼 불편해 하지 않는 것 같다.



가이드를 따라 이름 모를 골목 여기 저기를 누비고 다녔지만 과연 두 세시간 동안 9000여개의 골목 중 몇개나 보았을까.
가이드는 수시로 위험한 곳을 알려 준다.
머리가 부딪힐만한 곳도 있고 갑자기 계단으로 바뀌는 곳도 있고.
곳곳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구경에 정신이 팔리면 머리에 혹 하나쯤 달리는 것은 일도 아닐 것 같다.





메디나의 사람들.

상인, 물건 사러 나온 사람, 골목을 놀이터 삼아 노는 어린이, 관광객...이들이 모두가 어우러져 메디나의 모습을 완성하고 있다.



골목을 누비다 가이드가 안내하는대로 어느 건물의 계단을 올라 2층으로 올라가니 모로코 전통 가죽 슬리퍼며 가죽의자 등을 파는 가죽제품 가게가 나온다. 처음엔 이 곳에서 가죽제품을 보고 쇼핑을 하라는 뜻인 줄 알았는데 그 곳의 한 남자가 조그만 풀을 하나씩 나누어 주자 비로소

'아~ 이 곳에 바로 그 페스 메디나의 상징이 되다시피한 가죽공장이 있는 거구나.'

'단단히 각오해야겠는 걸.'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간다.

하지만 걱정했던 것과는 달리 여름이 아니라 그런지 냄새는 잘 느낄 수 없었다.

오히려 그 냄새를 무마하기 위해 코에 대라고 나누어준 식물의 냄새가 더 역했다는 사실. ㅎㅎ

가게의 테라스로 나가니 그 곳에는 지금까지 좁은 골목에서 보던 세상과는 다른 세상이 펼쳐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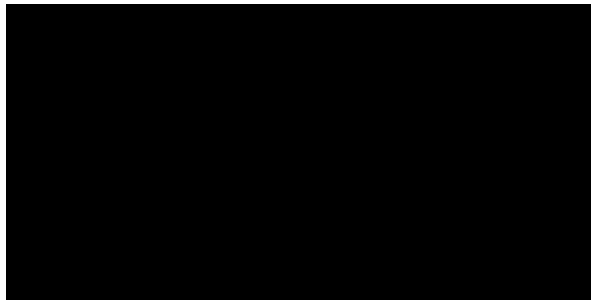
메디나의 전경이 보이고 테라스 아래에는 말로만 듣고 사진으로만 보던 바로 그 가죽 공장이 있다.

그리 분주해 보이지 않는데 한 쪽에선 죽은지 얼마 안된 듯 보이는 머리가 잘린 양의 가죽을 벗기는 작업을 하는 남자가 보이고 또 한쪽에는 가죽에 염색을 하려는 것인지 색깔이 있는 액체로 가득한 우물 같은 곳으로 들어 가는 다른 한 남자가 보인다.

그 속으로 들어 가는 남자를 보며 나는 나도 모르게 얼굴이 찌푸려졌다 보다.

양젖물처럼 독한 액체일거란 느낌 때문이었는데 다행이 인체에는 해롭지 않은 천연 염료를 탄 물인것 같다.

이 신기한 세상을 한참동안 구경하고 우리는 그 곳을 빠져 나왔다.



가죽공장 맞은편에 있는 가죽 가게의 2층 테라스에서 내려다본 가죽공장과 구시가지의 모습



머리 잘린 양의 모습에 순간 마음이 아프다.



양을 손질하고 있는 남자
가죽을 벗기려고 하는 것 같은데...



각각 색깔이 다른 염료가 담긴 염료통(?) 옆에 가죽이 쌓여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염료통 안으로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남자.



모로코 페스의 구 시가지인 페스 엘 발리 지역의 전경 모습.
메디나라고 불리우는 이곳은 미로같이 좁고 긴 골목에 작은 주택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다







메디나를 찍는척하며 줌으로 당겨 이 사람들을 찍은 것인데 맨 끝의 남자가 눈치를 쳤나보다.
어째 기분 나빠보이는 표정.초상권 침해인가??? ㅎㅎ

메디나의 좁은 골목을 빠져나오니 가족가게 2층 테라스에서 보았던 조금 넓은 장소가 나타난다.

요즘 우리 나라에선 아이들도 하루 일과가 바쁘게 짜여져 있어 밖에 나와 놀고 있는 아이들을 찾아 보기가 쉽지 않은데 (물론 시골의 사정은 알 수 없지만 시골에는 아예 아이들 자체가 별로 없는 편이니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다.)

이 곳의 어린이들은 학교를 가지 않는 어린이들이 많지 않아 그런지 밖에서 노는 아이들이 많이 보인다.

하지만 얼마후 난, 어쩌면 이 아이들이 단순히 놀기 위해 밖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닐지도 모른단 생각이 들었다.

가난스러워 보이긴 해도 특별히 걸인 같아 보이지도 않는 아이들이 눈만 마주치면 돈을 달라고 쫓아오니 말이다.

전쟁이후 가난했던 시절, 우리네 아이들의 모습도 이러했을 것인가.

마음이 짠~하다.



관객들이 눈에 띄면 돈을 달라고 쫓아오던 아이들



공동묘지

비석이 다닥다닥 붙은걸 보니 화장을 해서 묻었을까하는 궁금증이 생긴다.



구시가지가 점점 아래로 내려다 보인다.
바로 전에 보았던 공동묘지도 어느새 아래쪽으로 보이고...



▲
이 것은 페스 성채 유적지가 아닐까...





▲
고지대 쪽으로 올라왔다.





뒤쪽으로 모로코 페스의 왼쪽의 밥 기사 성벽과 그 뒤로 구시가지인 메디나가 펼쳐진다.





▲
증명 사진 남기는 것도 잊지 않는 나.
페스에 왔었노라. ㅋㅋ

페스의 구시가를 보고 다음 행선지인 카사브랑카로 이동하기 위해 버스를 타고 가다 본 페스의 또 다른 모습들이다.

성곽 같은 것이 보여 혹시나 왕궁지역? 하면서 보았는데 아무래도 아닌 것 같다.

페스의 세 구역 중 왕궁지역을 보지 못해 아쉽다.

왕궁도 꼭 보고 싶었는데...



성곽에 구멍이 숭숭 뚫려 있는 이유를 가이드가 설명해 주었다.

그 이유를 알긴 알겠는데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할 것 같아 보류하고 싶지만 일단 대강 설명하자면
성곽을 쌓아 올릴 때 성곽 중간 중간에 사다리를 대신하여 나무를 꽂아 놓고 밟고 올라가면서 높은 곳까지 성곽을 쌓아 올렸는데
훗날 나무가 없어지고 나서 나무를 꽂아두었던 자리에 구멍이 생긴 거라고..

으~우려했던대로 설명이 시원치 않다.

하긴 바람 통하라고 혹은 비가 왔을 때 물이 새어나가라고 일부러 뚫어놓은 구멍이 아니라는 사실만 알아도....ㅋㅋ





사형 선고를 받아 놓은 양떼들
이 곳에서는 1월 6일이 양고기를 먹는 날이라고 한다.
이 날은 1월 3일.
'3일 있으면 너네들은 이 세상 양이 아니겠구나.'



어디에서나 쉽게 볼 수 있는 모스크.



모로코 전통 복장의 아저씨



카페

페스에서의 짧은 일정을 마치고

우리는 페스를 떠나 **카사브랑카**로 향한다.

최소한 20일 정도는 잡아야 할 일정을 12일로 압축시켜 보려니
관광 시간보다 이동 시간이 더 많은 날이 종종 있어 마음이 흡족치 않다.

페스를 떠나 얼마나 지났을까 금새 날이 어두어져 온다.

카사브랑카에는 한 밤이 되어야나 도착할 듯 싶다.







카사블랑카의 야경을 보며 늦게야 호텔에 도착했다.

저녁 먹기에 늦은 시각(9시쯤 되었나??)이라 호텔 식당으로 가 저녁부터 먹으려는데 오늘 저녁 메뉴가 스테이크란다.

'안그래도 배고픈데 맛있겠다.' 란 생각도 잠시, 먹으라고 내온 음식을 보니 실망감이 든다.

시장이 반찬이라지만 질기디 질긴 고기가 영 별루다.

스테이크라고 했는데 함박스테이크를 떠올렸던 건가, 아님 나도 벌써 패키지 여행에 길들여진 것인가.

배고픈 배낭 여행의 기억이 나의 여행 경험의 전부인 나는,

세비아 호텔에서 음식 타박을 하던 우리 일행 한 명을 그 땐 잘 이해하지 못했는데 나도 벌써 배부른 패키지 여행자가 되어 버렸나 보다.

늦은 저녁이라 솔직히 살 찢 것도 좀 걱정이었는데 핑계김에 오늘 저녁은 남겨 본다.





저녁을 먹고 짐을 대강 정리하고 룸메이트샘과 호텔 주변을 둘러 보기 위해 밖으로 나왔다.

이 곳은 치안에 큰 문제가 없는지 외출이 허락되었던 것.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별로 갈 곳이 없다.

문을 닫은 가게들도 많고

아직 문을 닫지 않은 가게가 있어도 이 곳 화폐인 디램이 없었기에

이 곳에서는 아무 것도 살 수 없고 아무 것도 사먹을 수 없었다.

대서양이 바로 근처에 있기에 바다 구경이라도 해야지 싶었는데 껌껌해서 도무지 보이는 것도 없다.

'이게 뭐야. 내보내줘도 별 수 없잖아~'



호텔 옆 가게



호텔 앞 주차 금지 표지판.
아랍 글씨가 재미있는 나는 아랍 글씨만 보면 무조건 사진을 찍어 댄다.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다며 룸메이트샘이 이 곳에서 갖은 노력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밤, 아이스크림을 먹지 못했다.
영어도 통하지 않고 디램도 없고...
"쌔~ 한국에 와서 아이스크림 사드셨나요?"



▲
맥도날드 햄버거 가게



'하얀집'이라는 뜻을 가진 모로코의 대서양 연안의 항만 도시 카사블랑카는 험프리 보카드와 잉그리트 버그만 주연의 영화 제목이 되었던 도시이기 때문에 더 유명한 도시일 것이다.

이 영화는 어렸을 적에 본 영화라 내용은 전혀 기억 속에 남아 있지 않지만 흑백 TV 속 두 주인공의 모습만은 어렴풋이 기억에 남아 있는 그런 영화다. 하긴 어렸을 적 기억을 뒤지지 않더라도 어제 이 곳으로 오는 버스 안에서도 이 영화를 상영해주긴 했었다. 내가 앉아 있던 자리가 모니터를 쳐다보기에 불편한 자리라 영화보기를 포기 했을 뿐...

'카사블랑카'란 도시 이름은 굳이 영화를 떠올리지 않더라도 이름 자체만으로 너무나 낭만적인 느낌을 주는 거 같다.

여행을 마치고 온 지금, 카사블랑카란 도시가 이름만큼 멋지고 가볼만한 도시란 생각은 들지 않지만 그래도 이 날의 아침 산책만큼은 잊을 수가 없다. (물론 이후 바르셀로나에서의 지중해 해변 산책도 좋았지만.) 그것은 아마도 우리 나라에서 이런 경험을 거의 해 본 적이 없었던 나의 특수한 이력 때문일지도 모르겠고, 아니면 여행 중 오랜만에 느끼는 자유였기 때문이었을지도 모르겠다.



▲
아침 안개 자욱한 대서양



▲
카사블랑카 이름에 걸맞게 온통 하얀집들.





나는 지금 자유를 만끽하는 중.



갈매기떼도 자유를 표현하는 춤을 추고 있는 듯 하다.



인적이 드물어 더욱 좋은 바닷가.



사람들의 시선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 좋다.



안개 속에서는 아침 운동을 즐기는 이들이 있다.



촉촉한 풀잎의 달팽이 무리를 보니 아침이 더욱 신선하게 느껴진다.



꽃 이름도 거의 알지 못하고 꽃에 대한 관심도 부족한 나지만 생물에 관심이 많은 룸메이트 쌤을 따라 꽃사진도 열심히 찍었다.

해변 산책을 마치고 거리로 나와

카사블랑카의 거리 표정을 카메라에 담아봤다.

하루를 여는 준비로 바쁘게 일하는 사람들, 지난 밤을 어디에서 보냈을까 싶은 거리의 노숙자.

안개 낀 거리,거리의 광고판과 표지판들, 해안가의 이름 모를 꽃들, 누가 타는 자전거일까 싶은 낡고 특이한 자전거, 출근하는 사람들,
사람 사는 곳이면 어디나 그렇듯 카사블랑카도 다양한 표정을 가지고 있었다.



하루를 열며 손님 맞을 준비로 바쁜 사람들



비 대신 나뭇잎으로 거리를 쓸고 있는 모습이 특이해서 허락 받고 찍은 사진.



노숙자일 것 같은 사람도 보이고...



▲
안개 낀 거리



▲

출근하는 사람들일까



맥도날드



넓은 시내버스는 이른 시각이라 텅텅 빈채로 거리를 달리고...



거리의 가로등엔 바람개비가....



원색의 광고판엔 햄과 소세지가...



바다를 바라볼 수 있게 놓여있는 벤치들 중 하나에도 앉아본다.



카사블랑카 의 변두리라 그런가, 차가 많이 다니지 않는 것 같다.



▲
이건 무슨 광고???



▲
낮은 자전거



▲
택시 정류장



▲
버스 정류장





▲
파도치는 안개 낀 대서양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 알로에



선인장

영화 카사블랑카의 배경이 된 '릭스 바' 가 실제로 카사블랑카에 있을까?

.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영화의 타이틀 때문에 이 영화를 카사블랑카에서 찍었을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아이러니 하게도 카사블랑카란 영화는 단 한 장면도 카사블랑카에서 찍은 적이 없단다.

그렇다면 카사블랑카에 있는 하얏트 리젠시 호텔의 '릭스 바'는 뭐냐구???

하얏트 리젠시 호텔의 '릭스 바'는

영화를 위해 미국 캘리포니아에 마련된 '릭스 바' 의 영화 소품들을 옮겨와 당시의 무대를 그대로 재현해 놓은 것이라고 하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관광객들이 카사블랑카 영화의 핵심 무대인 '릭스바'를 보기 위해

하얏트 호텔 (호텔 1층에 카사블랑카 바가 있다고 함)이 있는 이 곳 마호메드5세 광장을 찾는다니...쩍.

하지만 그나마도 가짜 '릭스 바' 를 찾을 수 있는 것은 자유 여행자들에게나 해당될 뿐,
우리는 그저 이 곳에서 광장과 시청과 법원만을 둘러본 채 자리를 떠나 했다는 거....



▲
법원



▲
시청



▲
모하메드 5세 광장



우리 제법
잘 어울려요.

▲
모로코 현지 가이드 '사이다'와 함께.

그는 문맹율이 높은 모로코인으로서는 드물게
이태리에서 공부한 박사 학위의 소유자로 가이드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으며
그 직업 외에도 영화배우라는 타이틀을 하나 더 가지고 있다.



여러편의 영화에서 할리웃의 유명 배우들과 촬영을 한 바 있으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화 '[글래디에이터](#)'에도 단역으로 출연했다고 한다.

유명 배우가 주인공인 올해 여름 개봉될 영화에도 출연했다고 하는데 잘 생각이 나지 않는다.
요즘은 기억나지 않는게 왜 이리 많은지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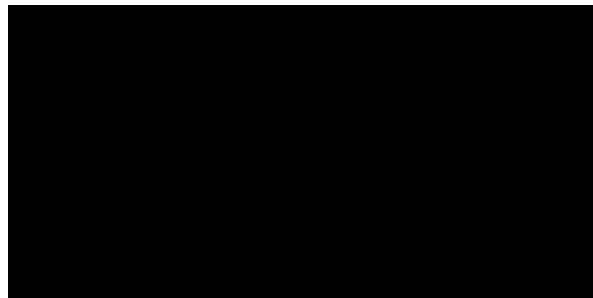
(오른쪽 사진) 카사블랑카 거리에서 눈길 끄는 것은 지나는 이의 갈증을 달래주는 **물장수**의 독특한 모습이다.
어깨 한쪽에 염소 가죽으로 만든 물자루를 메고 원색의 화려한 모자를 쓴 이들은 눈에 잘 띄도록 강렬한 빨간색 원피스를 입었는데,
물장수라기에는 그 복장이 너무도 멋져 보인다.
그들의 사진을 찍으려면 돈을 줘야한다기에 비겁하게 뒷모습만 찍었는데
지금와 생각하니 그냥 돈 주고 제대로 한 컷 찍을 걸 하는 후회가 든다.
(전체적으로 사진을 안찍는 분위기라 혼자 사진을 찍기가 뭐했다는게 궁색한 변명이라면 변명이다.)



(빌려온 사진으로 대신하자.)



핫산 2세 사원으로 이동하던 중 발견한 릭스 카페.
'릭스 카페 아메리카'을 그대로 재현했다는 하얏트 리젠시 호텔의 Bar도 어차피 가짜이지 않은가.
이렇게라도 못 본 것에 대한 서운함을 달래면 되는거지 뭐.



As time goes b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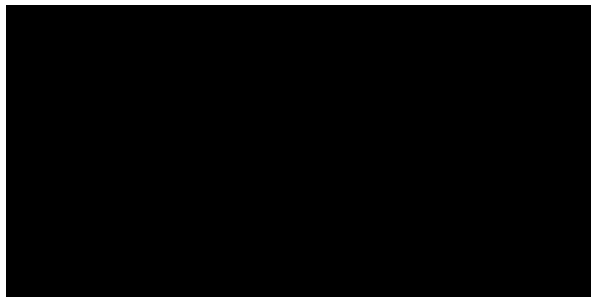
규모면에서는 세계에서 **두번째(혹은 세번째라고도 함)**로 큰 사원이고 높이면에서는 세계 최고를 자랑한다는 **핫산2세 사원**.

핫산 2세 국왕이 국민의 성금을 모아 1987년부터 1993년까지 7년에 걸쳐 지은 사원으로 **200m**나 되는 **미나렛**의 높이 때문에 카사블랑카 시내 어디에서나 볼 수 있으며 **2만 5천여명**이 동시에 들어가 예배를 볼 수 있을 정도의 크기라고 한다.

세계 각지의 가장 좋은 자재들만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매우 고급스런 느낌을 주며 사원의 외벽과 부수건물들의 벽면에서는 이슬람 특유의 문양을 한 모자이크들을 볼 수가 있다.

또한 사원의 지붕이 개폐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이 사원의 또 다른 특징인데 이는 예배를 볼 때 자연 채광이 안으로 들어 오고 2만 5천여명이 예배에 참가해도 신선한 공기의 공급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안타깝게도 우리는 가이드 투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부는 볼 수 없었지만 모로코 최고의 실내장식 조각기술자들이 완성했다는 내부는 세기의 걸작품이라고 할만큼 대단하다고 한다. 사원 앞의 광장은 대리석으로 덮여있고 분수대와 정원이 잘 어우러져 있으며 사원 옆으로는 대서양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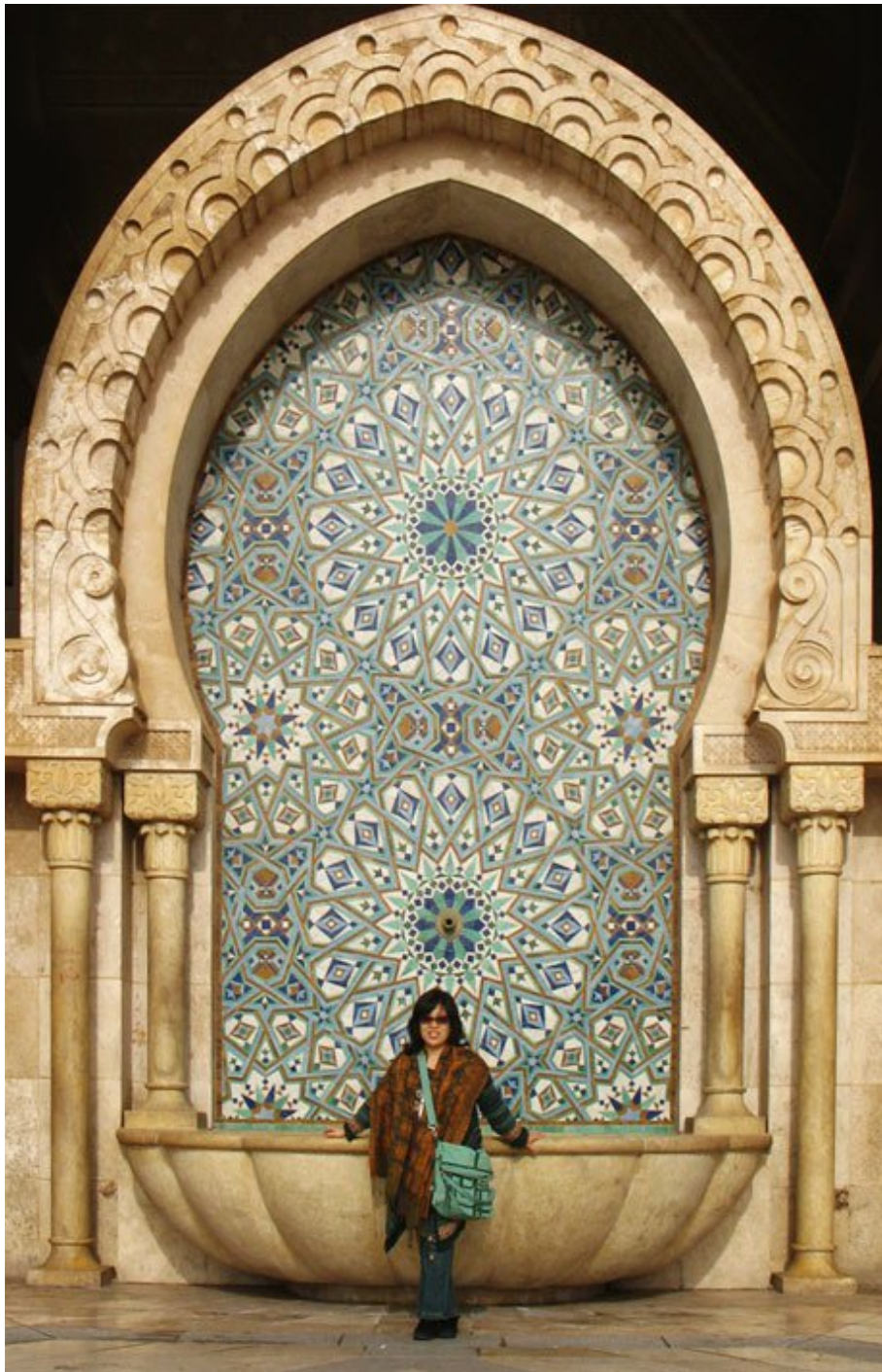
〈핫산 2세 사원의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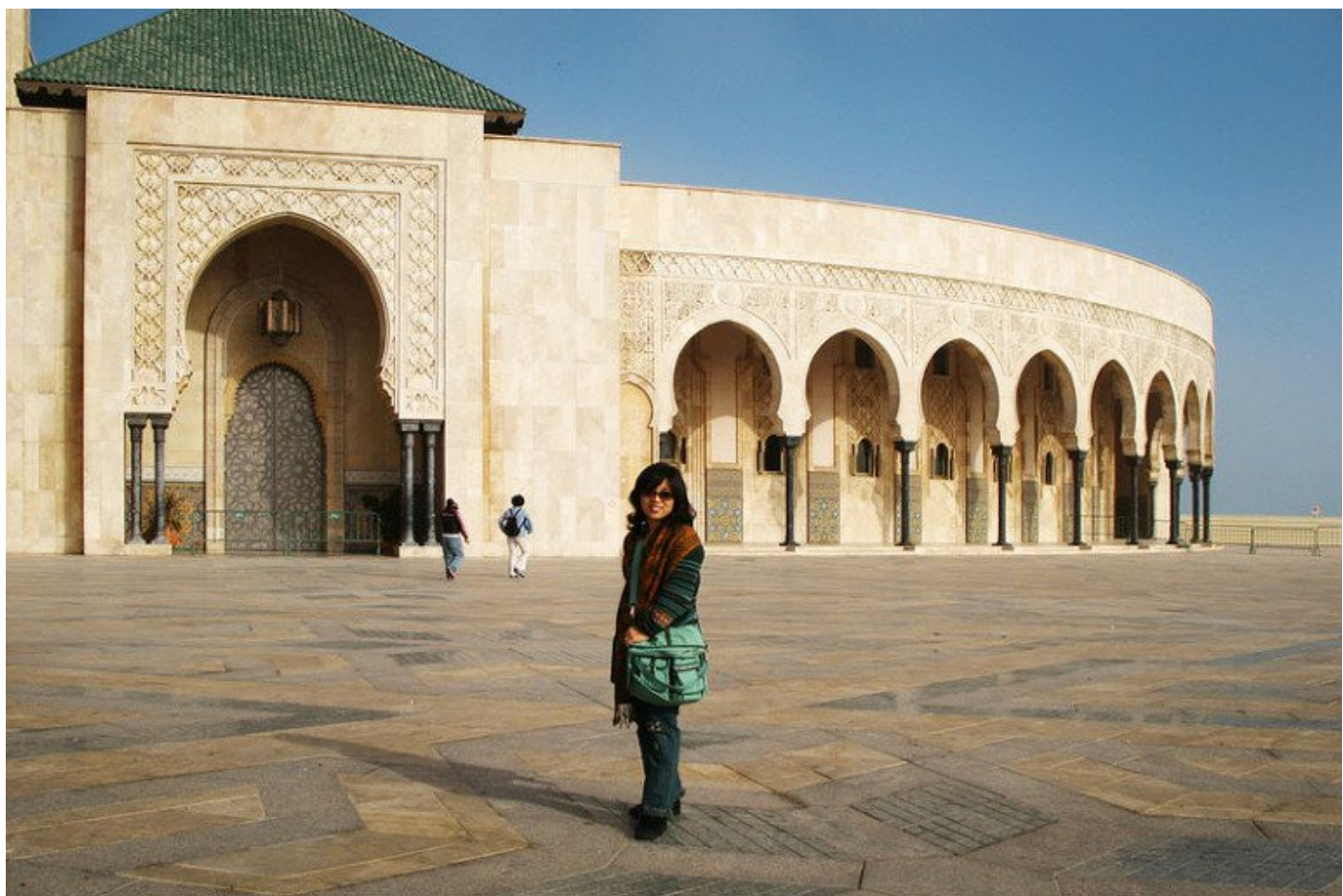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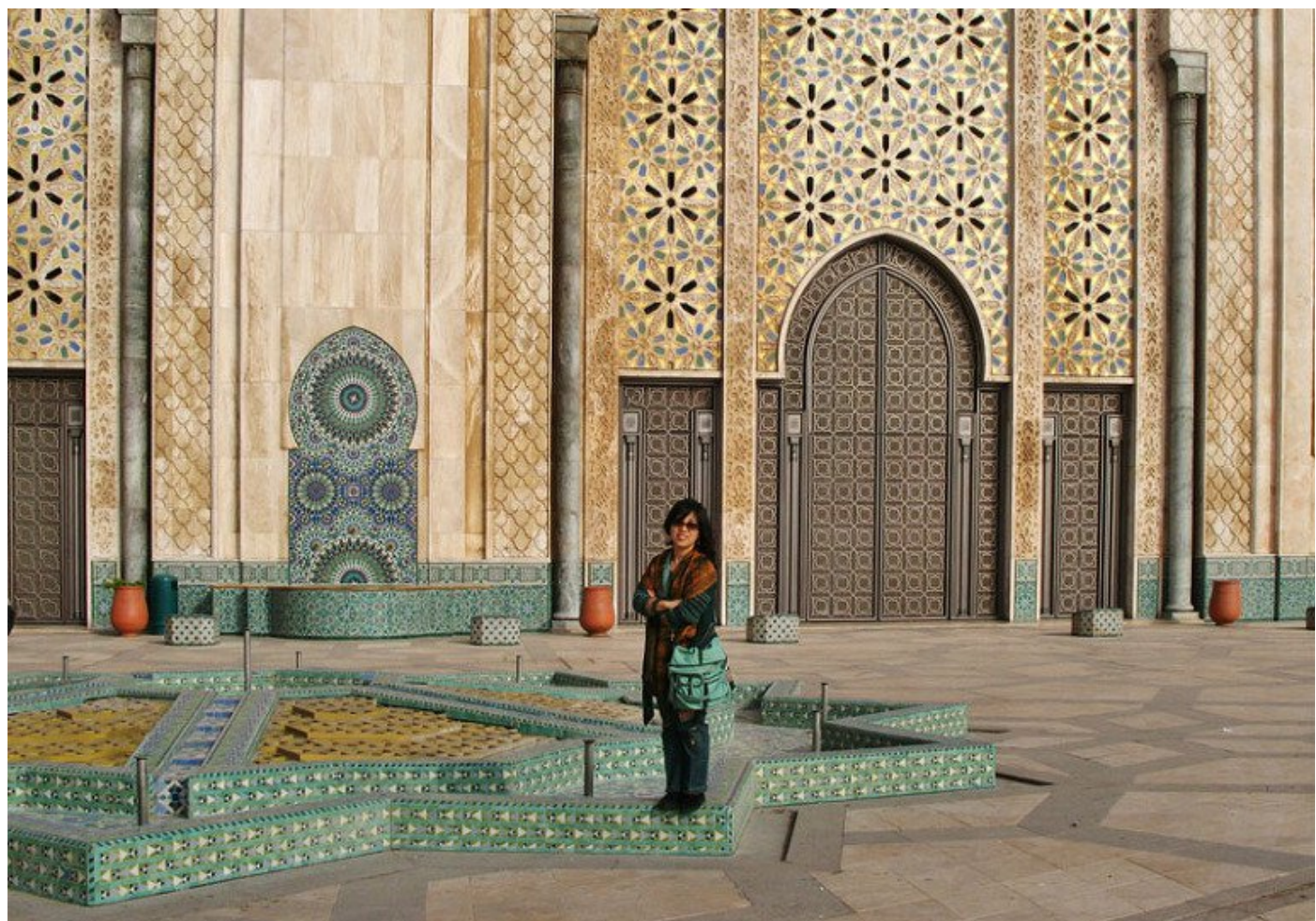
높이가 200m까지야 되랴 싶었지만 아무튼 무지하게 하늘로 높이 솟은 미나렛을 가지고 있다.





▲
이슬람 특유의 문양들.
아라베스크 문양이라고 하던가??











▲
뒤로 대서양이 보인다.





대서양 쪽에서 바라본 사원의 모습 (빌린 사진)

왕궁을 보기 위해 모로코의 수도인 라바트로 이동 중이다.









위의 사진들은 카사블랑카의 거리 모습을 담은 사진들이고

아래 사진들은 라바트의 모습을 담은 사진들이다.







라바트는 **모로코**의 수도로서 **왕궁**과 **의회**, **정부기관**과 **외국공관** 등이 있는 행정도시이며 **모로코의 정치 중심지**라고 한다. 하지만 나는 이번 여행을 통해서야 비로소 **라바트**라는 도시가 이 지구상에 존재함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고 더불어 **모로코**의 수도임도 알게 되었다. 그도 그럴 것이 **라바트**란 도시가 **카사블랑카**처럼 익숙하거나 **페스**처럼 알려져 있는 도시는 아니지 않은가. **모로코**와 **모나코**를 혼동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라바트를 모르는 것 짬으로 예전에 지리공부를 못했었다고 스스로 제 발 저려하며 부끄러워하지 말기로 하자.

라바트에서 우리가 첫번째로 간 곳은 1894년에 세워졌다는 **왕궁**.

현재 모든 국가 공식 행사가 이 곳에서 치러지며 국왕과 총리의 집무실도 이 곳에 있다고 한다.

'이 곳이 아름다웠는가?'

솔직히 나는 눈부신 햇살 아래 멀리서만 보아서그런지 그 아름다움에 대해서는 와 닿는것도 없고 언급할 것도 없다.

그저 '**아~넵구나**' 하는 생각만 했을 뿐.





▲
저 멀리 보이는 것이 왕궁이고 ...



이것은 사원이다.
아마도 왕궁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예배를 보는 곳이겠지.



왕궁과 사원 사이에는 분수대도 있다.





정부 기관쯤 되는 건물일까??



군인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오는 저 곳은 또 어디일까.

모로코에서는 밀동에 흰색 페인트를 칠한 나무들을 곳곳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모로코에 가로등이 부족해서 밤에도 눈에 띄게 해놓은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여기는 왕궁이 있는 곳이 아닌가.

이런 곳에 가로등이 부족할리는 없을텐데...

가우똥??



왕궁 주변에서는 깃발이 달린 저런 종류의 건물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저런 건물은 각 나라의 대사관이라고 한다.

라바트에서 왕궁 다음으로 간 곳은 현 국왕의 조부이며 국왕 핫산2세의 부친인 **모하메드 5세의 묘**.

모하메드 5세는 1912년 이래 프랑스의 식민통치에 항거하여 독립운동의 선두에서 싸우고, 1956년 3월 독립을 성취하자, 왕위에 올라 왕이 된 인물이다. 그후 근대국가 건설에 힘쓰다가 1961년에 죽었는데 이 묘는 1962년부터 1969년까지 7년간 400여명의 장인이 정성을 들여 건립했다고 한다. 실내장식이 매우 아름답고 훌륭한 묘 속에 석관이 안치되어 있다.

하루 종일 코란이 낭송되며 지금도 많은 라바트 시민들이 휴일이면 이 곳을 찾아와 참배하고 휴식을 취한다고.

이 곳의 또 하나 볼거리는 미완성의 탑인 **핫산탑**이다. **핫산탑**은 알 모하드 왕조의 **아콥 알 만수르**란 인물이 12세기 말경에 계획했던 장대한 모스크의 첨탑으로 건설되었으나 건설 도중 그가 죽으면서 공사가 중단되어 미완성으로 남게된 탑이다. 한 변이 16m인 정사각형 모양으로 44m 높이까지 올라가다 중단 되었으며 탑의 남쪽에는 **354**개의 돌기둥이 남아 있다. (이슬람에서는 1년을 354일이라고 한다던가...) **핫산탑**은 **모하메드 5세** 묘와 마주 보고 있으며 라바트에서도 가장 전경이 좋은 언덕에 자리 잡고 있다.



이 묘를 지키는 전통 복장을 한 근위병의 모습이다.

강렬한 빨간색 의상에 초록색 모자를 쓰고 흰 망토를 두른 채 백마 위에서 진지한 표정으로 꼳꼳하게 앉아 있다.

얼마동안 저러고 있어야 하는 것일까.

사람도 사람이지만 말도 참 힘들어 보인다.

말의 다리에 경련이 일어 부르르 떨리는 모습이 눈에 들어 온다.

photo by Ranee
<http://blog.daum.net/mirolove>



초록 지붕의 건물이 모하메드 5세의 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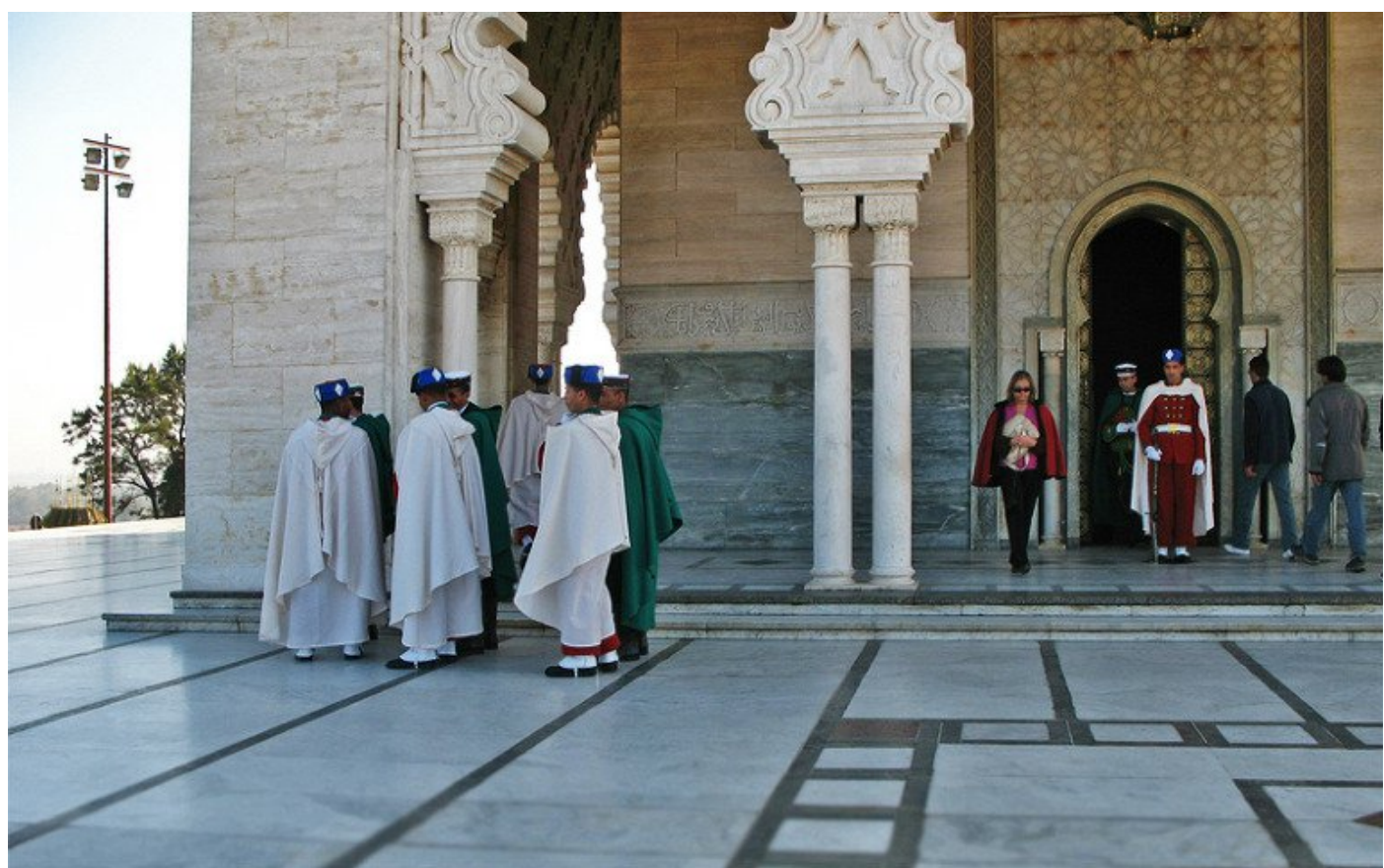
▲
핫산탑



▲
300여개가 넘는 기둥 중 일부.
모로코 전통의상을 입은 여인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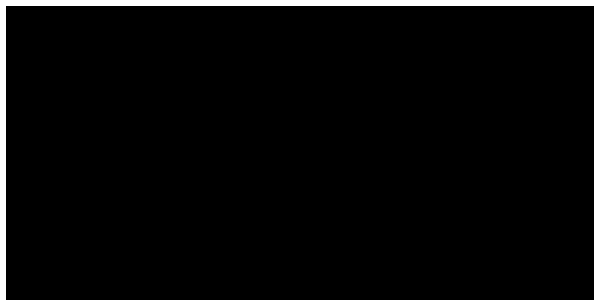
묘의 입구를 지키는 근위병의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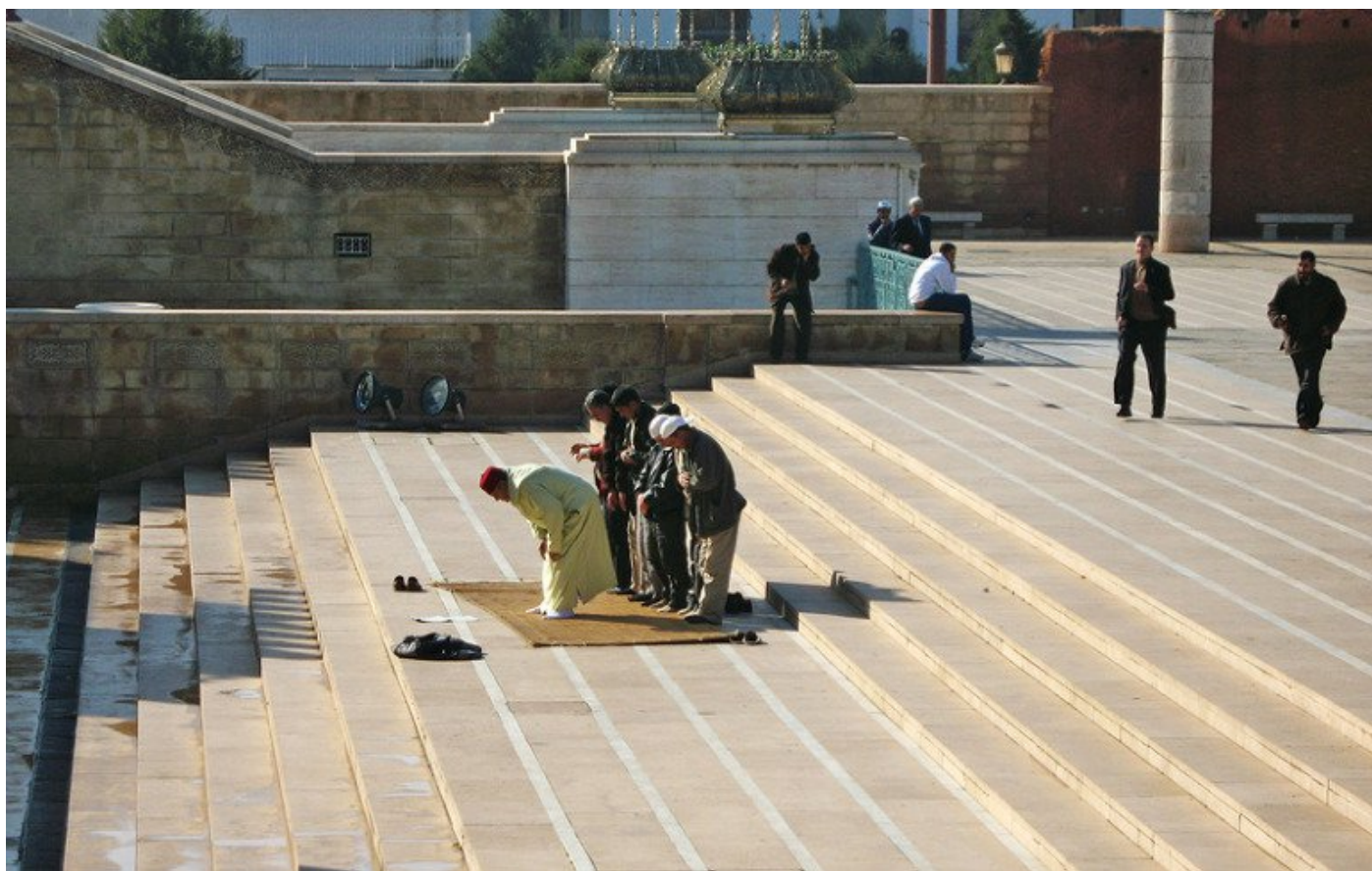
▲
군위병 교대식



▲
모하메드 5세 묘의 내부.
가운데 모하메드 5세의 석관이 안치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모하메드 5세 묘의 내부와 기도하는 모습〉
이곳에도 룸메이트 쌤의 목소리가 ...



▲
기도 시간이 된걸까,
아님 기도 시간과 무관하게 참배를 하는 모습일까?



묘에서 바라본 묘의 오른쪽 전경.
라바트의 가장 전망 좋은 곳에 자리 잡고 있다.



이 곳은 현 국왕이 실제로 살고 있는 궁으로 내부는 아무에게도 공개된 바가 없다고 한다.

라바트에서

모하메드 5세 묘와 핫산탑을 본 것으로 모로코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우리는 탕헤르를 통해 모로코라는 나라에 처음 발을 디뎠던 것처럼

탕헤르를 통해 다시 스페인이라는 나라로 건너가기 위해

탕헤르를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가는 도중에는 휴게소에 내려 한식 도시락으로 한참 늦어진 점심을 먹었는데

한식을 안먹은지 그리 오래되지도 않았건만 모두들 너무나 행복해 하는 표정들이다.

추억을 남기고 싶은 여행이라면 현지식을 꼼꼼히 챙겨 먹어보는 것도 한 방법이겠지만

우리들 대부분은 당장의 만족이,

현재의 행복이 더 중요한 듯 보인다.

휴게소 안의 모로코인들이 우리를 신기한 듯 쳐다 보는 거 같다.



▲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 오이 소박이도 도시락 메뉴에 들어 있다. 행복 2배 충전.



탕헤르를 향해 달리며 본 모로코의 농촌 풍경들.
세계는 넓고 갈 곳도 많으니 아마도 다시는 와서 보지 못할 풍경들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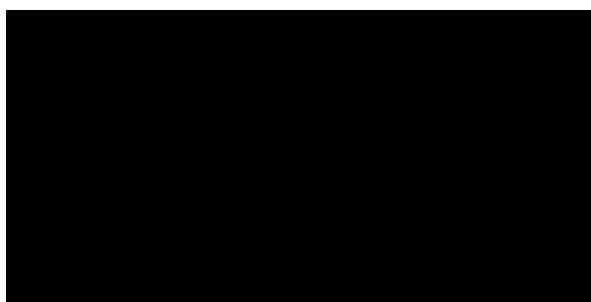
건물들이 꽤 보이는 것이 탕헤르에 가까이 온 듯 싶다.

탕헤르에 도착했다.

이제 배를 타고 지브롤터 해협만 건너면 다시 **스페인**이다.

탕헤르에 도착했을 때는 아직 해가 떨어지지 않았을 때였는데 배 시간에 무슨 착오가 있었던 것인지, 아님 배가 연착을 한 것인지, 그것도 아님 제 시간에 떠나는 배표를 못 구한 것인지, 아무튼 생각보다 훨씬 많이 기다려서 승선할 수 있었다.

말라가에 있는 숙소에는 몇시쯤이나 도착하게 될지 모르겠다.



모로코가 점점 멀어져 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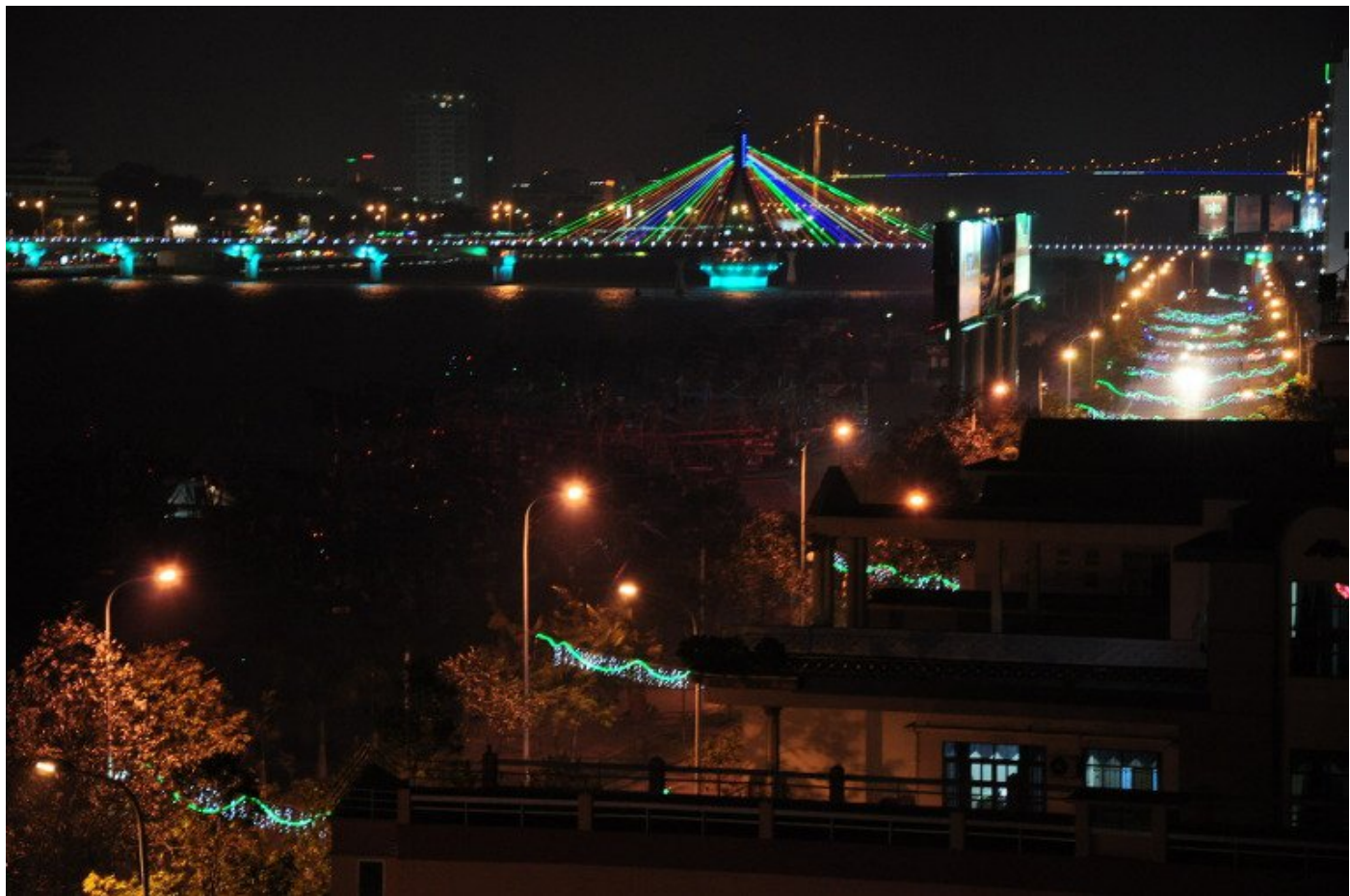
차가운 밤 공기도 아랑곳하지 않고 버티는 나



타리파에 도착했다.
나를 이 곳까지 데려다 준 배도 이젠 안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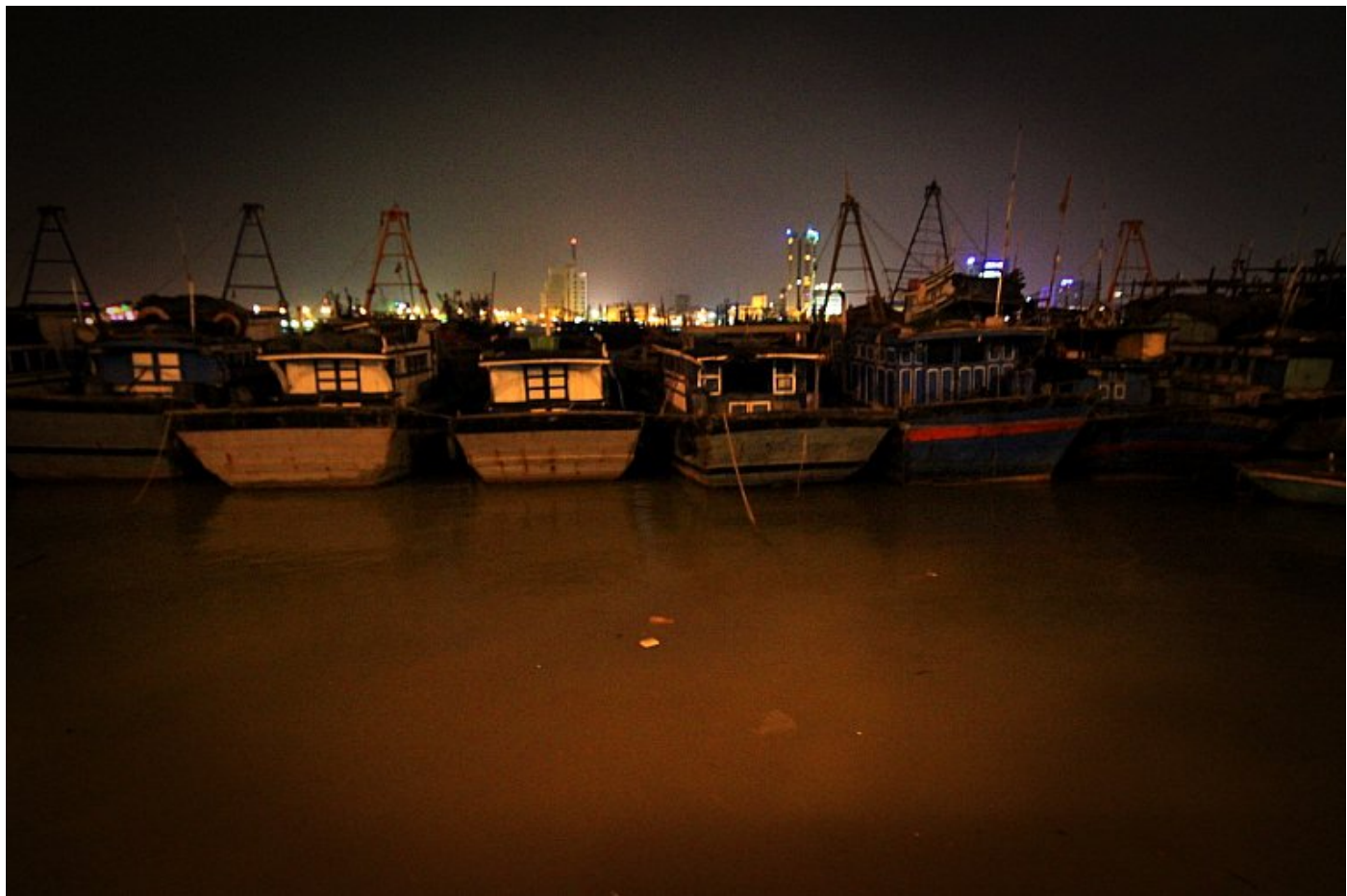




















2011년 1월 15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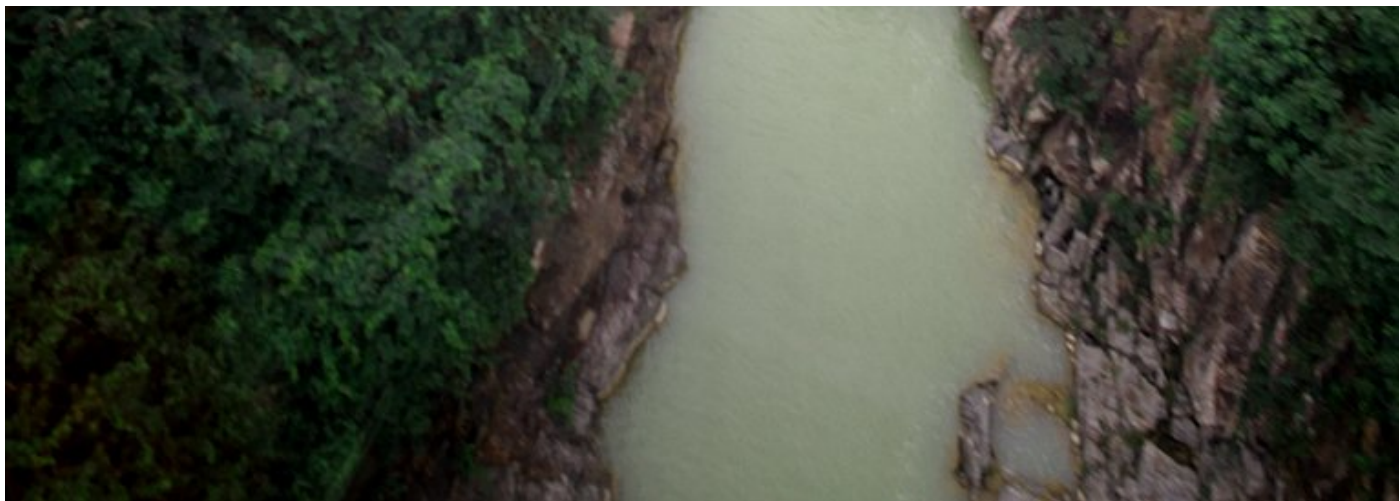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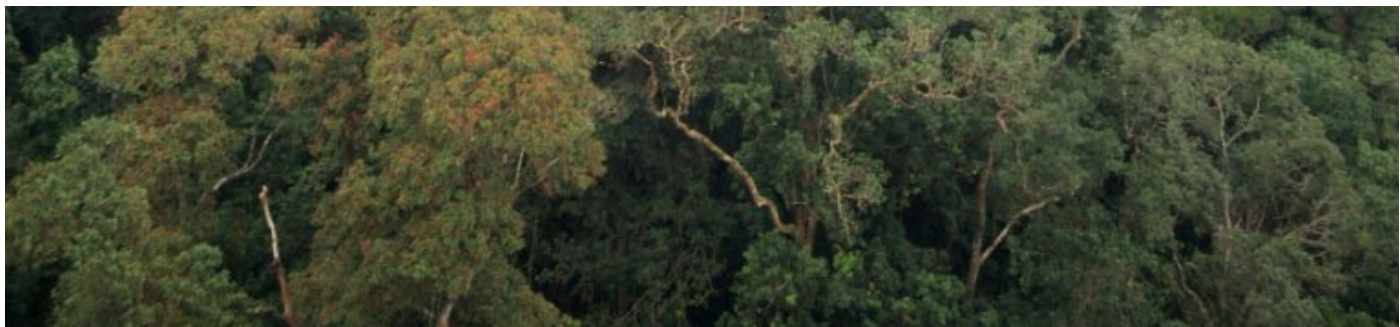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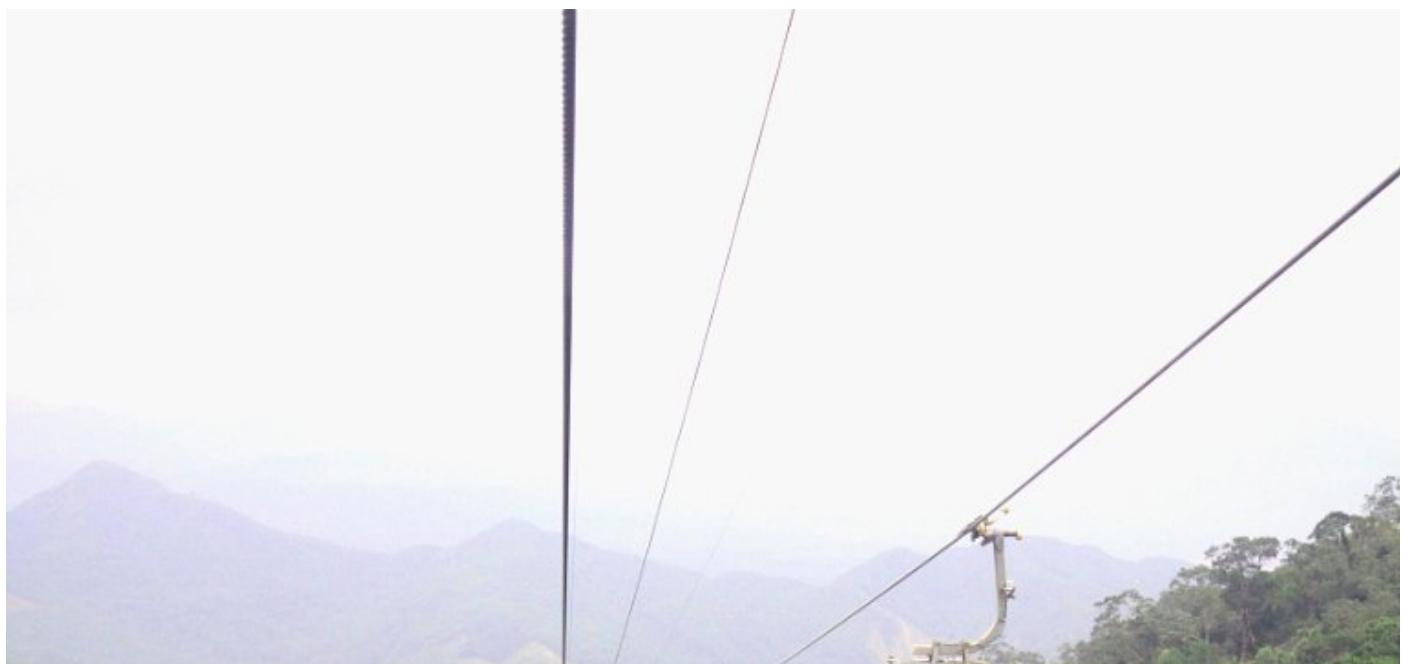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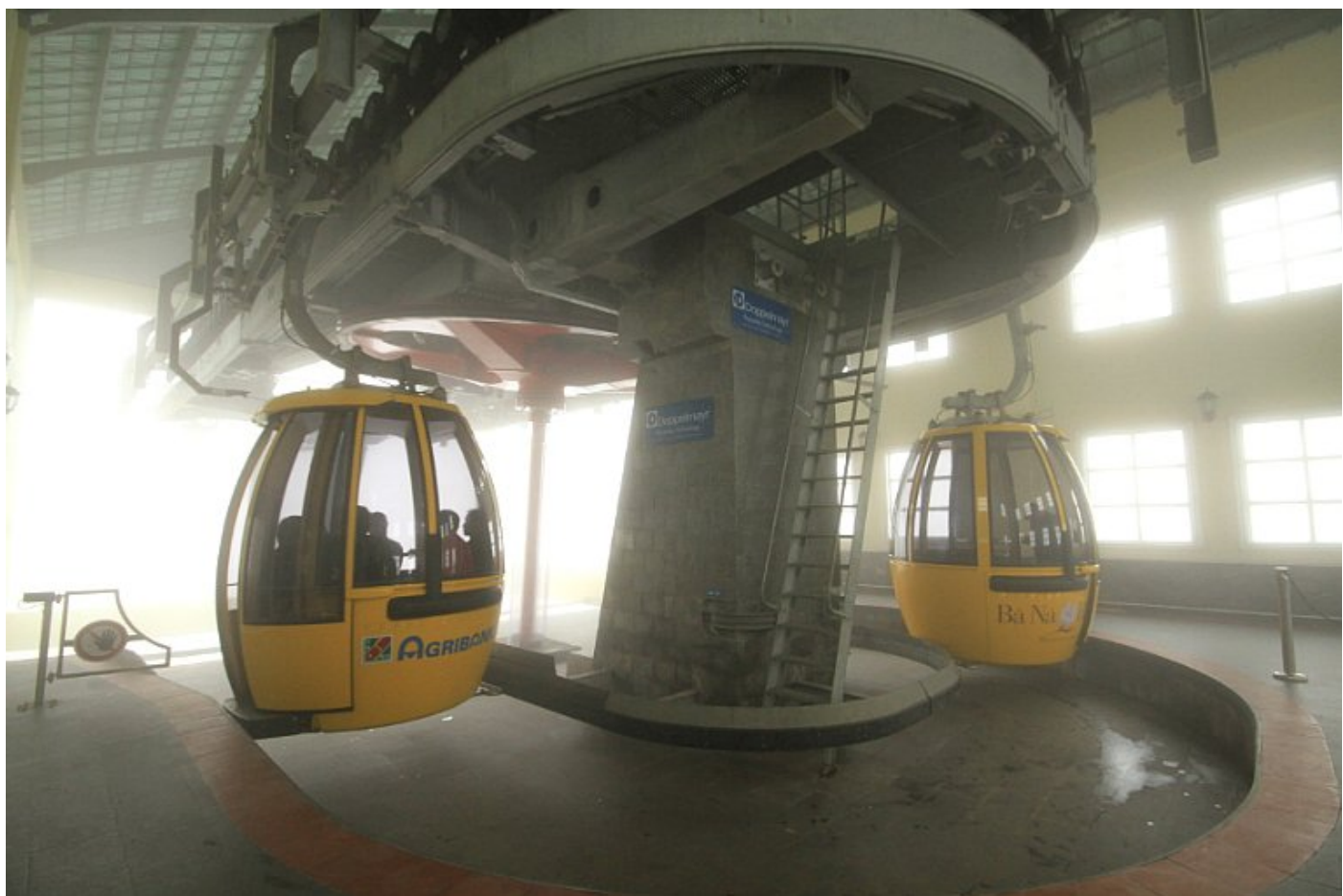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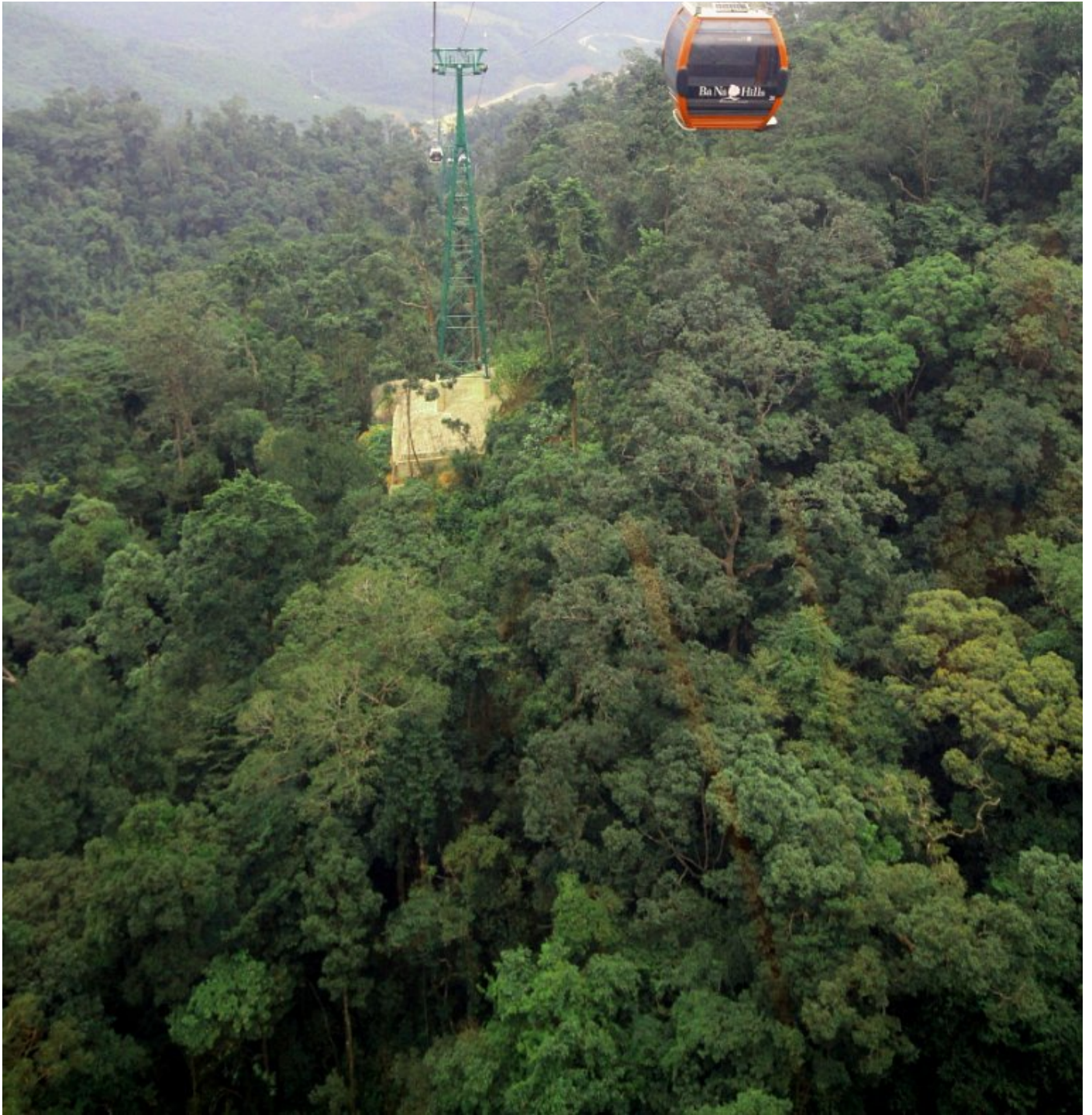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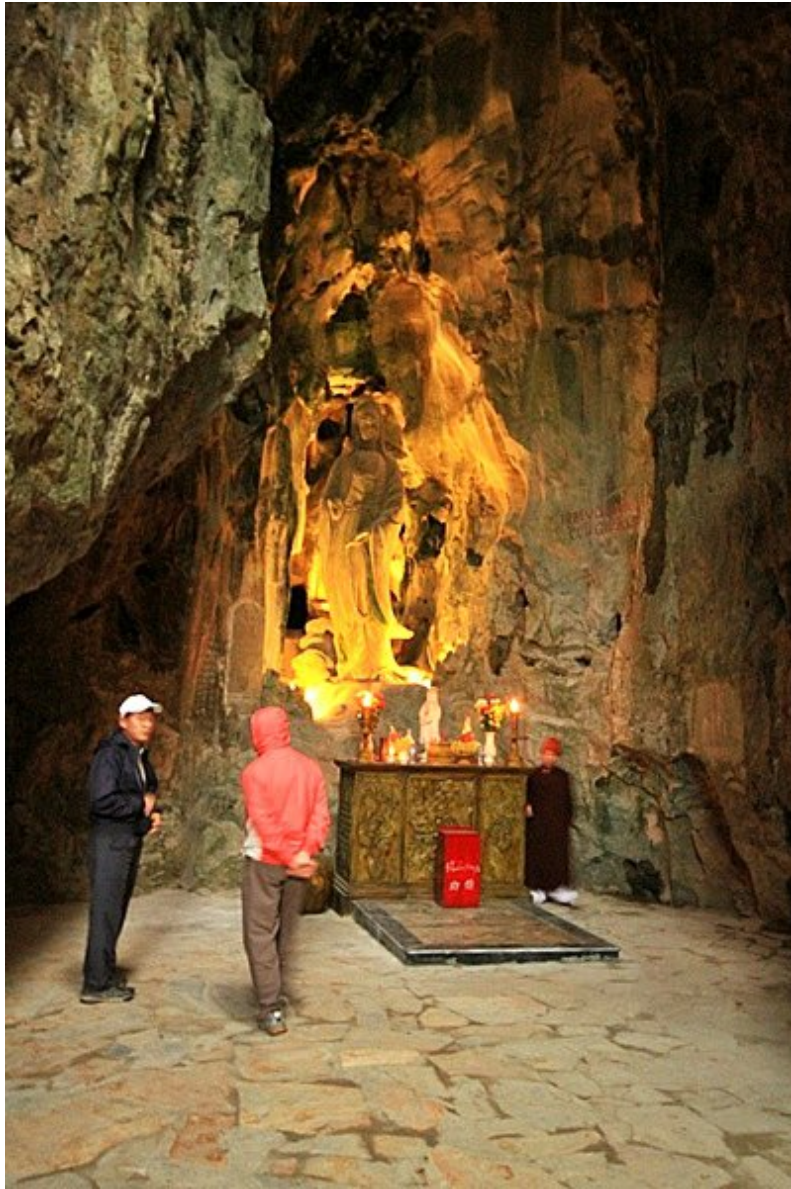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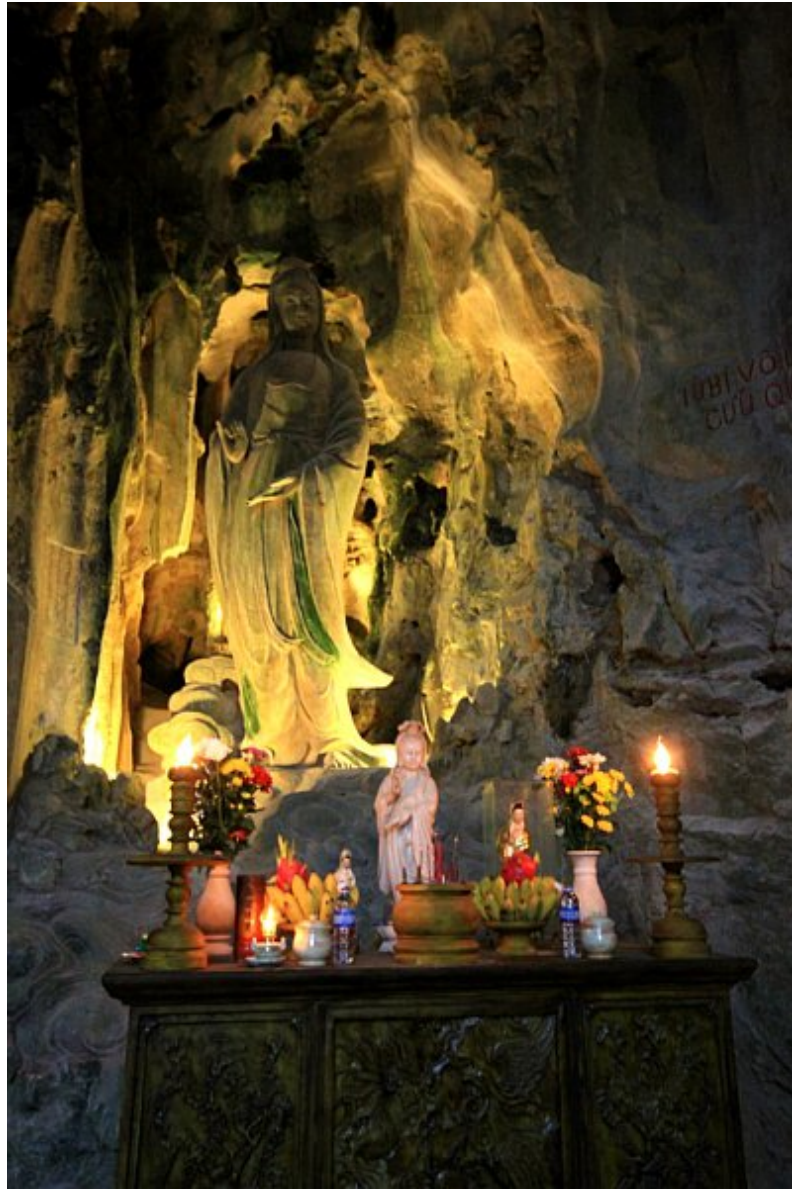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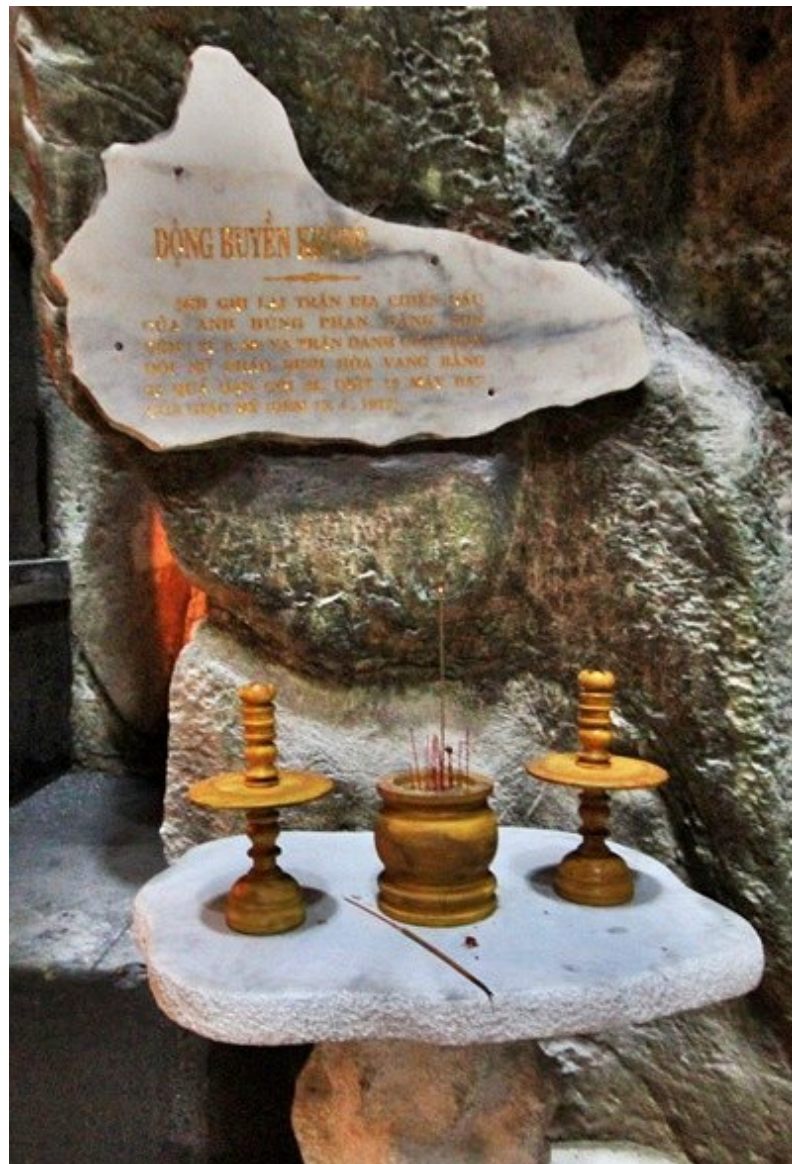




































호이안은 투본강변에 위치한 작은 도시로 16세기와 17세기에 걸쳐 완성된 도시입니다.

500년 전만 해도 동서양을 연결하는 해양 실크로드의 중심 항구였다고 하지만 어부들의 작은 배만을 볼 수 있는 현재의 모습에선 그 옛날 국제 항구의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네요.



베트남에 왔으니 씨클로를 안타볼 수가 없겠지요. 씨클로를 타고 시가지를 한 바퀴 둘러 보기로 합니다.
출발~



그야말로 씨클로의 행렬이네요.





비가 와서 사진 찍기가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운치가 있어서 좋습니다.



넓고 빛바랜 건물의 호이안 구시가지의 모습은 번잡한 도시의 모습과는 거리가 먼 듯 보이고 오래된 도시의 편안함이 느껴지는군요.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눈에 띄니다. 한 해 평균 호이안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80만 명에 달한다고 하는데 호이안 거주 인구의 10배에 달하는 숫자라고 하네요.





거리에 매달려 있는 등들이 참 예쁘고 이색적이군요.



과일 행상의 모습도 우리 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모습이라 이국적으로 느껴집니다.





▲ 호이안의 대표적 상징물이라 할 수 있는 일본교

(16세기에 일본인들이 자신들의 거주지와 중국인들의 거주지를 연결하기 위해 만들었다고 함)



▲ 일본교 (지붕이 있는 아치형 다리)



▲ 일본교에서 바라본 투본 강 주변 풍경



▲ 일본교에서 바라본 투본 강 주변 풍경



▲ 일본교에서 바라본 투본 강 주변 풍경



▲ 해 진 후의 일본교 모습



▲ 일본교를 건너 만난 거리



▲ 일본교 주변의 마을 모습



▲ 일본교 주변의 마을 모습



▲ 일본교 주변의 마을 모습



▲ 일본교 주변의 마을 모습



▲ 야경 속의 일본교



1855년 호이안에 진출한 광둥인들이 세운 중국식 사원













































































라니의 여행앨범2 (오, 체, 포, 모로코, 베

블로그 Voyager <http://blog.daum.net/mirolove>

저자 ㉠anee(라니)

발행일 2015.07.17 12:45:11

 블로그